

정답과 해설



Contents

I	현대 시	02
II	고전 시가	27
III	현대 소설	40
IV	고전 소설	66
V	극·수필	77



I. 현대 시

01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

사뿐히 즈려밟는 학인 문제

p.16~17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시적 화자 (2) 시적 청자 (3) 시적 대상
(4) 시적 상황 2 (1) × (2) ○ (3) × 3 ㉠ 외적 ㉡ 표면 ㉢ 사물

01 ⑤ 02 ㉡ 03 ④ 04 ② 05 ②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귀뚜라미_ 나희덕

시적 화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시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자.

높은 가치를 혼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작은 노래가 아니다.
시적 대상(귀뚜라미)과 대조되는 존재
시적 화자(의인화된 귀뚜라미)

▶ 1연: 아직 노래가 아닌 '나'의 울음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라미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시적 상황
→ 생명력이 없는
부정적 현실

▶ 2연: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하는 귀뚜라미의 의문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견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화자의 소망 - 노래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람.

▶ 3연: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귀뚜라미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의인화된 귀뚜라미)
- 시적 상황은? 여름날 생명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하도 콘크리트 벽이라는 공간에서 귀뚜라미가 울음을 토하고 있음.
- 어조는? 회의적인 어조에서 소망을 드러내는 어조로 변하고 있음.
- 정서나 태도는?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있음.
- 주제는? 소외된 존재와의 공감과 소통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의문형의 진술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함.
- 대조적 의미의 시어(귀뚜라미 ↔ 매미, 울음 ↔ 노래)로 의미를 강조함.
- 청각적·촉각적·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드러냄.

01

㉡ ⑤번이 답인 이유

이 시는 화자인 귀뚜라미의 독백으로 전개되고 있기에 화자와 매미의 소통은 드러나지 않으며, 매미는 그의 울음소리로 화자의 '울'

음'이 다른 이들에게 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매미와의 소통으로 화자가 자신의 '울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의 제목과 2연의 '귀뚜라미 뚜르르'라는 시구를 통해 시적 화자가 의인화된 귀뚜라미임을 알 수 있다.
- ② 이 시의 화자는 '내 울음', '나'라는 표현을 통해 표면에 드러난다.
- ③ 마지막 행에서 화자는 '내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노래'로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④ 이 시의 화자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소외되고 잊힌 존재로 볼 수 있다.

02

㉡ ㉡이 답인 이유

'맑은 가을'은 매미 울음소리가 견히는 시간으로, 시적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열악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미래의 긍정적인 상황이다.

오답 피하기

- ㉠, ㉡ 매미가 있는 '높은 가치'와 대조되는 공간으로 생명을 이어가기 힘든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
- ㉢, ㉣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인 여름을 의미한다. 매미 소리에 묻혀 귀뚜라미의 소리가 다른 이에게 들리지 않는 계절이라는 점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상황을 뜻한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저녁에_ 김광섭

시적 화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시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자.

저렇게 많은 중에서 /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시적 화자(표면에 드러난 '나')
시적 대상(화자가 관찰하는 자연물)

▶ 1연: '별'과 '나'의 특별한 만남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시적 상황(밤, 시간의 변화)

▶ 2연: '별'과 '나'의 이별

이렇게 정다운 /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 다시 만나랴
3연(화자가 맑을 견내고 있음)
별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

▶ 3연: '별'과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
- 시적 상황은? 밤에 별을 관찰하고 있음.
- 어조는? 관조적인 어조에서 소망을 드러내는 어조로 변하고 있음.
- 정서나 태도는? 별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음.
- 주제는? 친밀한 관계 회복의 소망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대구와 대조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냄.
- 유사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단어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함.
- '별'이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관조적인 성찰을 보여 줌.

03

㉠ 4번이 답인 이유

3연에서 화자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 다시 만나랴”라고 말하면서, ‘너’와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다. 또 ‘정다운’이라는 표현에서도 화자가 시적 대상을 친밀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1연의 2행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와 4행 “그 별 하나를 쳐다 본다”를 통해 화자와 별이 교감을 나누는 시적 상황이 드러난다.
 ② ‘밝음 속에 사라지’는 ‘별’과, ‘어둠 속에 사라지’는 ‘나’가 대조적인 명암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
 ③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게 된다.
 ⑤ 화자는 3연에서 ‘별’과 ‘나’가 정다운 사이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별’과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04

㉠ 2번이 답인 이유

2연에서 화자는 ‘밤’이 깊어짐에 따라 ‘별’과 이별을 하게 되지만 3연에서 ‘별’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므로 이별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파초우(芭蕉雨)_조지훈

시적 화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시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기>를 참고해 살펴보자.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화자의 정서 시적 대상(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감정 이입물)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1연: 외로운 구름이 떠돌.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화자가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적 배경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자연과 함께하고픈 화자의 심리가 드러난 행동

▶ 2~3연: 저녁 어스름에 마주하는 푸른 산

들어도 싶지 않은 물소리가에
자연 친화적 태도
 날마다 바라다 그리운 산아

▶ 4연: 날마다 그리운 산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시적 화자(표면에 드러난 ‘나’)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화자가 쉬고 싶어 하는
 자연의 공간, 안식처

▶ 5연: 쉴 곳을 찾아 떠도는 구름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자연과 교감하는 사람)
- 시적 상황은? 저녁 무렵 파초 앞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산을 마주하고 앉아 흘러간 구름을 생각함
- 어조는? 의고적(옛 형식을 따르는 말투)
- 정서나 태도는? 자연 친화적, 성찰적
- 주제는? 자연과의 교감에 대한 소망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던고’라는 어미를 활용하여 의고적인 어조를 사용함.
 (‘-던고’는 지난 일을 물을 때 쓰는 어미로 ‘-던가’보다 더 예스러운 표현임)
- 청각적·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와 주제 의식을 강조함.

05

㉠ 2번이 답인 이유

<보기>에서는 이 시의 화자로부터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숨고 싶은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현실 세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① ‘구름’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떠다닌다는 점에서 자연을 떠도는 처지인 화자의 외로운 심정이 투영된 대상이다.
 ③ 시적 화자가 ‘창’을 열고 ‘푸른 산’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화자가 자연을 친숙하게 대함을 알 수 있다.
 ④ ‘물소리’는 ‘산’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이며, ‘싫지 않은’이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가 ‘물소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연과 교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⑤ <보기>에서 화자는 이미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떠돌고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 화자의 외로운 심정이 투영된 구름이 머물며 쉬는 ‘어디든’은 화자가 안식을 취하고 싶은 자연의 공간이자 안식처라고 볼 수 있다.

02 화자의 정서, 태도, 어조

사뭇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26~27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정서 (2) 태도 (3) 어조 (4) 청자, 대화체, 독백체 2 (1) ㉠ (2) ㉡ (3) ㉢ (4) ㉣ (5) ㉤ (6) ㉥ (7) ㉦

01 ④ 02 ③ 03 ③ 04 함박눈 05 ③ 06 화자는 모란이 피었을 때를 찬란한 순간으로 느끼지만 모란이 지고 나면 큰 슬픔에 빠지고 만다. 마지막 행은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시구를 통해 그러한 슬픔을 겪게 될지라도 봄을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엄마 걱정_기형도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지 살펴보자.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시적 상황(화자의 어린 시절)
 → 가난한 가정 형편, 엄마의 고단한 삶
 시적 화자는 밤늦도록 ‘엄마’를 기다림.

어린 화자가 느낀 쓸쓸함과 외로움을 ‘찬밥’에 빗대어 표현함.



정답과 해설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 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홀쩍거리던

밤늦도록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울음으로 드러남.

▶ 1연: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유년 시절

아주 먼 옛날

나는 성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음.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화자가 어린 시절 느낀 외로움과 서러움이 드러나는 표현

▶ 2연: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는 '나'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
- 시적 상황은? 성인이 된 화자가,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음.
- 어조는? 회상적
- 정서나 태도는? 슬픔, 쓸쓸함, 외로움, 서러움
- 주제는? 빈방에서 홀로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서러움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운율을 형성함.
-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생생하게 표현함.
- 각 행을 종결하지 않고 사상을 전개하다가, 전체적으로 마지막 행을 수식하는 구성을 보임.

01

㉮ 4번이 답인 이유

㉮에서 비가 오고 있음이 드러나지만 이어지는 시행인 '빈방에 혼자 엎드려 홀쩍거리던'으로 볼 때 비가 화자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는 홀로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해 주고 있다.

02

㉮ 3번이 답인 이유

화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시장에 일하러 나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외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어린 날의 자신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을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② '엄마가' 안 오시네'를 반복하며 슬픔과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 엄마가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걱정적 어조란 화자가 격한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어조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찬밥'에 자신을 빗대거나 '홀쩍거리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이라는 시구를 통해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걱정적 어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⑤ 화자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슬퍼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이를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슬픔이 기쁨에게_정호승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지 살펴보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화자(=슬픔) 청자(=기쁨) □: '-겠다'를 반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슬픔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함.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

▶ 1~6행: 이기적인 '나'에게 슬픔을 주려 함.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 소외된 이웃에게 무관심한 '나'의 모습 비판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슬픔과 같은 의미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소외된 이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 ▶ 7~14행: 무관심한 '나'에게 기다림을 주려 함.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①: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②: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 15~19행: '너'와 함께 진정한 사랑과 화합을 이루고자 함.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의인화된 '슬픔')으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시적 상황은? 소외된 이웃(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나'(=기쁨)를 비판함.
- 어조는? 대화체(=말을 건네는 어조)
- 정서나 태도는? 비판적, 의지적
- 주제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추구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의인화된 시적 청자인 '너'(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상을 전개함.
- 대립적인 시어(기쁨 ↔ 슬픔, 추위·어둠·함박눈 ↔ 가마니 한 장·눈물·기다림)를 사용함.
- '-겠다'가 쓰인 말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적인 자세를 표현함.

03

㉮ 3번이 답인 이유

이 시의 화자인 '슬픔'은 '기쁨'이 사회적 약자의 고난과 시련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존재로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너와 함께 걷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기쁨'의 변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여긴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는 화자인 '나'가 '슬픔'으로, 청자이자 시적 대상인 '너'가 '기쁨'으로 의인화되어 있으며 '슬픔'인 '나'가 '기쁨'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체로 전개된다.
- ② 화자는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 무관심한 너'와 같이 '기쁨'이 보여 준 이기적인 행태를 나열하며 비판한다. 여기서 '기쁨'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겠다'에서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이 시에서 '슬픔'은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긍정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04

오답 피하기

추위, 어둠 (2음절)	고통스럽고 소외된 삶	눈물	타인에 대한 사랑, 연민, 배려
가마니 한 장	최소한의 관심, 인정	기다림	소외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모란이 피기까지는_ 김영랑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지 살펴보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화자의 소망(=봄, '보람')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음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 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적 상황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실움에 잠김 테요

모란이 떨어진 뒤 느끼는 화자의 정서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된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함.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피었을 때 느낀 화자의 정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일 년 간의 기다림과 보람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서러운 슬픔의 깊이를 강조하는 표현

▶ 3~10행: 모란이 지고 난 후의 슬픔과 상실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화자의 숙명적 기다림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11~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

• 시적 상황은? 봄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음.

• 어조는? 경어체, 섬세한 어조

• 정서나 태도는? 모란이 지고 난 뒤 깊은 서러움과 슬픔을 느끼나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고자 함.

• 주제는? 소망(=모란이 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
-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듬은 시어를 사용함.
- '찬란한 슬픔'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역설적 표현으로 정서를 드러냄.

05

㉠ ④번이 답인 이유

'어느 날'은 시적 대상인 '모란'이 '자취도 없어지'는 날이므로 화자가 시적 대상과 이별하는 시적 상황을 가리킨다.

오답 피하기

- ①, ④ 이 시에서 '모란'은 화자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이자 간절한

소망의 대상으로 화자에게 보람을 주는 존재이다.

- ②, ⑤ '설움'은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화자가 느낀 정서이므로 화자가 시적 대상과 이별한 후 느끼는 정서로 볼 수 있다. '삼백예순 날'은 화자가 거의 일 년 내내 서글퍼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06

화자가 봄을 기다리는 까닭은 모란이 피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란이 필 때에는 뻗쳐오르는 보람을 느끼지만 모란이 지고 나면 설움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화자에게 모란이 피는 봄의 어느 한때는 그토록 기다렸던 찬란한 순간이지만, 모란이 지고 난 후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하므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행은 그러한 슬픔을 겪게 될지라도 모란이 피었을 때의 보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03 시의 운율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32~33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반복 (2) 외형률, 내재율

2 (1) ㉠ (2) ㉡ (3) ㉢

3 (1) ㉠ (2) × (3) ㉠

01 ② 02 두 작품의 화자 모두 임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진달래꽃>의 화자는 희생적인 태도로 떠나는 임을 축복하며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다. 그런 반면 <보기>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원망하면서 잡고 싶어도 보낼 수밖에 없는 마음을 표현하며 임이 곧 돌아와 주기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03 ⑤ 04 ③ 05 ② 06 ④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진달래꽃_ 김소월

앞서 배운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나 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라.

7글자

5글자

운율 형성 요소 ①
- 7·5조의 음수를
- 3음보의 음보율

▶ 1연: 이별의 상황에 대한 체념(기)

영변에 약산

2음보

진달래꽃

1음보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라.

3음보

운율 형성 요소 ②: 음보의 규칙적 배열
각 연의 첫 번째 행은 2음보, 두 번째 행은 1음보, 마지막 행은 3음보
→ 행마다 호흡 속도를 달리해 리듬감을 형성함.

▶ 2연: 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승)

가시는 걸음걸음

7글자

놓인 그 꽃을

5글자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7글자

5글자

▶ 3연: 원망을 넘어서는 희생적 사랑(진)

나 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라.

7글자

5글자

운율 형성 요소 ③:
수미상관 → 운율 형성, 구조적
안정감 획득, 주제 강조

▶ 4연: 인고의 의지로 이별의 정한 극복(결)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임을 기다리는 여인)
- 시적 상황은? 임이 떠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음.
- 어조는? 애상적, 섬세한 어조
- 정서나 태도는? 슬프지만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않음, 임이 원한다면 보내 주겠다며 입을 배려하고 있음.
- 주제는? 승화된 이별의 정(情)과 한(恨)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사상을 전개함.
- 3음보의 민요조 율격과 '우리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간절하고 섬세한 어조로 이별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드러냄.

01

㉠ 2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는 시어가 '반복-반복-변화-반복'하는 형태로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이 시의 1, 3, 4연은 비슷한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다.
- 각 연의 마지막 행은 두 번의 호흡으로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3음보의 운율을 형성한다.
- 1, 3, 4연의 마지막 행을 '우리다'로 끝맺음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 이 시의 1, 4연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우리다"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02

두 작품의 화자 모두 임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진달래꽃>의 화자는 희생적인 태도로 떠나는 임을 축복하며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애둘러 표현하고 있다. 그런 반면 <보기>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원망하면서 잡고 싶어도 보낼 수밖에 없는 마음을 표현하며 임이 곧 돌아와 주기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고향_ 정지용

앞서 배운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고향에 V 고향에 V 돌아와도)

반복 → 비애감 강조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고향의 모습

운율 형성 요소 ①
시어, 시행의 반복
음보의 반복

산꿩이 알을 품고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상
빼꾸기 제 철에 올건만,

운율 형성 요소 ②
○: 길거나 비슷한 소리를 행의 끝에 배치함

▶ 2연: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화자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고향'이라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음.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방황하는 화자의 마음(은유법)

▶ 3연: 안식처를 상실한 화자

오늘도 뉘 끝에 홀로 오르니

화자를 반겨 주는 곳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 4연: 화자를 반겨 주는 고향의 자연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변해 버린 화자의 모습을 청각적 상상(‘풀피리 소리’)으로 나타냄.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 상실에 대한 씁쓸함을 미각적 상상(‘쓰디쓰다’)으로 나타냄.

▶ 5연: 변해 버린 화자의 모습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반복 → 비애감 강조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하늘과의 거리감 → 상실감 강조

운율 형성 요소 ③

(): 수미상관

▶ 6연: 돌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허망함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로, 고향에 돌아옴.
- 시적 상황은? 고향에 돌아와 고향을 바라보며,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 위안과 안정을 주지 못하는 고향에게서 느끼는 정서를 노래함.
- 어조는? 회고적, 애상적
- 정서나 태도는? 실망감, 상실감
- 주제는? 돌아온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감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수미상관의 구조로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조적으로 나타냄.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함.

03

㉠ 5번이 답인 이유

이 시는 1연과 6연을 수미상관 구조로 반복하되 그 내용에는 변화를 주었다. 1연에서는 고향에서 실망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6연에서는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을 제시함으로써 둘의 대비를 선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로써 화자의 상실감이 부각된다.

오답 피하기

- 1연과 6연에서 '고향에'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 5연의 1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3음보로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 2행으로 배치된 각 연은 운율을 형성하고 형식적 안정감을 준다.
- 5연의 1행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에서 3음보의 운율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화자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강조하였다.

04

㉠ 3번이 답인 이유

고향에 돌아온 화자는 고향의 자연은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대하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구름'은 이러한 화자의 방황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에서 초탈하고 달관한 삶을 살려는 화자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 <보기>에서 화자가 ㉠에서 정신적인 안식을 얻기를 기대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제철에 우는 ㉠은 변함없는 고향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 ㉠은 기대하고 있던 정신적인 안식을 고향에서 얻지 못한 화자의 씁쓸함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 ㉠에서 화자는 '높푸르구나'라는 구절로 하늘과의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리감을 통해 화자가 고향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산 너머 남촌에는_김동환

앞서 배운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1〉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운율 형성 요소 ①
~ 7·5조의 음수율
~ 3음보의 음보율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운율 형성 요소 ②
- 문장 구조의 반복
(~는 ~월이면 ~)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 1수: 봄바람이 실어 오는 아름다운 향기

〈2〉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운율 형성 요소 ③
: 시행의 반복

운율 형성 요소 ④
- (‘저’가 각 음보의 첫 부분에서 반복됨.)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운율 형성 요소 ⑤
문장 구조의 반복
(~엔 ~)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운율 형성 요소 ⑥
: 시행의 반복
(후렴구 역할을 함)

▶ 2수: 고운 봄 하늘과 바람이 실어오는 아름다운 봄 풍경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
- 시적 상황은? 남촌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느끼며 좋아하고 있음.
- 어조는? 부드러운 어조(‘누가 살길래’, ‘남으로 오네’, ‘나는 좋데나’와 같은 구어적 표현 사용)
- 정서나 태도는? 긍정적(‘나는 좋데나’)
- 주제는? 남촌(이상향, 이상 세계)에 대한 그리움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동일한 시행을 후렴구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7·5조’와 ‘3음보’로 이루어져 민요풍의 느낌을 줌.
- 다양한 이미지(진달래 향기, 보리 내음새[후각]/저 빛깔, 호랑나비 떼[시각]/종달새 노래[청각])를 사용해 남촌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드러냄.

05

㉮ 2번이 답인 이유

이 시는 ‘산 너머 / 남촌에는 / 누가 살길래’처럼 각 행을 3음보씩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에서는 일곱 글자와 다섯 글자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7·5조’의 음수율이 드러난다.
- ③ 이 시에서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가 쓰이고 있지 않다.
- ④ 이 시는 행과 연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으므로 산문적 진술이라 볼 수 없다.
- ⑤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 풍경에 대한 만족감을 일관된 어조로 드러낸다.

06

㉮ 4번이 답인 이유

〈1〉과 〈2〉의 두 번째 연은 모두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을 짝 짓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1〉의 두 번째 연에서는 ‘내음새’라는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지만 〈2〉의 두 번째 연에서는 시적 허용이 사용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 ② 〈1〉과 〈2〉의 마지막 연의 마지막 행은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가 반복되어 일종의 후렴구 역할을 한다.

04 시의 이미지(심상)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38~39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이미지 (2) 형상화 (3) 구체적, 환기, 함축성
2 (1) ○ (2) ○ (3) ×
3 ㉮ 시각적 ㉮ 미각적 ㉮ 촉각적 ㉮ 하강 ㉮ 정적 ㉮ 긍정적

01 ㉮ 02 ㉮ 03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공감각적 이미지(심상) 또는 감각의 전이 04 ㉮ 05 ㉮ 전이 ㉮ 청각적 ㉮ 촉각적 06 ㉮ 07 ㉮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아침 이미지 1_박남수

시에서 이미지(심상)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생명을 낳는 존재, 긍정적 이미지
낳고, 꽃을 낳는다.

명암 대비
(시각적 이미지)

▶ 1~2행: 온갖 물상을 낳는 어둠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 3~5행: 어둠이 소멸하고 아침을 맞이함.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며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어둠이 견하는 모습을
동적 이미지를 활용해
감각적으로 드러냄.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아침의 활기차고 밝은 이미지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공감각적 이미지(시각의 청각화)

▶ 6~10행: 아침의 활기찬 풍경

아침이면,

새벽은 개벽을 한다.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를 ‘개벽’이라는 시어에 집약함.

▶ 11~12행: 새롭게 태어나는 세상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로 아침의 풍경을 관찰하고 있음.
- 시적 상황은? 어둠이 견하며 아침이 다가와 온갖 사물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함.
- 어조는? 관조적(대상을 관찰하며 감정을 절제함)
- 정서나 태도는? 주지적(어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아침에 대한) 경이로움.
- 주제는?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의 이미지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어둠'이라는 시어에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를 부여함.
- 감각적인 이미지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아침'의 상황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함.

01

㉮ 4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 '어둠'은 아침이 오면 '물상을 돌려주'고,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오답 피하기

- ① 어두운 이미지인 '어둠'과 밝은 이미지를 지닌 '아침'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 ② 밝기의 대비, '금으로 타는' 등의 표현을 통해 아침 풍경을 시각적으로 그려 내었다.
- ③ '굴복한다', '어깨를 털고', '몸을 움직이여',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등의 동적 이미지를 통해 아침의 활기참을 강조한다.
- ⑤ 이 시의 화자는 생동감 넘치는 아침의 모습을 관찰한 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02

㉮ 4번이 답인 이유

'태양'은 활기찬 아침이 밝아 오를 알리는 대상이기는 하나, 절대적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피하기

- ① '새', '둘', '꽃'은 자연계의 사물이므로 적절하다.
- ②, ③ 생기롭고 활기찬 아침의 이미지가 동적인 이미지로 환기된다.
- ⑤ 아침의 이미지가 '개벽'이라는 시어에 집약된다.

03

시각적으로 감지되는 '태양'의 빛나는 모습을 '울림'이라는 청각적 표현으로 전이한 시구는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다. 이렇듯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것을 '공감각적 이미지(심상)' 또는 '감각의 전이'라고 한다.

04~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여승_백석

시에서 이미지(심상)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청각적 이미지 → 여승이 속세와 단절된 상태를 환기함.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비유를 통한 구체적 형상화

▶ 1연: '나'와 여승의 재회(현재)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땀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시각적 이미지 → 여인의 수척한 모습을 환기함.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올었다

공감각적 이미지(청각의 촉각화) → 여인의 한·힘겹고 고달픈 삶의 형상화

▶ 2연: 여인과의 첫 만남(과거)

섣달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를 '섣달'에 비유해 일 하러 떠난 시간 대상의 모습을 환기함.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보라색 → 죽음을 환기하는 이미지

▶ 3연: 여인의 비극적인 삶(과거)

산 뺨도 쉽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청각적 이미지, 여인의 한을 형상화

산 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

시각적 이미지, 여인이 승려가 되어 머리를 잘랐음을 알 수 있음.

진 날이 있었다

▶ 4연: 여인이 출가하던 날의 모습(과거)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
- 시적 상황은? 여승이 된 여인과 대면하여 그녀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
- 어조는? 회상적, 회고적, 감각적
- 정서나 태도는? 애상적(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쉽게 올은 슬픈 날, 눈물방울)
- 주제는? 일제 강점기 가족 공동체의 붕괴에서 비롯된 한 여인의 비극적 삶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역순행적 구성(현재 → 과거 ① → 과거 ② → 과거 ③)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토속적 소재(가지취, 섣달 등)를 사용하고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
- 일제 강점기 한 가족, 나아가 우리 민족이 겪어 온 삶의 서사가 압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시의 성격을 지님.

04

㉮ 3번이 답인 이유

㉮의 '도라지꽃'과 '돌무덤'이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하지만, 복합적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가지취(취나물의 일종)의 내음새'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여승이 있는 '산 절'의 모습을 환기한다.
- ② ㉮에서 여인의 파리한(마르고 핏기가 없는) 모습은 여인의 고달픈 삶을 나타낸다.
- ④ ㉮은 산 뺨의 울음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여인의 슬픔과 서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 ⑤ ㉮은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처럼, 또는 눈물과 같이 떨어진다 는 하강 이미지를 통해 여인의 슬픔을 강조한다.

05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차다'라는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이동)시킨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06~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마음의 고향 6 - 초설_이시영

시에서 이미지(심상)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떼 왁자히 내려앉은 대숲 마을의

노오란 청각적 이미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1~3행: 초가을의 고향 풍경을 떠올림.

토란 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의성어 → 청각적 이미지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 4~6행: 여름날의 고향 풍경을 떠올림.

색채 대비 (초록색 ↔ 노란색)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 7~9행: 고향을 지나던 기적 소리를 떠올림.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후략) ▶ 10~12행: 서울로 가던 순이 누나를 떠올림.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
- 시적 상황은? '나'가 마음속으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음.
- 어조는? 차분한 그리움의 어조
- 정서나 태도는? 상실감(고향이 있지 않다고 토로함)
- 주제는? 고향 상실의 아픔과 그리움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문장 구조의 반복(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에 있지 아니하고)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병렬적으로 나열된 소재를 연결함.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함.
- 반어적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함(마음속에 고향이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화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음).

06

㉮ ②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는 미각적 이미지가 쓰이지 않았고, 청각적·시각적·촉각적·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에는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이 시는 '아니하고'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이 시는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공감각적 심상과 같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 낸다.
- ⑤ 이 시에서는 '초록색' 대술과 '노란색' 초가지붕이, 순이 누나의 '흰' 옷자락과 '파르라한' 웃고름이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

07

㉮ ④번이 답인 이유

[C]의 '흰 옷자락'과 '파르라한 웃고름'의 색채 대비는 '순이 누나'가 서울로 떠나는 시적 상황을 선명히 드러내고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오답 피하기

- ① 의성어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표현은 [B]의 '후두둑'과 '쿵쿵'이다.
- ② 시적 허용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현은 [A]의 '노오란'이다.
- ③ [B]의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는 촉각의 청각화가 아니라 청각의 촉각화이다
- ⑤ [C]에서 색채어가 쓰이고 있지만, 화자는 순이 누나를 비롯한 고향의 풍경을 그리워할 뿐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05 시어의 함축성과 비유, 상징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44~45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함축성 (2) 원관념, 보조 관념, 유사성 (3) 상징 2 (1) ○ (2) × (3) × (4) ○ 3 (1) ㉠ (2) ㉡ (3) ㉢ ㉣

01 ⑤ 02 ② 03 ④ 04 ㉠ 꺾데기(쇠불이) ㉢ 알맹이(아우성, 흙 가슴)

05 ② 06 ③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첫사랑_ 고재중

시에서 비유와 상징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눈을 사람에 빗댄 표현(의인법)

▶ 1연: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눈꽃을 피우기 위해 눈이 겪는 시련의 과정

▶ 2연: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시련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살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원관념: 마음(직유법)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원관념: 눈꽃(은유법)

▶ 3연: 마침내 피워 낸 눈꽃에 대한 예찬

이별의 시간(눈꽃이 사라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댄 자리에

① '눈꽃이 피었던 자리'를 빗댄 표현(은유법) ② 첫사랑의 아픈 경험(상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① '불꽃'을 '상처'에 빗댄 표현(은유법) ② 첫사랑의 아픔 뒤 얻게 된 성숙한 사랑(상징)

▶ 4연: 눈 녹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로 눈이 내리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음.
- 시적 상황은? 한겨울에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는 풍경을 보고 있음.
- 어조는? 예찬적('저 황홀 보아라')
- 정서나 태도는? 영탄적, 예찬적
- 주제는?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사랑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자연물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함.
-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함.
- 시어의 반복('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 역설적 표현('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을 통해 주제를 부각함.

01

㉮ ⑤번이 답인 이유

봄이 오면 눈꽃은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지만, 나뭇가지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눈꽃을 맺었던 '댄 자리'에 '꽃'을 피워 낸다. 이는 눈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나뭇가지가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사랑의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한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눈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존재처럼 의인화한 표현이 나타난다.
- ② 사랑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황홀을 피워 내는 눈의 자세



정답과 해설

를 ‘햇숨 같은 마음’이란 직유법으로 드러내었다.

- ③ ‘황홀 보아라’라는 시구에서 ‘눈꽃’에 대한 예찬이 드러난다.
④ ‘봄’은 겨울이 끝이 났음을 의미하므로 ‘가지’와 ‘눈’이 이별하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다.

02

㉠ ②번이 답인 이유

㉠은 눈과 나뭇가지의 첫사랑이 만들어낸 결실, 즉 ‘눈꽃’이 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은 눈꽃이 진 후, 봄이 되어 그 자리에 핀 꽃을 표현한 것으로,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에 이룬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역설적으로 나타낸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껍데기는 가라_ 신동엽

시에서 비유와 상징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자.

허위, 가식, 외세를 상징함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4·19 혁명 진실, 순수, 민족정신을 상징함.
껍데기는 가라.

▶ 1연: 4·19 혁명의 순수한 정신 강조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해(1894년) 순수한 정신을 상징
껍데기는 가라.

▶ 2연: 동학 농민 운동의 순수한 정신 강조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한반도 허위와 가식이 없는 인간 본연의 순수한 모습
아사달 아사녀가
석가탄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설화 속 인물로, 순수한 우리 민족을 상징함.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이념을 초월한 민족 화해의 정소를 상징함.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통일, 화합을 상징함.

▶ 3연: 우리 민족의 순수한 강조와 통일에 대한 소망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으든 쇠붙이는 가라.

부정한 세력, 무력, 외세를 상징함. →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임.

▶ 4연: 순수의 옹호와 부정한 세력의 거부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로 민족의 통일을 소망하고 있음.
- 시적 상황은?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게 함으로써, 순수한 정신으로 부정한 사회 현실을 극복하고자 함.
- 어조는? 의지적(명령형 종결 어미 ‘-라’의 반복)
- 정서나 태도는? 의지적, 저항적
- 주제는? 부정적 세력에 대한 저항,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대한 소망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직설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냄.
- 명령형 종결 어미(‘-라’)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함.
- 동일한 시구(‘껍데기는 가라.’)를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함.
- 상징적이고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조성함.

03

㉠ ④번이 답인 이유

‘한라에서 백두까지’에서 대유법이 쓰이고 있으나 그 외의 비유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는 명령형 어미 ‘-라’를 반복하여 허위, 가식, 외세를 거부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②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③ 부정적 이미지인 ‘껍데기, 쇠붙이’와 긍정적 이미지인 ‘알맹이, 아우성, 흙 가슴’의 대립이 나타난다.
⑤ ‘껍데기’가 ‘허위, 가식, 외세’를 상징하고 ‘알맹이’가 ‘진실, 순수, 민족정신’을 상징하여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한라’와 ‘백두’는 각각 남한과 북한의 끝자락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명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땅으로부터 ‘껍데기’, ‘쇠붙이’는 ‘가라’는 표현을 통해 ‘껍데기’와 ‘쇠붙이’가 화자가 거부하는 ㉠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4월도 알맹이만 남고”라는 시구와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라는 시구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라는 시구를 통해 ‘알맹이’와 ‘아우성’과 ‘흙 가슴’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폭포_ 김수영

시에서 비유와 상징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자.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비판 정신을 상징함. 폭포를 사람에 빗댄(의인법)
▶ 1연: 두려움 없이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현실적 효용, 세속적 욕망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빗댄 표현 → 타협하지 않는 양심의 자세(직유법)
▶ 2연: 고매한 정신을 지닌 폭포

사람끼리의 유대, 평화로운 삶을 상징함.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소박한 아름다움, 희망을 상징 부정적인 사회 현실 상징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폭포를 의인화함. →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지, 정의와 양심의 소리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 3~4연: 곧은 소리를 내며 선구자적 행동을 보여 주는 폭포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매우 빠르게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게으름과 안정감 → 부정적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소시민적 태도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고매한 정신, 곧은 소리를 추구하는 폭포의 모습(직유법)

높이도 폭도 없이 / 떨어진다

▶ 5연: 게으름과 안정을 거부하는 폭포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로 폭포를 바라보고 있음.
- 시적 상황은? 폭포가 어둠 속에서도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음.
- 어조는? 단호하고 단정적인 어조(‘-나다’의 반복)
- 정서나 태도는? 저항적
- 주제는? 부조리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인 삶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시인의 현실 인식과 내면세계를 자연물인 ‘폭포’에 효과적으로 투영함.
- 동일한 시어(‘떨어진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 감각적인 비유(‘고매한 정신처럼’, ‘번개와 같이’)를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함.

05

㉔ ②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는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곧은 소리가 곧은 소리를 부를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힘다.
- ③ ‘떨어진다’라는 시어가 1, 2, 3, 5연의 끝부분에서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한다.
- ④ ‘떨어진다’라는 하강적 이미지를 ‘곧은 소리’로 연결 지어 긍정적으로 그려 낸다.
- ⑤ 이 시에서 폭포는 ‘무서운 기색도 없’고 ‘곧은 소리를 내’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는 등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의인화된다.

06

㉔ ④번이 답인 이유

㉔은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소리로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지를 상징한다.

오답 피하기

- ① ㉔은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을 빗댄 보조 관념이다.
- ② ㉔은 ‘어둠’이라는 속성 때문에 다양한 작품에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므로 관습적 상징에 해당한다.
- ④ ㉔은 물방울의 빠른 움직임을 빗댄 보조 관념이다.
- ⑤ ㉔은 ‘폭포’가 부정하는 속성에 해당한다.

06 다양한 표현 기법 ① - 강조하기와 변화 주기

사뭇히 흐려잡는 확인 문제

p.51~52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열거법 (2) 영탄법 (3) 설의법

2 (1) ○ (2) × (3) ○ 3 (1) ㉔ (2) ㉔ (3) ㉔

01 ① 02 ③ 03 ⑤ 04 화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5 ④ 06 ③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가난한 사람 노래 -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_ 신경림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설의적 표현 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설의적 표현 ②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유충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설의적 표현 ③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설의적 표현 ④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설의적 표현 ⑤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

▶ 16~18행: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아픔

[]의 반복 (가난하다고 해서 ~을 모르겠는가)

-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화자가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버려야 하는 현실을 알고 있음을 강조함.

도치법
- 정상적인 배열(2→3→1행 순)에 변화를 주어 의미를 강조함.

의 열거
- 청각적 심상으로 현실의 고달픔을 강조함.

▶ 4~7행: 현실 생활의 두려움

의 열거
-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

▶ 12~15행: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

도치법
- 정상적인 배열(17→18→16행)에 변화를 주어 의미를 강조함.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임.(‘어머님 보고 싶소’,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 시적 상황은? 가난한 현실 때문에 여러 인간적인 감정들을 포기해야 함.
- 어조는? 차분한 어조
- 정서나 태도는? 안타까움, 슬픔
- 주제는?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한 젊은이의 삶의 애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애를 간직하려는 마음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고 변주함으로써 의미를 구체화하고 주제를 강조함.
- 영탄이 섞인 설의적 표현을 사용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새빨간 감(시각적) 바람 소리(청각적)’ - 복합 감각, ‘네 입술의 뜨거움’ - 촉각적]



01

㉮ ①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는 앞 구절의 말을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서 다시 반복하는 연쇄법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②, ⑤ ‘가난하다고 해서 ~을 모르겠는가’라는 문장 구조 및 이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가 포기해야 하는 감정인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을 열거하고 있다.
- ③ 1~3행과 16~18행(마지막 3행)에서는 도치법이 쓰였다. 처음 3행을 정상적인 배열로 쓴다면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3행도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문장 성분을 도치하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정서를 환기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 ④ 5~7행에서는 다양한 소리를 열거하여 도시의 밤 풍경과 노동자의 삶을 연상시켜 화자의 두려움을 환기하고, 11행에서는 ‘바람 소리’를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02

㉮ ③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움과 사랑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 가난이라는 외적 조건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조차 누릴 수 없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난해도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난’이라는 시어가 반복되고 있으며, 화자인 ‘나’가 ‘가난’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포기해야만 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임을 알 수 있다.
- ② 9~11행에서 ‘어머님 보고 싶소’라고 수없이 뇌어 보고 집 뒤 감나무의 모습을 그려 보는 것에서 화자가 고향을 떠나와 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와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를 나열하여 도시의 풍경과 노동자의 삶을 드러내었다.
- ⑤ 이 시에서는 가난한 화자가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언급할 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와 같이 설의법을 사용하여 그러한 감정을 모르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면 후일_김소월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가정법 면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미래의 시점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반어적 표현 - 잊지 못함. ▶ 1연: 면 훗날 임이 나를 찾을 때 하고 싶은 말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 2연: 임이 나무라면 하고 싶은 말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 3연: 임이 계속 나무라면 하고 싶은 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지금 임을 잊지 못하고 지내온 화자의 문신 면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 4연: 어제도 오늘도 임을 잊지 못함. 반어법 - 임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를 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함. 정중법 - ‘당신’을 잊을 수 없음을 점점 더 강하게 표현함. (잊었노라. →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 면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	--

- 화자는? ‘나’ (임을 그리워하는 이)
- 시적 상황은? 면 훗날, 떠난 임과 다시 만나는 상황을 가정함.
- 어조는? 애상적
- 정서나 태도는? 그리움
- 주제는? 떠난 임에 대한 강한 그리움

핵심 정리

- | 이 시의 특징 |
- 3음보의 민요적 율격(면 훗날/당신이/찾으시면)이 드러남.
 - 가정적 상황과 반어적 진술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주제를 강조함.
 - 반복과 변주의 기법으로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함.

03

㉮ ⑤번이 답인 이유

이 시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후에도 결코 임을 잊은 적이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잊었노라.”라고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어적인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는 각 연의 마지막 행을 ‘잊었노라’라는 시어로 종결하고 있는데, 이처럼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된다.
- ② ‘잊었노라’라는 화자의 감정이 연이 거듭될수록 심화되므로 점층법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을 점점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이 시에서는 ‘나무라면’이라는 시어와 ‘잊었노라’라는 시어가 반복되어 화자와 대상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 시의 화자는 ‘-면’이라는 표현을 통해 ‘당신’과 다시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며 ‘당신’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04

이 시의 화자는 임이 떠난 후에도 임을 잊지 못하고 언제나 그리워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잊었노라’라고 반어적으로 진술하였다.

〈보기〉의 화자 역시 ‘그대’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지만 이를 ‘사소한 일’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두 시는 모두 화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낙화_이형기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설의법, 영탄법 - 낙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 1연: 낙화의 아름다움

봄 한철

젊은 시절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

원관법=꽃(은유법)

분분한 낙화……

새로운 생명체가 되기 위한 소멸을 의미함.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역설법 - 이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성숙한 만남(=열매)을 위한 헤어짐.

지금의 가야 할 때,

생략법
- 말줄임표(……)로 여운을 형성함.

▶ 2~3연: 낙화의 아쉬움과 슬픔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 않아 열매 맺는

가을의 결실 내적 순간

가을을 향하여

내적 성숙의 시간

대조법
- 봄(젊은 시절) ↔ 가을(성숙한 시절)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별을 통해 내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것이므로

▶ 4~5연: 낙화의 의의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가볍게 날라리는 모양

도치법
- 정상적인 배열(3→2→1행)에
변화를 주어 의미를 강조함.

▶ 6연: 낙화의 아름다운 모습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조금씩, 끊임없이 라는 뜻(직유법)

내 영혼의 슬픈 눈.

▶ 7연: 낙화의 슬픔과 영혼의 성숙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로 이별을 맞이하고 있음.
- 시적 상황은?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며 이별의 상황을 떠올림.
- 어조는? 깨달음의 어조
- 정서나 태도는? 성찰적
- 주제는? 이별을 통한 영혼의 성숙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자연 현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함.
- 이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역설적으로 표현함.
-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 쓸쓸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05

㉮ 4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의 화자는 ‘아름다운가’와 같은 영탄적 어조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며, 대상에게 말을 건네지 않고 ‘나’의 상태와 상황을 독백적으로 서술하였다.
- ②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헤어짐을 겪으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 ③ 이 시는 낙화를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에 빗대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⑤ ‘분분한 낙화……’에서 생략법이 쓰였으며 말줄임표를 사용해 화자가 느끼는 감동과 여운을 표현하였다.

06

㉮ 3번이 답인 이유

4연의 ‘머지 않아 열매 맺는 / 가을을 향하여’라는 시구는 ‘낙화’로 표현되는 이별의 경험이 단순히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인 ‘열매’를 맺는 ‘가을’이라는 계절로 연결된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이때 가을에 맺히는 열매는 이별을 통한 정신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 ① 1연에서는 낙화의 아름다움을 통해 단정하고 깨끗한 이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낙화의 순간을 묘사하여 이별이라는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6연에서는 낙화의 순간을 의인화하여 이별을 담담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 ⑤ 7연에서는 이별을 통해 얻게 되는 영혼의 성숙을 표현하고 있다.

07 다양한 표현 기법 ② - 객관적 상관물, 변주, 행간 걸침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56~57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객관적 상관물 (2) 변주 (3) 행간 걸침, 긴장감 2 ㉠ 화자의 대리물 ㉡ 정서 자극물 ㉢ 감정 이입물 3 (1) × (2) × (3) ○

01 ㉠ 02 ㉠ 03 파초 04 ㉡ 05 ㉠ 06 ㉡

01~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별 헤는 밤_윤동주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쓸쓸함의 정서

▶ 1연: 계절적 배경 제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① 아름다운, 순수하고 이상 ② 화자의 매개체

▶ 2연: 별을 바라보는 화자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 3연: 별을 다 세지 못하는 이유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4연: 별을 보며 떠올리는 것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꽤,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 ① 4연에서 언급한 그리움의 대상들을 구체화함.

② 산문적 리듬과 빠른 호흡으로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킴.

▶ 5연: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

이내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떨 듯이

직유법
- 거리감 강조

▶ 6연: 너무나 멀리 있는 추억의 존재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 7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 → 자기 삶을 망상하는 행위(부끄러움)

만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망상

객관적 상관을
- 화자의 부끄러운 감정이
이입된 대상

▶ 8~9연: 부끄러운 삶에 대한 반성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부활과 재생의 이미지

▶ 10연: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

• 시적 상황은? 타지에서 가을밤의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성찰함.

• 어조는? 독백적, 고백적

• 정서나 태도는? 성찰적(부끄러움), 희망적, 의지적

• 주제는?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현재-과거-현재-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역순행적으로 시상을 전개함.
-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5연)을 삽입하여 운율에 변화를 줌.
- 상징적 시어와 감성 이입물('별레')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01

㉠ ①번이 답인 이유

이 시의 5연은 행을 구분하지 않고 산문처럼 서술한 연으로, 앞선 연들과 달리 독자에게 급박한 호흡을 조성하여 운율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오답 피하기

- ② 이 시는 '별 하나에 ~과'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시구를 사용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지만 행간 결침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시는 '무성할 게외다.'라는 단정적인 진술로 마무리되어 시적 여운을 준다.
- ④ 역동적 이미지의 시어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 ⑤ 화자가 시적 대상인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나 어머니가 대답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으므로 '화자와 시적 대상의 대화'가 삽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02

㉠ ①번이 답인 이유

조국의 광복을 상징하는 시어는 화자의 이름자가 묻힌 언덕 위에 풀이 돋아나는 계절인 '봄'이다.

오답 피하기

- ②, ④, ⑤ 화자는 '별'을 보며 '사랑', '동경', '시'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인 아름다운 이상, 순수한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3

이 시에서 '별레'는 화자의 부끄러운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보기>의 시에서 '파초'는 조국을 잃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자 의인화된 존재로, 이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04

㉠ ⑤번이 답인 이유

㉠에서 화자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이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은 뒤 미래의 상황이 희망적일 것이라고 확신적 어조로 말함으로써 조국 광복에 대한 기대와 확신,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기희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①의 '가을 속의 별'이라는 시구에서 가을밤이라는 시적 상황이

드러나며, ‘다 헤일 듯합니다’라는 시구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에서는 화자의 어린 시절 친구들과 화자가 그리워하는 동물들, 시인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으므로 4연에서 화자가 별을 보며 떠올리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가 구체화된 구절로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존재들이 별처럼 멀리 있다고 표현해 화자가 그리워하는 존재들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의 이름을 흙으로 덮는 행위는 자기를 성찰한 끝에 자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껴 나온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_ 이용악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 투영, 상황의 비극성 강조

▶ 1연: 타향에서 맞은 아버지의 임종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러시아의 영토 -> 유랑민으로서의 삶

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에게

키운

한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유언도 남기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아무를 만(灣)의 파선도

러시아의 지명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죽은 러시아의 도시

목침을 반듯이 벤 채)

(): 도치법
- 시적 긴장감 유발
- 아버지의 죽음을 강조

▶ 2연: 아버지의 임종 당시의 모습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아버지가 지냈던 꿈(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얼음장에 누운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잔영의 개관화

때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무명’의 방언

낮을 덮었다

▶ 3연: 아버지의 죽음 확인

우리는 머리맡에 엮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수미상관식 구성
- 1연의 4, 5행 반복
- 시적 여운 조성

▶ 4연: 아버지의 죽음과 가족의 슬픔

- 화자는? ‘우리’ 중 한 명인,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자식
- 시적 상황은? 먼 타국에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함.
- 어조는? 감정을 절제한 담담한 어조
- 정서나 태도는? 슬픔, 애통함
- 주제는? 아버지의 비참한 임종과 유랑민의 비애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생물체(풀벌레)에 화자의 내면 심리와 정서를 투영하여 표현함.
- 장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비극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수미상관식 구성 방식을 취함.

05

㉠ 1번이 답인 이유

우의적 기법은 인간의 삶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시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화자는 고향을 떠나 살다가 그곳에서 맞은 아버지의 죽음을 감정을 절제하여 담담하게 형상화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이 시에서 화자는 타지에서 겪게 된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특히 3연은 감정을 절제하며 임종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우리 집도 아니고 / 일가 집도 아닌 집 / 고향은 더욱 아닌 곳’이라는 표현으로 아버지가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비극성을 강조하였다.
- ④ ‘아무를 만(灣)의 파선도 /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 목침을 반듯이 벤 채’에서 도치법이 쓰여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였다.
- ⑤ 1연의 4, 5행과 4연의 3, 4행이 동일하게 반복됨으로써 수미상관식 구성을 이루며 시상을 집약하고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06

㉡ 5번이 답인 이유

㉠의 ‘풀벌레 소리’는 아버지의 삶과는 관련이 없으며, 머나먼 타지에서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빈궁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모습이 제시되는 장면에서 가족들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대신 전달함으로써 장면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④ ‘풀벌레 소리’는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을 대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때 ‘풀벌레’는 화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슬픈 정서가 투영된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08 시상 전개 방식 ① _ 시·공간 관련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61~63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시상 전개 방식 (2) 순행적, 역순행적 (3) 공간, 시선 2 (1) ○ (2) ○ 3 ㉠ 공간의 이동 ㉡ 시선의 이동

01 ④ 02 ② 03 ⑤ 04 ㉠ 원통함 ㉡ 장거리 ㉢ 신명이 남. ㉣ 농무 05 ③ 06 ④ 07 ① 08 ③ 09 깃털 색깔이 달라도 함께 어울려 물결을 타는 새들의 모습이, 다른 대상에게 차별적 시선을 보내던 화자 자신과 대조되었기 때문이다.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서시_ 윤동주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 시인의 흐름을 드러내는 말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
순수한 삶에 대한 강한 의지
화자의 심리적 동요, 갈등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고난
희망, 이상, 순수한 소망과 양심
유한한 존재
소명 의식 - 사랑의 실천, 부끄러움이 없는 삶
결의와 다짐, 의지적 태도

- 과거의 모습
▶ 1~4행: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

- 미래의 삶 다짐
▶ 5~8행: 미래의 삶에 대한 다짐

- 현재의 모습
▶ 9행: 어두운 현실에 대한 자각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로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 시적 상황은? 부정적인 현실(일제 강점기) 속에서 이상과 양심을 노래하며 다짐함.
- 어조는? 고백적, 성찰적
- 정서나 태도는? 의지적('겠다'), 소망적
- 주제는? 순수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

핵심 정리

- | 이 시의 특징 |
- '과거의 모습 - 미래의 삶 다짐 - 현재의 모습'의 순서로 시상을 전개함.
-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시적 상황과 주제 의식을 제시함.

01

㉠ 4번이 답인 이유

이 시는 '과거의 모습(1연 1~4행) → 미래의 삶 다짐(1연 5~8행) → 현재의 모습(마지막 행)'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에는 계절적인 배경이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이 시에서 과거에 화자는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으며, 현재인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하는 것을 보아 괴로운 상황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대조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시간은 '과거→현재→미래'로 흘러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시의 장면은 이러한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
- ⑤ 이 시에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을 뿐, '저녁-밤-새벽'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 2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 '바람'은 화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시적 대상으로 화자의 내면적 갈등과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에서 '하늘'은 윤리적 삶의 기준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윤리적 잣대가 된다.
- ③ '사랑'은 '모든 죽어 가는 것'을 향한 것으로, 고통을 겪는 존재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보여 주는 시어이다.
- ④ 이 시의 화자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별'은 밤에 더욱 빛나는 존재이다. 화자가 그러한 '별'을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상적 삶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때의 '별'은 화자의 지향 세계, 즉 이상적 삶을 상징한다.

03~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농무_ 신경림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조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담담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쫓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루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진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길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하강의 이미지 → 쓸쓸한 분위기 조성
소외당하는 농촌의 현실을 상징함.
윤부와 고달픔을 일으키는 행위
농민들의 울분을 역설적으로 표현함.
'대필소'의 축적
농무 통해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한을 표함.

□ 화자 일행의 이동에 따른 공간의 변화

▶ 1~6행: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심.

▶ 7~10행: 장거리에서의 농악과 서글픔

(-) 인용법, 직유법, 대유법
→ 피해해진 농촌의 모습, 농민의 울분을 표현함.

■ 직설적 표현
① 농촌의 현실과 구조적 모순을 사실적으로 드러냄.
② 강한 비판의 의도를 전달함.

▶ 11~16행: 피해한 농촌 현실에 대한 울분

▶ 17~20행: 신명이 나 농무를 춤.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우리'로, 농무를 추는 농민.
- 시적 상황은? 농무를 추며 농촌의 부정적 현실에 대해 울분을 드러냄.
- 어조는? 비판적
- 정서나 태도는? 원통함, 서글픔, 울분, 분노 등
- 주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 역설적인 상황 설정으로 화자의 정서와 주제를 강조함.

03

㉮ 5번이 답인 이유

이 시는 농무 공연이 끝난 뒤의 시점부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첫 행의 “막이 내렸다”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이후 농민들의 원통하고 자조적인 정서가 중심을 이루는데, 마지막에서 다시 농무를 신명나게 추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마지막 부분의 ‘농무’는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감을 쏟아내는 행위이자 자신들도 어찌지를 못하는 울분과 서글픔을 자연스럽게 풀어내어 심정적으로 위로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이 시는 막이 내린 시점에서 시작하여 신명난 농무로 끝을 맺는다는 점에서 하강 이미지에서 상승 이미지로 시상의 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강-상승-하강의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드러내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또한 울분과 자조, 서글픔 등의 정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농민들의 기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는 ‘술을 마신다’, ‘신명이 난다’처럼 현재형 진술을 사용해 농민들의 울분과 한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 ②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라는 대목은 ‘발버둥 친들 소용없다’라는 의미를 의문형으로 드러낸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 ③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에서 직설적 표현이 나타난다. 화자는 이러한 직설적 표현을 통해 농촌의 암담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강한 비판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 ④ ‘격정’은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의 등장인물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빈민에게 나누어 주었던 의적이다. 화자는 ‘녀석’의 울분을 ‘임꺽정’의 울부짖음으로 표현하여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드러내었다.

04

이 시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화자 일행은 구경꾼이 모두 돌아간 ‘텅 빈 운동장’에서 공연을 마친 후 허탈하고 허무한 심정을 안고 ‘소줏집’으로 이동한다. ‘소줏집’은 화자 일행이 “사는 것이 원통하다(㉠)”며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공간이다. ‘장거리(㉡)’로 나선 화자 일

행은 “격정처럼 울부짖”으며 울분과 분노를 느끼지만 그러한 정서는 ‘쇠전’을 거치며 체념으로 바뀌고, 도수장에서는 “신명이 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농민들의 분노와 한을 신명나는 농무(㉣) 동작으로 표출하는 역설적 상황이 드러난다.

05

㉮ 3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 농무는 소외된 농촌의 농민들이 분노와 울분을 표출하는 행위로 제시되어 있다. 즉 쟁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는 것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행위이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농촌의 풍속을 되살리려는 행위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텅 빈 운동장’은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무너져 버린 농촌 현실과 그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느꼈을 허탈감, 허무함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② ‘술을 마신다’는 행위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농촌 사회의 구조적 모순 앞에서 농민들이 현실적 고뇌와 분노를 해소하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성공적인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해 정부가 쌀값을 의도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비룻값도 안 나오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 ⑤ 농민들의 분노와 한이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농무’라는 신명 나는 춤을 통해 표출됨으로써, 분노와 한이 역설적으로 분출된다고 볼 수 있다.

06~09 개념으로 작품 읽기

동승_하종오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외국에 동침감이 느껴지지 않음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였다
1~5행: '나'와 국철에 동승한 아시안 남녀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동침감이 느껴지지 않는 대상에게 호기심을 느낌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껄스름할 뿐
'아시안 젊은 남녀'는 '나'와 달리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있음.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 화자의 시선 이동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 - 화자가 동침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6~13행: 아시안 젊은 남녀의 모습과 이에 대한 화자의 호기심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별의 시선, 편견의 시선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다양한 인종을 상징함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 깃털 색깔이 달라도 함께 물결을 타고 있음.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낮췄 부끄러웠다
 자신의 태도에 대한 반성 부끄러움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
 보조사: 또한, 역시 는 나처럼, 저이들도 그리
 하리라는 동질감을 느낌

▶ 14~21행: 아시안 젊은 남녀를 차별적 시각으로 본 것에 대한 반성, 부끄러움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
- 시적 상황은? 국철에 동승한 아시안 젊은 남녀를 관찰함.
- 어조는? 담담한 어조
- 정서나 태도는? 편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았던 자신을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느낌.
- 주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냈던 차별적 시각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시선의 이동에 따라 사상을 전개함.
- 상징적 소재로 주제를 형상화함.
- 보조사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심리적 변화를 제시함.

06

정답 4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 화자의 시선은 '아시안 젊은 남녀'에서 '차창 밖'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에 시간의 흐름을 뒤바꾸어 표현하는 역순행적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봄날'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지만 계절의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화자는 시적 대상인 '아시안 젊은 남녀'나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 ⑤ '강가'를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인 '국철'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시에서는 화자의 시선만 이동할 뿐 화자가 직접 공간을 이동하고 있지는 않다.

07

정답 1번이 답인 이유

이 시의 화자는 성찰적 어조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이 시에서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설의법이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③ 이 시에서 감정 이입은 드러나지 않는다.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는 화자에게 부끄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 자극물이다.
- ④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을 뿐,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 ⑤ 이 시에서는 특정한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 시어에 변화를 준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비판 의식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08

화자는 ㉔에서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가치 평가적 시선을 보내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화자가 타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국철은 '내가 아시안 젊은 남녀를 바라보는 시선(가치 평가적 시선)'과 '아시안 젊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관심의 시선)'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② <보기>에서 가치를 평가하려는 의도를 담은 시선은 타인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동승'은 '차, 배, 비행기 따위를 같이 탑.'이라는 뜻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와 의미가 연결된다.
- ⑤ 화자는 '또한, 역시'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 '도'를 사용해 아시안 젊은 남녀에 대한 동질감을 드러내고 있다.

09

아시안 젊은 남녀를 바라보던 화자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새들이 함께 물결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여러 인종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자신과 대조되는 모습을 본 화자는 편견과 호기심에 차서 아시안 젊은 남녀를 바라본 것을 반성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이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된다.

09 시상 전개 방식 ② - 그 밖의 시상 전개 방식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69~71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수미상관 (2) 선경후정 (3) 점층적
 2 ㄱ-ㄷ-ㄹ-ㄴ 3 (1) ○ (2) ○ (3) ×

01 ② 02 ① 눈 ㉔ 가래 ㉔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더럽고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어 자기를 정화하기)', 또는 '억압과 불의의 현실에 맞서는 자유로운 삶' 03 ③ 04 ④ 05 ④ 06 ② 07 ② 08 ④ 09 ⑤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눈_ 김수영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눈은 살아 있다

순수한 것(진정한 가치) → 정의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점층적 시상 전개
 '눈은 살아 있다'의 변주와 반복 → 확장
 '기침을 하자'의 변주와 반복 → 확장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1연: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눈

기침을 하자

자기 정화의 행위(내면의 불순한 것을 거부, 제거)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순수와 정의를 추구하는 존재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 2연: 순수한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의지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젊은 시인 (용기 있는 자시인)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강인한 생명력

▶ 3연: 눈의 강인한 생명력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불순한 것(소시민성, 속물 근성)

마음껏 뱉자

대비에 따른 시상 전개
 눈(순수함) → 가래(불순함)

▶ 4연: 자기 정화를 통한 순수한 삶 소망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 시적 상황은? 눈을 바라보며 순수한 삶을 소망하고, 기침을 하는 행동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함.
- 어조는? 의지적, 청유적(“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 정서나 태도는? 비판적, 의지적
- 주제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대립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각함.
-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변형을 통한 점층적 시상 전개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 청유형 어미(-자)를 반복하여 함께 불의에 저항할 것을 권유함.

01

㉠ 2번이 답인 이유

이 시는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라는 문장을 반복하고 변형하여 확장하면서 시상을 점층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에서는 ‘-자’라는 청유형 어미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어 화자의 어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시의 처음과 끝에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열하는 전개 방식은 수미상관으로, 이러한 전개 방식을 사용하면 시에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그러한 구성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이 시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특정 시어의 이미지를 다른 관념으로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앞부분에서는 배경과 같은 풍경을 제시하고 뒷부분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 시상 전개 방식을 선경후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에는 그러한 구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02

이 시는 ‘깨끗함, 순수함, 살아 있음’을 상징하는 ‘눈’과 비겁한 소시민적 속물성과 같이 불순한 것을 상징하는 ‘가래’를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는 가래를 뱉는 행위, 즉 기침을 하자고 함으로써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03~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_백석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는지 살펴보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현실의 고난과 고독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타지에서의 방랑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출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달옹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짚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 : 무능하고 낙담한 모습, 무료, 지루함.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앵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칼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짚김질 하는 것이었다.

회한의 정서

지난 삶에 대한 반추, 반성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시상의 전환

부정적 정서 → 긍정적 정서

▶ 9~19행(송):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절망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 : 화자의 시선 변화: 실리·태도의 변화 암시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대한 인식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감정의 정화 → 내면적 안정과 심리적 성숙

▶ 20~25행(진): 운명에 대한 깨달음이 가져다 준 감정의 정화, 화자의 심리적 성숙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찔랑찰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고통과 시련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엃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지난 삶에 대한 반성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찔랑찰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눈을 맞을”의 변주와 반복
 - 시간 → 청각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객관적 상관물

-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

- 삶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

▶ 26~32행(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갈매나무’의 모습
 - 외로움과 추위를 참고 견딜
 -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
- 시적 상황은? 고향을 떠나 객지를 떠돌고 있음.
- 어조는? 반성적, 체념적
- 정서나 태도는? 성찰적, 반성적, 의지적
- 주제는?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현실 극복 의지)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토속적 소재를 활용하고 (평안도) 방언을 구사함.
- 편지의 형식을 빌려 화자 자신의 근황을 밝힘.
- 산문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심표를 적절히 사용하여 내재율을 획득함.

03

㉮ ③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는 겨울이라는 하나의 계절적 배경만 등장할 뿐 이와 대조적인 다른 계절적 배경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는 ‘어느 사이에’, ‘이리하여 나는’,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와 같은 시어로 시간이 지났음을 드러내며, 이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심리를 함께 제시한다.
- ② 이 시의 제목은 편지 봉투에 발신 주소를 적는 형식으로, ‘남신의주 유동’이 주소이며, 그곳에 있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집)’이 발신지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시는 그곳에서 화자가 부치는 편지가 된다. 즉 고향을 떠난 화자가 편지로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이 시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손을 찢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는 등 시선을 아래로 두며 슬픔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인다. 후반부에서는 ‘고개를 들어’,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며’ 슬픔을 극복하고 있으므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이 시는 마지막 행에서 객관적 상관물인 갈매나무를 활용해 지난 삶에 대한 슬픔과 반성을 끝내고 다시 삶의 의지를 다지는 화자의 의지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04

㉮ ④번이 답인 이유

이 시의 화자는 고향을 떠나 세 들어 사는 작고 누추한 방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고 무기력함을 느낀다. 그러나 지나는 삶을 반성하고 자신을 둘러싼 운명을 인식하면서 내면의 안정을 얻게 되고, 마침내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품게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의 화자가 자신의 불행을 운명으로 수용하고 의지를 다지고 있기는 하지만 ‘감사와 기쁨’과 같은 정서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② 화자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반성할 뿐이지 현실에 ‘분노’하지 않으며, 마음이 진정된 후에도 ‘삶에 대한 경외’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 ③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슬픔과 어리석음을 ‘반성’하지만 주어진 운명에 ‘체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운명적으로 수용하지 ‘억울’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려는 결의’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05

㉮ ④번이 답인 이유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깨김질하는 것이었다.”에서 화자는 소에 자신의 슬픔과 어리석음이라는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어리석음을 곱씹는 자신의 모습을 ‘소’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1~4행에서 아내도 없고 부모,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이 시의 제목인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과 7~8행의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깬, /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가 ‘박시봉’이라는 목수의 집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23행의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이라는 시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초월적인 존재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운명론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 ⑤ 이 시에서 ‘갈매나무’는 외로움과 추위를 참고 견디는 존재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06~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절정_이육사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탄압, 시련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기혹한 현실(현재·진정)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수평적 공간의 극한 지점

○ 극한 상황의 점층적 구조
→ 점층적 시상 전개

▶ 1연(가): 수평적 공간에서의 극한 상황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수직적 공간의 극한 지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생존의 극한 상황

▶ 2연(나): 수직적 공간에서의 극한 상황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심리적 극한 상황

▶ 3연(전): 극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시상의 전환(외적 현실 → 화자의 태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역설적 인식 → 극한 상황의 초월 의지

▶ 4연(결): 극한 상황을 초극하려는 의지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로, 극한 상황에 처한 이
- 시적 상황은?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함.
- 어조는? 의지적, 지사적
- 정서나 태도는? 의지적, 저항적
- 주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초월적 인식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한시의 '기-승-전-결'의 4단 구성 방식을 따름.
-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 상징적 시어와 강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긴박감을 더하고 저항 정신을 표출함.

06

㉮ 2번이 답인 이유

이 시는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에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긴박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와 같은 의문형으로 극한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불안함을 드러낼 뿐 정서를 감탄의 형태로 강하게 드러내는 영탄적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고 느끼며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④, ⑤ 이 시에 절대적인 존재는 등장하지 않으며,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는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화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07

㉮ 2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는 일제 강점기 말기라는 외적 상황이 극한 공간으로 압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1연에서는 현실의 수평적 한계인 '북방'이, 2연에서는 수직적 한계인 '고원'과 더 나아갈 곳이 없는 '서릿발 칼날 진 그 위'가 제시되면서 생존의 극한 상황이 점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이 시는 한시의 형식 중 하나인 기승전결의 구성 방식을 1~4연에서 취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비극적 삶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통해 그러한 극한 상황을 정신적으로 초극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⑤ 1~3연에 걸쳐 극한 상황을 점차 고조시키며 외적 현실을 드러낸 다음 4연에서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경후정의 구성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08~09 개념으로 작품 읽기

알 수 없어요_한용운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절대적 존재 □: 인(절대적 존재)의 다양한 모습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

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굵이굵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은 누구의 시입니까 ▶ 1~5행: 자연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적 존재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시상의 전환 불교적 윤회 사상(역설법)
암담한 현실 화자의 희생정신

▶ 6행: 절대적 존재를 위한 희생 의지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
- 시적 상황은? 절대자의 존재를 믿고 임이 부재하는 암울한 현실을 이겨 내고자 함.
- 어조는? 명상적, 관념적
- 정서나 태도는? 희생적, 의지적
- 주제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과 구도의 정신

핵심 정리

| 이 시의 특징 |

- 경어체 및 의문형 어구를 반복함.
-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자연 현상을 통해 형상화함.
-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형태적 안정성과 리듬감을 부여함.

08

㉮ 4번이 답인 이유

이 시는 각 행을 “누구의 ~입니까”라는 의문형 문장으로 종결함으로써 자연 현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임의 모습을 통일성 있게 제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는 ‘낮(푸른 하늘) → 저녁(저녁 놀) →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이 시는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누기 어렵고, 시상의 전환 역시 6행의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에서 일어난다.
- ③ 이 시의 처음과 끝에서 같거나 유사한 시구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수미상관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⑤ ‘발자취’, ‘얼굴’, ‘입김’, ‘노래’는 원관념인 ‘절대적 존재’의 일부를 각각의 보조 관념(자연 현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의 시선이 실제로 따라가는 시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09

㉮ 5번이 답인 이유

이 시에서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은 절대자가 아니라 화자 자신과 관련된다. ‘밤’은 임이 부재하는 암울한 상황을 의미하며, ‘약한 등불’은 암담한 현실을 밝히려는 화자의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 ①~④ 이 시는 ‘누구’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각 행마다 자연물 또는 자연 현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1행에서는 ‘누구의 발자취’를 ‘오동잎’에 빗대었고, 2행에서는 ‘누구의 얼굴’을 ‘푸른 하늘’에, 3행에서는 ‘누구의 입김’을 ‘향기’에 빗대어 형상화하였다. 4행에서는 ‘누구의 노래’를 ‘작은 시내’에, 마지막으로 5행에서는 ‘누구의 시’를 ‘저녁’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② 06 ②

작품 분석하기

[80쪽 ㉠]

구분	내용	알 수 있는 시어/시구
화자	• 1연: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만술 아버지) • 2연: 제삼자	• '아베요 아베요 / 내 눈이' • '여보게 만술 아버지 / 니 정성이 엄철다'
대상	만술 아버지의 축문	'축문이 당한기요'
처지 · 상황	글씨를 모르고 가난한 만술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제사를 지냄.	• '내 눈이 티눈' •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 • '윤사월 보릿고개'
정서 · 태도	• 만술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애절한 정성을 보임. • 만술 아버지의 아버지는 만술 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함.	•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 '니 정성이 엄철다' •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는 굶은 밤이슬이 온다.'
주제	돌아가신 아 버 지 에 대한 만술 아버지의 정성과 그리움	

[80쪽 ㉡]

구분	내용	알 수 있는 시어/시구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나' (=큰애)	'그래도 큰애 네가 / 아버지한테는...'
대상	어머니의 소식	'어머니께서 / 한 소식 던지신다'
처지 · 상황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려는 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건넌.	'병원 갈 채비를 하며 / 어머니께서 / 한 소식 던지신다 / 허리가 아프니까'
정서 · 태도	• 세상이 다 '의자'로 보임 • 아버지 산소에 다녀올 것을 권유함 • 세상 모든 존재는 의지하며 살아가니 가족들과도 싸우지 말고 배려하고 의지하고 살라며 권유함	•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 '주말엔 /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 '싸우지들 말고 살아라 ...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야'
주제	서로 의 지 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깨우침	

[82쪽 ㉢]

구분	내용	알 수 있는 시어/시구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나'	'내 호울로' / '내 어디서' / '내 어디로'
대상	외사들(가스등), 도시의 야경	'차단—한 등불' / '찬란한 야경'
처지 · 상황	도시의 여름밤 찬란한 야경 속	'간—어름해 황랑히 내려를 접고' '늘어선 고층 ...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집초인 양...'
정서 · 태도	외로움, 슬픔, 공허함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깨달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 / '무거운 비애'
주제	여름밤 도시의 야경을 보며 느끼는 외 로 움 과 비애	

[82쪽 ㉣]

구분	내용	알 수 있는 시어/시구
화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음.	
대상	과거 고향의 모습	'시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 '마을이 있다'
처지 · 상황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고, 벌이 많이 뜨는 마을을 떠올림.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 '밤이면 더 많이 벌이 뜨는 마을'
정서 · 태도	자연과 인간이 꾸밈없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 마을을 동경함.	'낯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 '천연(天然)히'
주제	인간과 자 연 이 조화된 꾸밈없는 공간에 대한 소망	

01~03

2016학년도 6월 고2 학력평가

가 박목월, '만술 아버지의 축문'

주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만술 아버지의 정성과 그리움

해제 이 시는 글을 모르고 가난하지만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는 '만술 아버지'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화체로 표현하고 있다. 사투리의 사용을 통해 토속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일상적인 시어를 통해 만술 아버지의 처지와 서로 간의 애절한 정을 그려 냈다.

아베요 아베요

지적 화자(만술 아버지)가 지적 청자인 '아베'에게 말을 건넌.

내 눈이 티눈인 걸

표면에 드러난 지적 화자

아베도 알지려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려요.

간고등어 한 손이든

아버지가 좋아하던 것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 1연: 돌아가신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는 만술 아버지

여보게 만술(萬述) 아버지

화자 - 만술 아버지를 지켜보던 제삼자, 청자 - 만술 아버지

니 정성이 엄철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亡靈)도 응감(應感)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죽은 아버지의 혼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는 굶은 밤이슬이 온다.

시어 반박으로 의미 강조

▶ 2연: 만술 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한 죽은 아버지

짜임

1연	아버지의 제사상에 바치는 아들의 축문
2연	아들의 정성에 대한 망자의 감동

특징

- 시어의 반복을 통해 아버지에게 대한 아들의 애타운 정을 부각함.
-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냄.
- 두 명의 화자를 내세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나 이정록, '의자'

주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깨우침

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삶의 이치를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허리가 아픈 경험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의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물, 망자, 세상의 모든 것은 의지할 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큰애에게 타이르듯 전하고 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지적 대상인 어머니가 화자에게 말을 건넌.
한 소식 던지신다

▶ 1연: 병원에 가려는 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건넌.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의자]
-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사물
- 매 연마다 반복되며 의미를 강조함.
- 삶의 위안과 위로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

▶ 2연: 허리가 아픈 경험을 계기로 세상이 '의자'로 보인다는 어머니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어머니가 자신(큰애)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녜나

'큰애'가 아버지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존재였음이 드러남.

▶ 3연: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려하는 어머니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침외, 호박

▶ 4연: 자연물을 배려하는 어머니

싸우지 말고 살아라

청유형 명령형 어미로 어머니의 통 강조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들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서로가 서로에게 '의자'와 같은 위안이 되길 바램.

▶ 5연: 어머니의 가치관과 당부

짜임

1연	병원 갈 채비를 하시는 어머니
2연	병(허리가 아픔)을 계기로 어머니가 깨달은 삶의 이치
3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였던 큰애
4연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존재들
5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살아가는 삶

특징

-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냄.
- 방언을 사용한 구어체로 시적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

01 종합적인 감상

정답 ① 정답률 71%

㉠ 1번이 답인 이유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가)는 '만술 아버지'가 '아베'에게 친근히 말을 건네는 모습과 그러한 '만술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체삼자'가 "망령도 응감하"겠다고 말을 건네는 모습을 통해 '만술 아버지의 정성'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어머니'가 '큰애'에게 하는 말을 통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에 대한 깨우침이라는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즉 (가), (나)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심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가)에서는 시선의 이동이 아닌 화자의 교체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나)는 시선의 이동도 나타나지 않고, 시상의 전환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로 비판적 현실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가) '소금에 밥'과 '간고등어'라는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비판적 현실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나)에서는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도, 비판적 현실 인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심경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 화자의 심경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시어의 반복으로 화자 자신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가)는 '아베', '눌러', '느껴' 등의 시어를 반복하고 있으며 (나)는 '의자'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있지만, (가)와 (나)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 자신의 부정적인 처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개념의 좌표 찾기

- 말을 건네는 방식(→19쪽)
- 시선의 이동(원경/근경)(→60쪽)
- 시상의 전환(→67쪽)
- 비판적(→22쪽)
- 과거와 현재의 대비(→66쪽)
- 시어의 반복(→46쪽)
- 부정적(→18쪽)

02 시어(시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④ 정답률 45%

㉠ 4번이 답인 이유

④ [B]에서 '밤이슬'이 오는 것은 [A]의 '소금에 밥'을 바치는 마음 때문이다.

➡ [B]에서 '밤이슬'이 오는 이유를 '니 정성 느껴느껴'라고 하였다. 여기서 '니'는 만술 아버지를 말한다. 만술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이라 아버지에게 '소금에 밥'밖에 차려드리지 못했지만 '망령도 응감하여'라는 표현으로 볼 때, 만술 아버지의 아베가 감동을 하였고 그 감동으로 '밤이슬'이 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밤이슬'은 망령이 만술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한 것을 드러낸 표현이다.



오답 풀이

- ① [A]와 [B]에서 '저승길'을 가는 주체는 '만술 아버지'이다.
→ '저승길'을 가는 주체는 망령 즉, '만술 아버지'의 죽은 아버지이다.
- ② [A]의 '아베 소원'에 [B]의 '망령'도 응하여 감동하고 있다.
→ '망령'이 응하여 감동하는 이유는 '만술 아버지'의 정성 때문이다.
- ③ [A]의 '보릿고개'는 [B]의 '이승 저승'을 다 다니며 겪는 것이다.
→ '보릿고개'는 '만술 아버지'의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승 저승'에서 보릿고개를 겪는다고 볼 수 없다.
- ⑤ [B]에서 '엄첩다'고 한 것은 [A]에서 '간고등어 한 손'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 '엄첩다'고 한 것은 '소금에 밥'을 준비한 '만술 아버지'의 정성 때문이다. '간고등어 한 손'은 풀어 드릴 수 없는 아버지의 소원을 뜻한다.

03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⑤ 정답률 60%

보기

이 작품은 '의자'라는 상징적 소재로 어머니의 경험에 따른 인식과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어머니는 죽은 남편과 자연물에게까지 포용력과 배려심을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식에게 전해 줄 세상살이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다.

6번이 답인 이유

- ⑤ 어머니는 '의자'가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에 놓여야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치를 드러내고 있어.
- <보기>에서 어머니가 '의자'를 통해 전하는 세상살이의 이치는 '포용력'과 '배려심'이라고 했다. 그것은 ⑤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의자를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를 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포용해 주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는 허리가 아픈 경험을 계기로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 2연에서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꽃도 열매도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② 어머니가 '아버지 산소 좀 다녀'오라고 한 것은 죽은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말이다.
- <보기>에서 어머니는 죽은 남편과 자연물에게까지 포용력과 배려심을 보인다고 했다. 이는 아버지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의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큰애'에게 '주말엔 /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 ③ 의자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큰애'에게 위로받고 의지했다는 뜻이다.

- '의자'는 삶에 대한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이다. 이때 '큰애'가 아버지에게 '좋은 의자'였다는 것은, '큰애'가 아버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참외밭에 지푸라기'를 깔겠다는 어머니의 말에서 자연물도 '식구'로 느끼며 포용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 <보기>에서 어머니는 죽은 남편과 자연물에게까지 '포용력'과 '배려심'을 보인다고 했다. 참외밭에 지푸라기를 깔고, 호박에 파리도 받쳐야겠다고 말하며 '그것들'도 '식구'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에서 '자연물'을 포용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상징(→43쪽)

04~06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B

가 김광균, '와사등'

주제 여름밤 도시의 야경을 보며 느끼는 외로움과 비애

해제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시적 삶의 고독과 비애감을 주관적인 감각 체험으로 묘사한 시이다.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며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비애를 노래했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을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 1연: 차가운 등불 아래에서 느끼는 방향 상실감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활유법: 해가 지는 모습을 새겨 남개를 전는 듯이 표현함

늘어진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잠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수미상관 구조

대조(명암)

▶ 2연: 여름해가 진 도시의 야경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공감각적 표현: 시각의 촉각화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영탄법: 화자의 슬픔을 직접 표출함.

▶ 3연: 어둠 속에서 느끼는 비애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 4연: 군중 속의 고독과 슬픔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 5연: 차가운 등불 아래에서 느끼는 방향 상실감

□: 와사등(가스등의 일본식 음차)
→ 도시적·이국적 이미지, 일제 강점기의 상황 반영
■: 시적 허용

짜임

1연	현대인의 방향 감각 상실
2연	황폐한 도시 문명 속 현대인의 자아 상실
3연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삶의 비애
4연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절망감
5연	현대인의 방향 감각 상실

특징

- 참신한 비유와 독창적 이미지를 자주 활용함.
-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여 현대인의 내면을 드러냄.
- 수미상관식 구성을 취해 현대인의 방향과 고독을 심화함.

나 박용래, '올타리 밖'

주제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꾸밈없는 공간에 대한 소망

해제 이 작품은 시각적 심상의 시어를 통해 사랑스러운 들길과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 등 고향의 모습을 회화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특히 직유적 표현과 향토적 정감이 느껴지는 시어를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고향의 정경을 그렸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고향의 모습을 통해 이상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머리가 ^{직유법}마늘쪽같이 생긴 ^{향토적 이미지}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향토적 이미지}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 1연: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는 고향

그 길에 ^{직유법}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天然)히
꾸밈없는 ^{향토적 이미지}고향의 모습

▶ 2~3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고향

올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시구의 반복 → 운율 형성, 마을의 모습 강조}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시구의 반복 → 운율 형성, 마을의 모습 강조}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시구의 반복 → 운율 형성, 마을의 모습 강조}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밝음의 이미지

▶ 4연: 자연과 더불어 존재하는 고향의 모습

짜임

1연	고향 마을의 들길과 아이들에 대한 느낌
2연	시골 고향 마을의 속성
3연	시골 고향 마을의 이미지
4연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마을의 정경

특징

- 동일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동질적 속성을 부각함.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의미를 강조함.
-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 마을의 정경을 선명하게 드러냄.

04 종합적인 감상

정답 ③ 정답률 93%

㉮ ③번이 답인 이유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는 '창백한 묘석같이'와 '무성한 잡초인 양' 등 직유법을 활용하여 현대 문명과 도시 야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고, (나)에서는 '아지랑이가~물이 흐르듯'의 직유법을 활용하여 고향 마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수미상관은 (가)에만 나타나 있고, (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정서의 변화는 (가), (나)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가)에는 '슬픈 신호냐.'와 '눈물겹고나'에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 있으나 (나)는 영탄적 표현 없이 전체적으로 담담한 어조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경외감은 (가), (나)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가)에는 '등불'의 밝음과 '야경', '어둠'의 명암 대조가 나타나 있다. (나)는 밝음과 어둠의 대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가), (나) 모두 긍정적 미래의 도래에 대한 인식은 없다.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가)에는 '내 호을로', '내 어디서' 등의 시어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를 표면에 드러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 (나)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고향 마을에 대한 풍경을 그려냄으로써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수미상관(→31쪽, 64쪽)
- 영탄적 표현(→48쪽)
- 경외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 비유적 표현(→41쪽)
- 어둠과 밝음의 대조(명암 대비)(→35쪽)
- 표면에 드러난 화자(→12쪽)

05 시어(시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② 정답률 92%

㉮ ②번이 답인 이유

②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은 어둠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스미다'라는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표현이다. 하지만 어둠을 통해 화자의 비애감을 나타낸 것이지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이 좁다'는 것은 현실의 모습이 이상 세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말이다. 이 작품은 현실의 모습에서 슬픔과 비애를 느끼는 것으로 보아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이 넓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비인 하늘에 걸쳐 있는 차단한 등불 하나를 통해 갈 길을 잃어 버린 화자의 쓸쓸한 모습을 표현했다.
- ③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길-게'를 통해 낭송의 호흡을 길어지게 하여 화자가 지니고 있는 비애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연결 어미 '-듯'을 반복하여 '아지랑이', '태양', '제비'의 동질적 속성(꾸밈없이 자연스러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 '천연히'라는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고향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환기(→37쪽)
- 거리감(→55쪽)
- 공감각적 표현(→36쪽)

06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② 정답률 77%

보기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2번이 답인 이유

-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 ➡ (가)에서 '창백한 묘석같이', '잡초인 양 형클어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간의 순환적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도 '천연히'를 통해 자연의 지속성이 강조되지만, 시간의 순차적 흐름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 ➡ <보기>에서 김광균과 박용래 두 시인 모두 회화적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언급했는데, (가)에서는 '긴—여름해', '늘어선 고층', '찬란한 야경', (나)에서는 '아지랑이가 피듯', '제비가 날듯', '잔광이 부신' 등의 시어를 통해 풍경을 묘사하여 회화성을 잘 살렸다.
-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 ➡ <보기>에서 김광균은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가)에서는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처럼 형클어졌다고 표현함으로써 현대 문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의 상실감을 표현했다. 또 <보기>에서 박용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고 했다. (나)에서 '화초'를 울타리 밖에 심음으로써 '울타리 안'이라는 인간의 공간과 '울타리 밖'이라는 자연의 공간이 조화되는 모습을 표현하여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 ➡ (가)에서는 '슬픈', '낯설은', '비에' 등의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보기>에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물질문명으로부터 소외된 현대인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사랑스러운'이라는 시어를 제외하면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가 없다. 또한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 (나)에서 '마늘썩', '울타리' 등의 시어를 통해 <보기>에서 작가가 의도한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시각적 이미지/회화성(→35쪽)
-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18쪽)
- 순차적 흐름(→59쪽)

II. 고전 시가

01 고전 시가의 갈래 ①_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한시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90~91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고대 가요 (2) 향찰 (3) 고려 가요

2 (1) X (2) ○ (3) X

3 (1) ㉠ (2) ㉡ (3) ㉢ (4) ㉣

01 ② 02 ④ 03 ⑤ 04 ㄱ, ㄷ 05 ② 06 <정월령>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정읍사_작자 미상(어느 행상인의 아내)

고대 가요 중 유일하게 한글로 전해지는 작품이야. 남편의 안전을 비는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들하 노피곰 도드샤
달-소망, 기원의 대상(→은 더)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음악에 맞추기 위한 뜻 없는
후렴구(=어음구, 조음구)

아으 다롱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저재 내려신고요

남편의 신분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행상인임을 알 수 있음.

어기야 즈 더를 드리울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 곳이나, 어느 것이나.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는 더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 화자는? 작자 미상(어느 행상인의 아내)
- 시적 상황은? 남편이 행상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음.
- 어조는? 공손함(‘들하’의 ‘하’는 높임 표현, ‘도드샤’의 ‘샤’도 높임 표현), 간절함, 서정적, 기원적
- 정서나 태도는? 남편의 안전을 염려하며 달에게 남편의 안전을 기원함.
- 주제는?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

핵심 정리

- 갈래: 고대 가요, 서정시 • 연대: 백제 시대로 추정
- 형식상 특징: 후렴구를 사용함.
- 의의: ①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임. ②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고대 가요 중 가장 오래된 작품임. ③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 작품임.

| 이 시의 짜임 |

기(1구~4구)	‘달’에게 남편의 무사함을 기원함.
서(5구~7구)	남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염려함.
결(8구~11구)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람.

| 배경 설정 |

정읍은 당시 전주에 속해 있던 마을이다.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아내가 산 위의 바위에 올라 남편이 간 곳을 바라보며, 남편이 밤길을 오다가 해를 입지나 앓을까 염려하여 달에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후 세상에 전하기를,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돌아 되었다고 한다.

01

㉠ ②번이 답인 이유

이 작품은 3·4행, 7행, 10·11행의 후렴구를 기준으로 기(1~4구: 남편의 무사를 기원함), 서(5~7: 남편을 염려함), 결(8~11: 남편의 무사 귀가를 바램)의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뉜다. 이러한 형식은 시조의 형식(3장 6구)과 유사한 면이 있어 <정읍사>를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작품에서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정읍사>는 고대 가요에 속한다.
- ④, ⑤ 이 작품은 행상을 나간 남편을 걱정하며 무사 귀가를 기원하는 아내의 마음이 중심 내용을 이룬다. 이 작품은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노동요적 성격을 지닌 노래로 보기 어렵다.

02

㉠ ④번이 답인 이유

‘아으’는 후렴구의 일부로 음악에 맞추기 위해 들어간 의미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화자의 불안함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화자는 밤에도 밝은 빛을 내는 달에게 존칭(‘들하’)을 쓰며, ‘비취오시라’는 소망을 빈다. 달빛이 환히 비추면 임이 밤에도 위험한 곳을 디디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② ‘달’과 ‘즌 더’라는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로 시상이 전개되므로 시각적 이미지가 대립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저재’는 ‘시장에’로 해석되므로 화자의 남편이 시장에 다니는 행상인임을 나타내 준다.
- ⑤ ‘드리울세라’와 ‘점그를세라’에서 ‘-르세라’가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르세라’는 ‘-할까 두렵다’란 의미로 남편을 걱정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도 함께 강조된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청산별곡_작자 미상

유랑민의 삶의 고뇌가 비유와 상징, 정제된 형태미로 드러난 고려 가요야. 글의 구조와 화자의 심정을 고려하며 읽어 보자.

살어리³살어리³랏다 청산(靑山)에²살어리³랏다²
 멀위랑³드래랑³먹고 청산(靑山)에²살어리³랏다²
 알리³알리³알랑성²알라리³알라²

고려 가요의 특징①
3음보, 3·3·2조의 음수율

고려 가요의 특징② - 후렴구를 사용한 분연제(연을 구분함)

▶ 1연: 청산에 대한 동경



정답과 해설

우러라³우러라³새²여 자고 니러^{4(하행)}우러라³⁽²⁾새²
 नी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고려 가요의 특징③
 음악에 맞추기 위한 뜻 없는
 후렴구(드러옴구, 조흥구)
 - 특징: '오, 르'를 반복함.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2연: 삶의 고독과 비애

가던 새³가던 새³본다²⁽³⁾물 아래³가던 새³본다³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3연: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민

이랑공³더랑공³하야 나즈란²디내와³손더²⁽³⁾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프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후략)

▶ 4연: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나'로 속세를 떠나고 싶어 함.
- 시적 상황은? 괴로운 현실 때문에 이상향과 도피처를 찾고 있음.
- 어조는? 애상적(우러라), 절망적, 체념적(바프란 쏘 엇디 호리라)
- 정서나 태도는? 절망적 현실에 비애감을 느끼며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체념적 태도
- 주제는? 삶에 고뇌를 느끼는 유랑민의 슬픔, 속세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의 슬픔

핵심 정리

- 갈래: 고려 가요 • 연대: 고려 후기
- 형식상 특징: ① 후렴구를 사용해 연을 나눔. ② 3음보, 3·3·2조의 음수율이 나타남.
- 의의: 적절한 비유, 고도의 상징성, 빼어난 운율과 정제된 형태미로 문학성을 인정받음.

| 이 시의 짜임 |

후략된 부분의 5연과 6연을 서로 바꾸면 전체 구조가 대칭적인 형식미를 지닌다.

청산 ← (대칭 구조) → 바다	
1연	청산-자연에 대한 동경
2연	새-삶의 비애와 고독
3연	새-현실에 대한 미련
4연	밤-고독과 괴로움
6연	바다-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5연	돌-운명적 고독과 번뇌
7연	사슴-생의 절박함과 고독
8연	술-고뇌의 해소

〈수록 부분〉

03

㉔ 6번이 답인 이유

이 작품은 평민들의 삶의 고뇌와 비애를 노래할 뿐이며 현실을 이겨 내려는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1연에서는 'A(살어리)-A(살어리랏다)-B(청산애)-A(살어리랏다)'로 3연에서는 'A(가던 새)-A(가던 새 본다)-B(물 아래)-A(가던 새 본다)'의 구조로 운율을 형성한다.
- ② 이 시의 화자는 '새'에게 자신의 시름 많은 감정을 이입하여 'უნ다'고 표현하였다.
- ③ 이상향을 상징하는 공간인 '청산'과 속세를 상징하는 공간인 '물'이 대조되고, 이력저력 지낼 만한 '낮'이라는 시간과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이란 시간이 대조되고 있다.

- ④ 이 시는 고려 가요로 '살어리/살어리/랏다'처럼 3·3·2조의 음수율과 3음보의 음모율이 드러난다.

04

㉔ ㄱ, ㄴ이 답인 이유

이 글의 후렴구는 각 연의 마지막 행에서 반복되어 연을 구분하며, 율림소리인 '오, 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이 글의 후렴구는 음악에 맞추기 위한 구절일 뿐 의미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내용상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화자의 흥겨움을 강조한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동동_작자 미상

각 달의 세시 풍속과 임을 향한 마음을 연결하여 노래한 월령체 고려 가요임에 주의하여 읽어 보자.

덕(德)으란 곱비에 받잡고 복(福)으란 림비에 받잡고
 덕(德)이어 복(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서사: 덕과 복을 빌.

고려 가요의 특징① - 후렴구
 - 음악에 맞추고, 흥을 돋우는 부분
 - 내용상 뜻이 없음.
 - 연을 구분하는 역할을 함.
 - '아으'는 감탄사, '동동'은 복소리, '다리'는 악기 소리를 본뜬 의성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고려 가요의 특징② - 〈서사〉의 특성
 - 고려 가요는 평민들 사이에 불리었다 후에 각색되어 궁중에서 불림.
 - '서사'는 궁중의 속제를 위해 각색된 부분임.
 - 이때의 '임'은 '임금'의 비유로, 화자는 임금의 덕과 복을 빌고 있음.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로 널서

아으 동동(動動)다리

▶ 정월령: 홀로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희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이월령: 임의 인품을 찬양함.

삼월(三月) 나며 개(開)흔 아으 만춘(滿春) 돌윗고지여

늑 밍 브를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삼월령: 임의 아름다움을 찬양함.

□: 고려 가요의 특징③ - 분연체
 - 달을 기준으로 연을 나누어 사상 전개(월령체)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화자('몸하')로 임과 이별한 사람임.
- 시적 상황은? 임에게 버림받고 홀로 살아가는 처지임.
- 어조는? 서정적(이별의 상황), 영탄적, 예찬적('등(燈)스불 다호라', '돌윗고지여')
- 정서나 태도는? 임의 덕과 복을 빌며, 혼자 살아가야 하는 외로움을 표현하고, 임의 모습을 예찬함.
- 주제는? 임에 대한 찬송, 축복,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

핵심 정리

- 갈래: 고려 가요 • 연대: 고려 시대(12~14세기 경)
- 형식상 특징: ① 후렴구를 사용함.
 ② 각 달의 세시 풍속에 따라 사랑의 감정을 읊음.
- 의의: 우리 문학 최초의 월령체(달거리) 노래

| 이 시의 짜임 |

월	중심 제재	내용과 표현
서사	덕(德), 복(福)	대구 형식으로 임을 송축함. <수록 부분>
정월	나랏물	정월의 냇물과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대조함. <수록 부분>
이월	등(燈)불	임의 인품을 등불에 빗대어 송축함. <수록 부분>
삼월	돌윗곳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진달래꽃에 빗대어 송축함. <수록 부분>
사월	곳고리	잊지 않고 찾아온 꾀꼬리와 오지 않는 임을 대조함.
오월	아춤 약(藥)	단옷날 아침 약을 바치며 임의 장수를 기원함.
유월	빛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빛에 비유함.
칠월	백종(百種)	제사상을 차려 놓고 임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기원함.
팔월	가배(嘉俳)	임이 없는 한가위의 쓸쓸함.
구월	황화(黃花)	고요한 초가 속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심정을 토로함.
시월	부룻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잘게 썬 보리수나 무에 비유함.
십일월	한삼(汗衫)	한삼을 덮고 누워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십이월	저(箸)	임을 위해 차려 놓은 잔치상의 젓가락을 다른 손님이 가져가는 것에 비유하여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슬퍼함.

05

㉔ 2번이 답인 이유

<서사> 이후 정월(1월), 이월(2월), 삼월(3월) 순으로 시상을 전개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아으 동동다리’는 내용상 의미가 없는 후렴구이므로 화자의 정서가 집약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향가계 여요에 대한 설명으로, 대표작에는 정서의 <정석가>가 있다.
- ④ 고대 가요에 대한 설명이다. <동동>은 고려 가요에 해당한다.
- ⑤ 고려 가요는 평민들 사이에서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기록되었다.

06

<정월령>은 다른 연들과 달리 시적 대상을 축하하는 내용이 아닌 홀로 있는 외로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02 고전 시가의 갈래 ②_시조, 가사, 민요

사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96~98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시조 (2) 가사 (3) 민요

2 ㉠ 연시조 ㉡ 평민 3 (1) ○ (2) ○ (3) X

01 ③ 02 ④ 03 ③ 04 ㉠ 무릉 ㉡ 단표누향

05 동일 시어의 반복, 4음보, 4·4조의 음수율, A-A-B-A의 구조 사용

06 ② 07 ④ 08 ④ 09 ④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가) 오백 년 도읍지를 길재
(나)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_작자 미상

(가)는 평시조, (나)는 사설시조야. 두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억하며 시를 읽어 보자.

(가)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 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없다.
어즈버(어즈버) 태평연월(太平煙月)이 솜이런가(솜이런가) 호노라.

시조의 특징
- 3장 6구 - 3·4조의 음수율 - 4음보의 음보율
- 종장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함(어즈버)

(나)

창(窓) 내고자 창(窓)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窓)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앞들저귀 수들저귀 비목걸
새 크나큰 장도리로 독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볼가 호노라

사설시조의 특징② - 종장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함(잇다감)

사설시조의 특징①
초창이나 종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짐. 평민에게 친숙한 소재가 등장함.

(가)

- 화자는? 고려의 도읍지에서 한탄하는 인물
- 시적 상황은? 고려의 도읍지에서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하며 고려의 물락을 한탄함.
- 어조는? 회고적(‘인걸은 간 디 없다’), 영탄적(‘어즈버’, ‘호노라’)
- 정서나 태도는? 고려가 망한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고려의 전성기에 대하여 무상감을 표현함.
- 주제는?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핵심 정리

- 갈래: 평시조 • 연대: 조선 초기
- 형식상 특징: ① 3장 6구 45자 내외의 구성 ② ‘3·4조’의 음수율, 4음보의 음보율 ③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나타남.
- 의의: 대조법·영탄법을 사용하여 고려 왕조를 돌이켜보고 인생무상을 노래해 당대 사대부의 유교적 윤리 의식을 드러냄.

| 이 시의 짜임 |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하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구성된다.

자연

의구한 산천

↔ 인간사

사라진 인걸



(나)

- 화자는? 마음이 답답한 인물
- 시적 상황은? 마음이 답답해 마음에 창을 내고 싶어 함.
- 어조는? 해학적, 의지적
- 정서나 태도는? 삶의 고뇌를 어둡게 그리지 않고 기발한 발상을 통해 극복하려 함.
- 주제는?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핵심 정리

- 갈래: 사설시조 • 연대: 조선 후기
- 형식상 특징: ① 중장이 2구 이상 늘어나고, 시가 전체적으로 길어짐. ② 평민들에게 친숙한 소재들이 나열됨. ③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나타남.
- 의의: 삶의 고뇌를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해학성을 보임.

| 이 시의 짜임 |

초장	'창'을 내고 싶은 소망 (답답한 마음을 방에 비유함, 시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함)
중장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도구를 나열함. (장지문의 종류와 부속품 같은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나열함)
종장	창을 여닫아 답답함을 해소함.

01

㉠ ④번이 답인 이유

(가)의 '어즈버', (나)의 '있다감'에서 알 수 있듯 (가)와 (나)의 시조 모두 종장의 첫 음보를 3음절로 고정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평시조로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고려 말에 형식이 완성되었으며, (나)는 사설시조로 조선 후기에 향유되었다.
- ② (가)는 3장 6구의 형식을 지키고 있으며, (나)는 중장에서 유사한 소재를 나열하여 2구 이상이 되었으므로 6개의 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④ (가), (나) 모두 종장에서 주제를 드러냈다. (가)의 종장에서는 망국의 한과 무상감이, (나)의 종장에서는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가)는 평시조로 신흥 사대부와 기녀들이 주로 창작하였고, (나)는 사설시조로 주로 평민들이 창작하였다.

02

㉠ ④번이 답인 이유

(나)는 창과 관련된 소재를 나열함으로써 중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창문의 종류와 부품이므로 서로 대조되는 시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중장에서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해 화자의 무상감을 강조한다.
- ② (가)는 중장에서 '외구'한 '산천'과 '간 디 업'은 '인결'을 나란히 두어 영원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사를 대조한다.
- ③ (가)는 중장에서 고려가 왕성했던 '태평연월'이 '꿈(꿈)'처럼 느껴진다고 비유하여 고려가 망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답답한 시적 상황을 마음에 '창을 내'어 해결하겠다는 기

발한 발상을, 창과 관련된 일상적인 소재를 나열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한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상촌곡_ 정극인

봄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 작품이야. 조선 전기 가사의 특징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청류(淸流)를³ 굽어보니⁴ 씨오느니⁴ 도화(桃花)를⁴ 로다⁴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무릉(武陵)이⁴ 갓갑도다⁴ 저 미이⁴ 근 거인고⁴
도연명이 말한 이상향이 무릉을 인용해 봄날 화자의 흥취를 강조함
 송간 세로(松間細路)에⁴ 두견화(杜鵑花)를⁴ 부치 들고⁴
 봉두(峰頭)에³ 굽이 올라⁴ 구름 소귀 안자 보니⁴ 특징 ①
- 4음보 연속체
- 3·4조, 4·4조의 음수를
 천촌 만락(千村萬樂)이⁴ 곳곳이 버려 있니⁴
 연하 일휘(煙霞日輝)는⁴ 금수(錦繡)를⁴ 재꺾는 듯⁴
"연하일휘(자연)"를 "금수(미단)"에 비유함 - 아름다움 강조
 엇그제 검은 들이⁴ 봄빛도 유여(有餘)홀사⁴

▶ 본사: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

공명(功名)도 날⁴ 씩우고 부귀(富貴)도 날⁴ 씩우니⁴
주객전도의 표현으로 세속적인 공명과 부귀에 욕망을 품지 않는 화자의 태도 강조
 청풍 명월(淸風明月) 외(外)에⁴ 었던⁴ 벗이⁴ 잇스올고⁴
자연에 지향하는 마음을 설의법으로 강조함
 단표 누항(簾瓢陋巷)에⁴ 쫓은⁴ 해운⁴ 아니⁴ 하니⁴
= 관영 부귀
 아모타³ 백년행락(百年行樂)이⁵ 이만흔⁴ 들⁴ 었지⁴ 흐리⁴
설의법
 ▶ 결사: 안빈낙도에 대한 만족

특징 ②
결사는 주제가 나타남.
(주객전도, 설의법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 강조)

특징 ③
낙구가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3·5·4·3)이 일치하는 정격 가사

- 화자는?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즐기는 인물
- 시적 상황은? 시냇가에서 복숭아꽃을 바라보다 산 위에 올라가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음.
- 어조는? 예찬적('도화'로다), 묘사적('연하 일휘는 금수를 재꺾는 듯')
- 정서나 태도는?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임('청풍 명월 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흔 들 었지 흐리')
- 주제는? 아름다운 봄의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의 즐거움

핵심 정리

- 갈래: 전기 가사, 양반 가사, 은일 가사, 정격 가사
- 연대: 조선 전기(성종, 15세기)
- 형식상 특징: ① 4음보 연속체 ② '3·4조, 4·4조'의 음수율
③ 낙구가 시조의 종장과 일치하는 정격 가사
- 의의: 조선 최초의 양반 가사, 강호가도를 노래한 첫 가사 작품

| 이 시의 전체 짜임 |

서사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즐거움	초가집(좁은 공간)
본사	봄 풍경을 구경하며 산책함.	들판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김. <수록 부분> 산에 올라 봄 경치를 내려다봄. <수록 부분>	시냇가
결사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만족 <수록 부분>	봉우리(넓은 공간)

03

㉠ ③번이 답인 이유

화자는 산봉우리에 올라 봄의 경치를 바라볼 뿐 바른 정치를 다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시는 가사로 각 행을 4음보로 끊어 읽는다.
- ② 이 시의 마지막 구(행)는 시조의 종장과 마찬가지로 3음절로 시작하고, '세 글자-다섯 글자-네 글자-네 글자'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정격 가사이다.
- ④ '공명'과 '부귀'를 꺼리는 화자의 가치관을, '공명'과 '부귀'가 '날 띄우고'로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표현하였다.
- ⑤ '-리'는 반문의 뜻을 담은 종결 어미로 '엇지하리'라는 의문형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04

화자는 '저 미'를 도연명이 표현한 이상향인 '무릉'에 빗대고 있으며, 검소하게 살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단표누향'이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단표누향'은 '도시락과 표주박과 누추한 거리'를 뜻하는데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 화자는? 사촌 형님을 마중 간 여성, 시집살이 하는 사촌 형님
- 시적 상황은? 마중 간 사촌 동생이 시집살이에 대해 묻고, 사촌 형님은 고된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토로함.
- 어조는? 해학적, 풍자적, 여성적, 서민적
- 정서나 태도는?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며 체념적 태도를 보임.
- 주제는? 시집살이의 한과 체념

핵심 정리

- 갈래: 민요, 부요(결혼한 여성이 부르는 노래)
- 형식상 특징: ① 4음보 연속체 ② '4·4조'의 음수를 ③ 언어유희와 구체적인 표현(구체적인 사물에 비유하기, 반복법 및 대구와 대조)으로 해학성과 생동감을 조성
- 의의: 서민들의 시집살이의 애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민중 문학

| 이 시의 짜임 |

기	형님에 대한 반가움, 시집살이에 대한 호기심(화자: 사촌 동생) <수록 부분>
서	고된 시집살이의 괴로움 (화자: 형님) <수록 부분>
결	시집살이에 대한 해학적 체념 (화자: 형님)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시집살이 노래_작자 미상

평민들이 느끼는 삶의 애환을 노래한 민요야. 민요의 특징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떡할까.

운율 형성 요소: A-A-B-B의 구조

특징 ② - 일상적인 소재()를 다룸.

▶가: 찬정을 오는 형님 마중과 시집살이에 대한 호기심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당추.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동글동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찼어다가,

아홉. 솥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차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라.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중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씹는. 셀새.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갈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갈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후략)

과거의 모습 ← 대조법 → 현재의 모습

▶서: 고된 시집살이의 괴로움

특징 ①
- 4음보 연속체
- 4·4조의 음수율

특징 ③ - 언어유희(발음의 유사성 이용) → 해학적

특징 ④
숫자를 활용한
구체적·과장적 표현

특징 ⑤
삶의 어려움이 드러남.

대구법

05

[A]는 '형님 온다/형님 온다/분고개로/형님 온다.'처럼 4음보로 끊어 읽고, 4글자씩 규칙적으로 배열해 운율을 형성한다. 또한 'A(형님 온다)-A(형님 온다)-B(분고개로)-A(형님 온다)'의 구조로 '형님 온다'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06

㉠ 2번이 답인 이유

'오 리', '십 리' 등 구체적인 숫자를 활용하여 시집살이의 힘들음을 과장함으로써 강조하여 드러내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는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떡할까'라는 동생의 물음에 대한 '시집살이 개집살이'라는 형님의 답변이 드러난다.
- ③ ㉠에서 '시아버니(시아버지)'를 비유한 '호랑새'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새', '시어머니'를 비유한 '꾸중새'는 '꾸중을 많이 하는 새', '동세(동서)'를 비유한 '할림새'는 '고자질을 잘 하는 새', '시누'를 비유한 '뽕중새'는 '성격이 모나고 까다로운 새', '시아지비(시아주버니)'를 비유한 '뽕중새'는 '무뚝뚝하고 통명스럽게 꾸중하여 상대하기 어려운 새', '남편'을 비유한 '미련새'는 '미련한 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 시댁 식구들을 새에 비유해 시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낸 구절이다.
- ④ ㉠은 시댁 식구들의 잘못을 못 듣고 못 본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당시 며느리의 제약을 표현한 부분이다.
- ⑤ ㉠에서 화자는 괴로운 시집살이 이후 자신의 용모가 배꽃에서 호박꽃이 되었다며 현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07~09 개념으로 작품 읽기

누항사·박인로

임진왜란 이후 형편이 어려워진 사대부의 현실을 담고 있는 가사야.
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흥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 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썩으로 삼아

서호 밥(夕火) 닷흙죽(粥)에 연기(煙氣)도 자옥하다

설 대운 승냥(승냥)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러한들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한 바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 서사: 길흥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낙도하며 살고 싶은.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 간(天地間)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괴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의(義)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루와 주머니에 줌뭉이 모아 넣고

전쟁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있어

주검 밟고 피를 건너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 본사①: 전쟁에 임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을 떠올림.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라

수염이 긴 노비는 노주분(奴主分)을 잊었거든

봄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 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을런가

손수 농사짓기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중략)

구디 다든 문 밧기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춤 아합이를 양구(良久)토록 호운 후에

어화 귀 뉘신고 염치업산 니옴노라

▶ 본사③: 가뭄에 언뜻 내리는 비를 보고 밭을 갈러 소를 빌리려 감.

초경도 거윈디 그 엿지와 겨신고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잔마는

소 업슨 궁가(窮家)에 해염 만하 왓삽노라

공하니나 갑시나 주엄 죽도 한다마는,

다만 어제밤의 거넌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泥)게 꾸어 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하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합넌고,

내일(來日)로 주마 하고 큰 언약(言約) 하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홀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彩)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뿐이로다. (후략)

영탄적 표현: 개에게도 무시당하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한탄함.

가사의 특징

~ 4음보 연속체
~ 3·4조, 4·4조의 음수율

후기 가사의 특징 ①
~ 2·3조, 2·4조 등 자유로운 형식
~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가난한 현실의 어려움, 농사)

□: 화자의 궁핍한 처지를 보여 주는 소재
○: 화자가 사대부로 서 추구하는 가치

후기 가사의 특징 ②

~ 4음보로 보기 어려운 자유로운 형식

| 현대어 해석 |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은 나보다 더한 사람 없다. / 길흥화복을 하늘에 맡겨 두고 / 누추한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 두고 / 아침 저녁 비바람에 썩은 짚이 썩이 되어, / 세 홉 밥, 닷 흙죽에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 덜 데운 승냥에 빈 배를 속일 뿐이로다. / 생활이 이러하다고 장부가 품은 뜻을 바꿀 것인가. / 가난하지만 편안하여, 근심하지 않는 마음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넉넉하며 /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이라고 술이 담겨 있겠느냐. / 가난한 인생이 이 세상에 나뿐이라. / 굶주리고 헐벗음이 절실하다고 굳은 마음을 잊을 것인가. / 의에 분발하여 제 몸을 잊고 죽어야 그만두리라 마음을 먹어 / 전대와 망태에 한 줌 한 줌 모아 넣고 / 임진왜란 5년 동안에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는 혈전을 몇 백전을 지내었는가. / 내 몸이 여유가 있어 집안을 돌보겠는가? / 긴 수염이 난 종은 종과 주인 간의 분수를 잊었는데 / 하물며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 주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 밭 갈기를 종에게 묻고자 한들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나의 분수인 줄을 알겠도다. / (중략) / 굳게 닫은 문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 큰 기침으로 “에헴”을 오래도록 한 후에 / “어, 거기 누구신가?” 문기에 “염치없는 저옵니다.” /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 어찌 와 계십니까?” / “해마다 이렇게 하기 구차한 줄 알지마는 /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 “공짜로나 값을 받거나 빌려 줌직도 하지마는, /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사람이 / 목이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이 끓어오르게 구워 내고 /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값을 것인가. / 내일 소를 빌려 주마 하고 굳게 약속하였기에 /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하기 어렵구려.” / 진실로 그렇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 현 모자를 숙여 쓰고 죽 없는 집신을 신고 맥없이 어슬렁어슬렁 물러나오니 /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만 짖을 뿐이로다.

- 화자는? 임진왜란 이후, 형편이 어려워진 사대부인 ‘나’
- 시적 상황은? 자연에서 안빈낙도하며 살고자 함. 소를 빌려 농사를 지으려 했다가 거절당함.
- 어조는? 설의적(‘내 삶이 이러한들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영탄적(‘풍채(風彩)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뿐이로다’)
- 정서나 태도는? 유교적 가치(‘안빈 일념’)를 지향하는 태도를 보임.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
- 주제는?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궁핍한 생활상, 빈이무원(貧而無怨)하며 충효, 우애, 신의를 나누는 삶의 추구

핵심 정리

- 갈래: 후기 가사, 양반 가사, 은일 가사, 정경 가사
- 연대: 조선 광해군 3년(1611년)
- 형식상 특징: ① 4음보 연속체 ② 2·3조, 2·4조, 5음보 등 자유로운 형식 ③ 낙구가 시조의 종장의 형식과 일치하는 정경 가사
- 의의: 강호가도를 노래한 전기 가사와 다른 방향을 제시한 작품임.

| 이 시의 전체 짜임 |

서사	길흥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낙도하며 살고 싶은. <수록 부분>
본사	전쟁(임진왜란)에 임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일을 떠올림. <수록 부분> 가뭄에 언뜻 내리는 비를 보고 밭을 갈러 소를 빌리려 감. <수록 부분> 소를 빌리려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옴. <수록 부분> 집에 돌아와 처지를 한탄하다 농사를 포기함. 자연에 묻혀 늙어 가기를 소망함.
결사	가난한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에 묻혀 살며 유교적 가치를 지향하고자 함.

07

㉮ 4번이 답인 이유

〈누항사〉는 가사로 조선 후기에 박인로가 창작한 작품이다. 백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구전된 갈래는 민요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작품은 대부분 4음보로 읽힌다. 시조와 유사한 음보율을 가지며, 음보율이 느껴지기 때문에 운문의 성격을 지닌다.
 ② 이 작품이 속하는 갈래는 가사로, 가사는 ‘서사-본사-결사’의 짜임을 갖추고 있다.
 ③ 이 작품과 같은 ‘가사’는 길이의 제약 없이 행이 늘어날 수 있다.
 ⑤ 이 작품은 후기 가사로, 후기 가사는 전기 가사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다룬다. 〈누항사〉는 궁핍한 삶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08

㉮ 4번이 답인 이유

㉮은 사대부임에도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할 만큼 어려운 화자의 경제적 처지를 드러내지만, 화자의 신분은 사대부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서 흙 밥 닷 흙 죽’은 ‘적은 양의 밥과 죽’을 의미한다. 삶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② ‘안빈 일념’은 ‘가난해도 편안히 여기고 근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자가 지키고자 하는 사대부로서의 뜻이다.
 ③ ‘몇 백 전’은 ‘임진왜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화자는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⑤ ‘염치업산 니읍노라’는 화자가 소 주인에게 하는 말로, 농민인 소 주인에게 공손하게 말을 하고 있다. 사대부로서의 권위가 붕괴된 당대의 상황을 보여 준다.

09

㉮ 4번이 답인 이유

“풍채(風彩)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뿐이로다.”에서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개에게도 무시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A]에서 감정 이입은 나타나지 않았다.
 ② 화자와 소 주인의 대화를 인용한 대화체가 나타날 뿐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설피설피’라는 의태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로써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개 짖는 소리’라는 청각적 소재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로써 화자와 다른 사람의 정서를 대조하지는 않았다.

03 고전 시가의 주제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104~105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총의, 호도 (2) 강호가도 (3) 탐관오리
 2 (1) ○ (2) X (3) X 3 이별

01 ② 02 ① 만고 ④ 유수 ⑤ 만고상청 03 ④ 04 ⑤

05 ① 구체화(구체적 형상화) ④ 밤 06 ⑤ 07 초여름이라 농민들이 남
 녀노소 가리지 않고 농사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도산십이곡_이항

사대부가 쓴 연시조야. 학문 수양 의지와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 부분을 찾으며 읽어 보자.

이런들 엇더히며 더런들 엇더히로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히로

히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肱)을 고타 므슴히로

설의법으로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함.

▶ 제1곡: 아름다운 자연에 순응하며 순리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히니 자연이 듯기 조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히니 자연이 보디 조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하에.

임금을 향한 유교적 가치인 ‘중’이 드러남.

▶ 제4곡: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임금을 그리워함.

청산(靑山)은 엇제히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제히여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노고

대구의법을 사용 해 자연의 불변성을 예찬함.

우리도 굿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히리라

설의법으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강조

자연은 본받아 자기수양 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남. → 강호한정, 강호가도

▶ 제11곡: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

- 화자는? 표현에 ‘우리’로 드러남. 자연 속에서 사는 인물임.
- 시적 상황은? 자연 속에서 과거의 삶을 성찰하며, 학문에 정진하려 함.
- 어조는? 회고적(‘더욱 닛디 못하에’), 예찬적(‘굿디 아니노고’), 의지적(‘만고상청 히리라’)
- 정서나 태도는? 달관적(‘이런들 엇더히며 더런들 엇더히로’), 자연 친화적 태도, 의지적 태도
- 주제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추구하고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핵심 정리

- 갈래: 연시조, 평시조 • 연대: 조선 명종 20년(1565년)
- 형식상 특징: 《도산십이곡》이라는 제목 아래에 6곡(수)의 〈언지(言志)〉와 6곡(수)의 〈언학(言學)〉으로 구성된 연시조
- 의의: 시조의 성장과 발전에 유학자들이 기여했음을 알 수 있음, 성리학적 이념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함.

| 이 시의 짜임 |

언지(1~6곡) (1곡, 4곡 수록)	자연에 대한 지극한 사랑(‘천석고황’) 유교적 관념(‘피미일인’에 대한 그리움)	→ 사대부들의 성리학적 이상
언학(7~12곡) (11곡 수록)	학문 수양을 향한 다짐	



01

㉮ ②번이 답인 이유

〈제1곡〉의 ‘천석고황’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며, 화자는 ‘고려 뜨슴호료’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이 병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오답 피하기

- ① 화자는 자기 자신을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조아우생’으로 칭하며 겸손하게 표현한다.
- ③ 화자는 ‘유란’과 ‘백운’을 ‘덧기 조’이며 ‘보디 조’는 대상으로 여기므로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 즉 ‘강호한정’을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피미일인을 더욱 닳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금에게 ‘연군 지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화자는 〈제11곡〉에서 자연을 영원불변의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자기 수양의 본보기로 여겼던 사대부의 관념을 따른 것이다.

02

〈제11곡〉에서 화자는 ‘청산’을 ‘만고에 프르르’다고 표현하고, ‘유수’는 ‘주야에 굶지 아니’한 대상으로 본다. 화자는 ‘청산’과 ‘유수’의 영원함을 예찬하고, 이들을 본받아 학문 수양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고상청’이라는 시어로 집약해 드러낸다.

03~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동지·동 기나긴 밤을_ 황진이

조선 시대 유명한 가객이자 기녀인 황진이가 쓴 시조야.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살펴보자.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뽀구뽀** 퍼리라

사랑을 주제로 함.

임과 오래 있고
심은 마음을 추상
적 개념을 구체화
하여 표현함.

음성 상징어를 통해 우리 말의 묘미를 드러냄.

- 화자는? 임을 기다리는 인물
- 시적 상황은? 임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혼자 있는 시간을 질라 저장해 두고 싶어 함.
- 어조는? 낭만적
- 정서나 태도는? 임에 대한 사랑과,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마음을 진술하게 드러냄.
- 주제는? 임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

해심 정리

- 갈래: 평시조, 기녀 시조 • 연대: 조선 중기
- 형식상 특징: ① 4음보, 3·4조의 음수율이 드러남.
② 사랑에 대한 섬세하고 진술한 심리가 드러남.
- 의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냄, 사대부의 시조와는 다른 보편적인 미의식을 드러냄.

| 이 시의 짜임 |

동짓달 긴 밤의 한 허리를 베어 냄.

부정적 시간의 단축

임이 오면 베어 놓은 것을 펼침.

긍정적 시간의 연장

03

㉮ ④번이 답인 이유

이 시의 화자는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늘어감을 한탄하며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화자의 곁에 임이 없는 부정적 시간인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과 화자와 임이 함께 있는 ‘어른 님 오신 날 밤’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니불(이불)’을 ‘춘풍(봄바람)’에 비유함으로써 이불의 따스함을 부각한다.
- ③ ‘서리서리’, ‘구뽀구뽀’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다.
- ⑤ ‘효’, ‘충’, ‘지조’ 등 당시 중시되었던 유교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사랑’을 시의 주제로 삼고 있다.

04

㉮ ⑤번이 답인 이유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이 시와 주제가 유사한 것은 ⑤로 ‘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홍랑의 시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③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 ②, ④ 유교적 가치인 ‘충의’를 노래하고 있다.

05

‘밤’은 ‘시간’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추상적 관념이지만, 이를 마치 허리가 있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표현해 ‘한 허리를 버혀 내어’라고 표현했으므로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에 해당한다.

06~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농가월령가_ 정철

농촌에서 각 달에 해야 할 농사일과 세시 풍속 등을 노래한 월령체 가사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자.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비 온 끝에 별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빠꼭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꽤**어 나니 **꼬꼬리** 노래한다

▶ 1~4행: 시적 상황을 제시함.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단았도다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 5~7행: 농민기 농촌의 모습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록**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논을 **씨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

- 명령형 어미(‘-소’)와 청유형 어미(‘-세’)로 농사일을 구체적으로 권유함.

▶ 8~11행: 길쌈과 농사일을 권유함.

- 화자는? 농사일을 권유하는 사람
- 시적 상황은? 사월 초여름 입하, 소만 절기를 맞아 백성들에게 농사일을 권유하고 있음.
- 어조는? 청유적(‘하소’의 반복)
- 정서나 태도는? 농민들을 가르치려고 함.
- 주제는? 각 달과 절기에 따른 농사일과 세시 풍속의 소개

핵심 정리

- 갈래: 후기 가사, 월령체 가사 • 연대: 조선 후기
- 형식상 특징: ① 4음보 연속체, 3·4조 혹은 4·4조의 음수율
② 매 달에 따른 시상 전개
- 의의: ① 우리말로 농업 기술 보급을 시도한 월령체 노래 중 가장 규모가 큼.
② 조선 시대의 생활사와 풍속사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이 시의 짜임

서사	당시 쓰이던 절기 구분 방법과 천체의 운행에 대한 설명
정월령	절기와 1년 농사 준비하는 방법, 설과 보름의 풍속에 대한 설명
2월령	절기와 논밭 갈기, 가축 기르기, 약초 캐기에 대한 설명
3월령	씨 뿌리기, 과일나무 접붙이기, 장 담그기에 대한 설명
4월령	다른 농작물 심기(수록 부분), 벌통 나누기, 고기 잡기에 대한 설명
5월령	난알 거두기, 고치 치기의 권유, 그네뛰기 풍속 설명
6월령	밭 고랑에 흙 올려 주기, 간장과 된장 관리, 길쌈하기를 권유, 유두 풍속
7월령	견우 직녀의 이별 이야기를 다룸, 김 매기, 벌초하기를 권유
8월령	곡식의 수확과 한가위 풍속에 대한 소개
9월령	추수의 이모저모와 이웃 간의 온정 소개
10월령	집안과 동네 화목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11월령	매주 쓰기, 거름 준비하기의 권유, 동지의 풍속 설명
12월령	새해 준비와 묵은 세배하기
결사	농업에 힘쓰기를 권함.

06

㉠ 1번이 답인 이유

화자는 좋은 날씨에 농사일을 열심히 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이 시에서 농민의 괴로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수수 동부 녹두 참깨’와 같은 먹는 것을 위해 ‘농사’짓는 일과, 입는 것을 위해 ‘누에치기’를 하고 ‘목화’를 가꾸며 ‘길쌈’하는 일 이 드러난다.
- ② 농사일을 권유하는 말투로 보아 농촌의 노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음력 4월 초여름에는 ‘수수, 동부, 녹두, 참깨’를 심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 ④ 작품의 배경은 농부가 노동하는 삶의 공간인 농촌이다.

07

제시된 부분은 음력 사월 초여름이 되는 시기로 농사와 누에치가 한창인 농번기이다. 초여름이라 농민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농사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문이 적막한 것이다.

꿈엔들 잊힐리야 수능 다가가기

p.108~111

01 ⑤ 02 ③ 03 ① 04 ④ 05 ⑤ 06 ③

작품 분석하기

[108쪽 가]

구분	내용	알 수 있는 시어/시구
갈래	평시조, 연시조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나’	‘내 몸을 내 마저’, ‘이 몸이’
대상	자연	‘강산과 바깥싸냐’
처지·상황	정계를 은퇴하고 자연에 귀의함.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흘던질 제’ ‘헛겔고 싣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 필마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정서·태도	• 부귀와 공명에 뜻을 두지 않음. • 세상의 괴로움과 근심을 잊음. •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강조 한정)	‘공명도 잊었노라 부귀도 잊었노라’ / ‘세상 번 우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 ‘삼공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깥싸냐’ / ‘이 몸이 이 청흙 가지고 만호후인을 부러우라’ / ‘아무리 매인 새 놓인 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주제	자 연	속에서 즐기는 여유와 풍류

[108쪽 나]

구분	내용	알 수 있는 시어/시구
갈래	한시	
화자	보리타작 풍경을 관찰하는 이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
대상	보리타작 풍경	시의 제목인 ‘보리타작’
처지·상황	식후에 장단에 맞추어 보리타작하는 풍경을 바라봄.	‘밭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정서·태도	• 풍경에서 즐거움을 느낌. • 몸과 마음이 조화됨을 느낌. • 이곳이 낙원이라고 생각함. • 지난날 벼슬살이를 후회함.	‘그 가색 살펴보니 즐거움이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에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었는가.’
주제	노동에서 얻는 삶의 즐거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110쪽]

구분	내용	알 수 있는 시어/시구
갈래	전기 가사, 양반 가사, 정격 가사	
화자	표면에 드러난 여성 화자 ‘나’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사랑하시니’ / ‘을 적에 빚은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三年)일세 / 연지분(鰾脂粉) 있다마는 누굴 위해 곱게 할까’
대상	화자가 사랑하는 임	‘임 하나 날 사랑하시니’ / ‘노가는 듯 반가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 ‘임 계신데 보내고저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가실까’
처지·상황	임을 모시다가 물려나서 임과 이별한 상황	‘잇그제 임을 모셔 광한전(廣寒殿)에 올랐는데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을 적에 빚은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三年)일세’
정서·태도	• 임을 그리워함. • 임과의 이별을 괴로워하고 슬퍼함. •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함.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로이 그리는가’ ‘마음에 맺힌 시를 침침이 쌓여 있어 짓는 것이 한숨이오 지는 것이 눈물이라’ ‘저 매화(梅花)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저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가실까’
주제	임 금	을 향한 일편단심, 연군지정



01~03

2016학년도 3월 고1 학력평가

가 김광옥, 〈율리유곡〉

주제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 속에서 지내는 여유와 풍류
해제 작가가 만년에 도연명의 '귀거래'를 본받아 '율리'라는 곳에 은거하면서 지은 17수의 연시조로, 벼슬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노래한 작품이다. 작가는 당대의 정치 현실에도 관심을 보이며 나라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있지만, 자신은 강산풍월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공명(功名)도 잊었노라 부귀(富貴)도 잊었노라

세상 번우(煩憂)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내 몸을 내마져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지적 화자

▶ 제2수: 세속적 가치를 잊고 세상과 단절하고픈 마음

~: '잊었노라'를 반복해 세속적 가치에서 멀어지고픈 심리를 표현함.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님새대를 훌터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 제8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 설의적 표현으로 자연을 지향하는 마음을 강조함.

헛글고 잊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설의적 표현 - 매우 시원함을 강조

▶ 제10수: 관직에서 벗어난 해방감

파임

2수	세속적 가치를 잊고 세상과 단절하고픈 마음
8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
10수	관직에서 벗어난 해방감

특징

- 일상의 어휘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임.
- 공간을 대비하여 현재 삶의 만족감을 표현함.
- 설의적 표현으로 자연에서의 만족감을 드러냄.

나 정약용, 〈보리타작〉

주제 노동에서 얻는 삶의 즐거움과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해제 보리타작이라는 공종 작업에 몰두하는 농촌 현장을 바라보며, 노동 속에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는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그리고 육체와 정신이 합일된 노동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표상임을 제시하면서 벼슬길에서 해매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다. 평민의 삶과 관련 있는 시어들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엩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농민의 건강한 모습을 묘사한 대목

웅해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지적 상황이 드러남(보리타작을 지켜보는 시적 화자).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보리타작(노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 5~8구: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모습

▶ 9~10구: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 인한 노동의 즐거움

□: 농민, 농사와 관련된 소재를 사실적으로 나열함.

~: 노동의 즐거움을 청각적으로 표현함.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 농촌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겠는가.

설의적 표현 - 반성적 태도

▶ 11~12구: 지난날 관직 생활에 대한 반성

파임

기(1~4구)	노동하는 농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모습	선경
승(5~8구)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역동적인 정경	
전(9~10구)	정신과 육체의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 노동의 즐거움	후정
결(11~12구)	지난 날 관직 생활에 대한 반성	

특징

-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가 나타남.
- 농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중농주의 실학사상과 사실주의 시 정신이 잘 드러남.
- 농촌의 노동을 생생하게 그려 냄.

01 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⑤ 정답률 53%

㉠ ⑤번이 답인 이유

⑤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가)에서는 '남이 아니 잊으랴', '강산과 바꿀쏘냐',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이토록 시원하랴' 등 물음의 형식(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연에서 만족하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나)에서는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겠는가'라는 물음의 형식(설의법)을 활용하여 지난날의 벼슬살이를 반성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화의 형식을 통해/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가) X (나) X

→ 청자와 말을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은 (가), (나)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연쇄법을 활용하여/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 X (나) X

→ 연쇄법은 앞 구절의 끝부분을 뒤 구절 앞부분에서 반복하는 것인데, (가), (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③ 직유법을 사용하여/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가) X (나) O

→ (나)의 '젓빛처럼 뿌엩고'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막걸리의 빛깔을 표현하였지만, (가)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의인화를 통해/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가) X (나) X

→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화는 (가), (나) 모두에 드러나 있지 않다.

개념의 좌표 찾기

- 대화의 형식 (→19쪽)
- 연쇄법 (→47쪽)
- 의인화 (→41쪽)
- 설의법 (→48쪽)
- 예찬 (→23쪽)
- 직유법 (→41쪽)
- 대상에 대한 친밀감 (→55쪽)

02 시어(시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③ 정답률 43%

㉮ ③번이 답인 이유

③ ㉮: 고된 삶을 살아왔던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검게 탄 두 어깨’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보리타작하는 농민의 어깨’로 농민의 건강한 삶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로써 고된 삶을 살아왔던 화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 세속적 가치에 대한 욕심을 버린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공명도 잊었노라 부귀도 잊었노라’에서 ‘공명’과 ‘부귀’는 세속적 가치에 해당한다. 그러한 세속적 가치를 잊었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버린 태도에 해당한다.

② ㉮: 관직 생활에서 벗어난 화자의 해방감이 표출되어 있다.

➡ ‘헛글고 잊근 문서’는 관직 생활을 뜻한다. 화자는 그런 관직 생활에서 벗어난 심리를 매인 새가 풀려난 것에 빗대어 표출하고 있다.

④ ㉮: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담겨 있다.

➡ 화자는 노랫가락에 맞춰 보리타작하는 농민의 즐거운 모습을 보고 몸과 마음이 조화되었음을 느끼고,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라고 평가하고 있다.

⑤ ㉮: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농민들이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곳이 낙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벼슬살이를 하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달관·초월 (→22쪽)

• 성찰 (→24쪽)

03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① 정답률 70%

보기

작품에서 공간은 화자가 위치한 구체적인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기도 하다. (가)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 (나) 몸과 마음이 조화된 노동하는 삶
다. (가)와 (나)에 설정된 시적 공간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가) 자연(강산) (나) 노동의 현장인 마당

㉮ ①번이 답인 이유

① ㉮는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 공간이고, ㉮는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는 공간이다.

➡ (가)의 ‘강산’은 화자가 자연과 벗하는 유유자적한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나)의 ‘마당’은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공간으로 화자는 이곳에서 농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② ㉮는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이 담긴 공간이고, ㉮는 빈곤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공간이다.

➡ (가)의 화자는 강산에서 ‘삼공’, ‘만호후’로 대변되는 부귀공명이 부럽지 않다면서 조각배에서 낚시를 하는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마당에 빈곤한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담겨 있지 않다.

③ ㉮는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나타난 공간이고, ㉮는 삶의 애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이다.

➡ (가)에서 화자의 궁핍한 처지가 드러나지 않으며, (나)에서 화자가 삶의 애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④ ㉮는 힘겨운 상황에 대한 저항 의지가 담긴 공간이고, ㉮는 현실과의 타협을 통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공간이다.

➡ (가)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나)의 ‘마당’에도 내적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려는 모습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는 내적 욕구에 대한 자기 절제가 반영된 공간이고, ㉮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출된 공간이다.

➡ (가)의 ‘강산’에는 자연과 함께하려는 내적 욕구가 절제되지 않고 표출되어 있으며, (나)의 ‘마당’에서는 화자가 농민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모습을 반성할 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지는 않는다.



04~06

2013학년도 11월 고1 학력평가

정철, <사미인곡>

주제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연군지정

해제 당파 싸움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전남 창평에 머무르면서 쓴 가사이다. 임금을 그리는 초조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별한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에 의탁하여 읊은 것이 특징이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작가 자신을 임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으로, 임금(선조)을 임으로 설정하여 외로운 신하의 처지와 변함없는 충정을 애절하게 노래하였다.

이 몸 생겨날 때 임을 따라 생겼으니

한평생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건줄 데 전혀 없다

평생(平生)에 원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늘어서야 무슨 일로 외로이 그리는가

옛그제 임을 모셔 광한전(廣寒殿)에 올랐는데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올 적에 빛은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三年)일세

연지분(鰐脂粉) 있다마는 누굴 위해 곱게 할까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짓는 것이 한숨이오 지는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有限)한데 시름도 끝이 없네

무심(無心)한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하느구나**

계절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고 많다

동풍(東風)이 살짝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梅花)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득이나 냉담한데 안향(暗香)은 무슨 일인가

황혼(黃昏)녘에 **답이** 돌아 베갯말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梅花)**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저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 본사1: 봄을 맞아 임에게 변함없는 충정을 알리고 싶음.

짜임

구성	전개 내용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수록 부분>
본사	봄 임에게 변함없는 충정을 알리고 싶음. <수록 부분>
	여름 자신의 외로운 심사와 임에 대한 정성을 알리고 싶음.
	가을 임이 선정(善政)을 하기를 기원함.
	겨울 외로움과 임에 대한 걱정
결사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은 충정

특징

- 남성 작가가 여성의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와 정서를 전달함. (군신 관계보다 남녀 관계가 더 보편적이므로 독자들이 공감하기 쉽기 때문에)
- 계절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계절감이 드러나는 자연물을 소재로 사용)
- 계절별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형상화한 소재를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냄.

계절별 주요 소재에 담긴 상징적 의미

계절	소재	상징적 의미
봄	매화	임에 대한 화자의 충정
여름	못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
가을	청광(달빛)	임의 선정(善政)을 소망(화자의 충정)
겨울	양춘(봄별)	임에 대한 화자의 염려

'매화, 못, 청광, 양춘'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형상화한 객관적 상관물

04 표현상 특징과 효과

정답 ④ 정답률 83%

㉠ 4번이 답인 이유

④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연지분(鰐脂粉) 있다마는 누굴 위해 곱게 할까.”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고사를 활용하여 /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고사를 사용한 부분이 없고, 풍자를 사용한 부분도 없다. 이 작품의 주된 정서는 대상(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②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색채 대비는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사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하여 /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 사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없다. 또한 ‘동풍’이나 ‘달’에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생동감과과는 거리가 멀다.

⑤ 상승과 하강의 심상을 반복하여 /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광한전에 올랐다가 하계에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이를 반복하여 표현하지 않았으며,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상황만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개념의 좌표 찾기

- 고사의 활용(→217쪽)
- 색채 대비(→35쪽)
- 묘사(→131쪽)
- 설의적 표현(→48쪽)
- 풍자(→133쪽)
- 시적 긴장감(→55쪽)
- 생동감(→55쪽)
- 상승과 하강의 심상(→36쪽)

05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⑤ 정답률 89%

보기

이 작품은 ‘적강 모티프’를 취하고 있다. ‘적강’이란 천상적 존재가 천상에서 지은 죄과로 말미암아 지상으로 유배 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천상계에서 임의 사랑을 받다가 지상계로 쫓겨 와 임을 그리워하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천상계는 화자가 과거에 존재했던 공간이자 충족의 공간으로, 지상계는 화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자 결핍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 ⑤번이 답인 이유

⑤ ㉔은 지상계로 화자를 쫓아낸 대상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 <보기>에서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한숨’과 ‘눈물’은 지상 세계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지내는 화자의 슬픔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상’인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㉓은 화자가 천상계에서 임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던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군.
 ➔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천상계에서 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였고, ㉓은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㉒은 화자가 적강하여 임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군.
 ➔ 화자가 적강하여 지상계인 ‘하계’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심정이 ㉒으로 표현되었다.
- ③ ㉑은 화자가 과거에는 천상계에 존재하다가 현재는 지상계로 쫓겨왔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보기>의 천상계와 지상계는 ㉑에서 각각 ‘광한전’, ‘하계’와 연결된다. 화자는 ‘광한전’에 있다가 ‘하계’로 내려왔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④ ㉔은 임이 없는 결핍의 공간에서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겠군.
 ➔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현재 ‘결핍의 공간’(하계)에 있으며, 임이 곁에 없기 때문에 화장할 필요가 없다는 상실감을 ㉔로 나타내었다.

📍 개념의 좌표 찾기

• 적강(→199쪽)

06 시어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③ 정답률 90%

💡 ③번이 답인 이유

- ③ ㉔는 화자에게 부재하는 대상을 떠오르게 하는 자연물, ㉒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연물이다.
 ➔ ‘임이신가 아니신가’를 통해 ‘달’이 임을 떠오르게 하는 자연물임을 알 수 있고, ‘임 계신 데 보내고저’를 통해 ‘매화’가 화자의 임에 대한 그리움과 정성을 의미하는 자연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㉔는 대상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㉒는 대상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반영한다.
 ➔ 화자는 ㉔를 보고 임을 떠올리고 있으나 이로써 대상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㉒는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정성이므로, 대상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 ② ㉔는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징하는 소재, ㉒는 화자의 심리적 방향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㉒는 화자의 심리적 방향을 유발하지 않는다.
- ④ ㉔와 ㉒는 모두 현실에서 겪어야 할 외부적 시련을 상징한다.
 ➔ ㉔와 ㉒는 현실에서 겪어야 할 외부적 시련과 관련이 없다.
- ⑤ ㉔와 ㉒는 모두 부정적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화자의 현재 모습을 나타낸다.
 ➔ ㉔와 ㉒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화자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화자는 임에게 ㉒를 보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하려 하고 있다.

📍 개념의 좌표 찾기

- | | |
|-----------------|----------------|
| • 상징(→43쪽) | • 정서 자극물(→54쪽) |
| • 화자의 대리물(→53쪽) | • 체념(→21쪽) |



III. 현대 소설

01 서술자와 시점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118~121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서술자 (2) 시점 (3) 초점 화자

2 ㉠: 1인칭 주인공) ㉡, ㉢: 1인칭 관찰자) ㉣, ㉤: 전지적 작가) ㉥, ㉦: 3인칭 관찰자) ㉧

01 1인칭 관찰자 시점 02 ③ 03 ⑤ 04 ② 05 ② 06 ④ 07 ⑤ 08 ⑤ 09 ③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달밤_이태준

1인칭 관찰자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나'가, 모자라고 우둔하지만 천진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각박한 세상에 부딪히면서 실패를 거듭하며 아픔을 겪는 모습을 전달해 주는 작품이다. '나'는 황수건이 학교 급사, 신문 보조 배달원, 참외 장사 등의 일을 하지만 계속 좌절하고 상처를 입는 일화를 나열하여, 순박한 인물인 황수건이 사회와 일상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비극적인 분위기로 흐르지 않는데, 이는 어수룩한 황수건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한편,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에 대해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냄으로써 황수건의 천진하고 순박한 성격을 두드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 인물은? 서술자인 '나', 모자라지만 천진한 성품을 지닌 '황수건'
- 상황은? '나'는 '황수건'이 곤란하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줌. 황수건은 고맙다며 참외를 주고 그 후 나타나지 않음. '나'는 황수건의 아내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음. 다시 나타난 황수건은 '나'에게 포도를 줌. 나는 그의 고마워하는 마음을 받아들임.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모자라지만 천진한 성품을 지닌 '황수건'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 대하여 연민을 느낀.
- 주제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못난이 황수건에 대한 연민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일제 강점기(1930년대) • 공간: 서울 성북동

특징

- 작가의 서정성과 인정이 잘 드러남.
- 섬세하고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형상화함.

전체 줄거리

발단	문안에서 성북동으로 이사온 '나'는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만나 이곳이 시골임을 실감하게 된다.
전개	정식 배달부가 소원인 신문 보조 배달부 황수건이 급사에서 쫓겨나 형님 집에 얹혀살게 되는 행적을 듣게 된다.

위기	황수건은 보조 배달부 자리마저 빼앗기고 급사로 다시 들어갈려 하지만 실패한다. '나'는 그에게 삼 원을 주며 참외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수록 부분)
절정	황수건은 참외 장사마저 실패하고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가출을 한다. (수록 부분)
결말	'나'는 달밤에 담배를 피우며 서툴게 노래를 부르는 황수건을 목격하고 연민을 느낀다.

01

이 소설은 작품 안에 등장하는 서술자 '나'가 주인공 황수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한다.

02

㉠ ③번이 답인 이유

'나'는 보통 사람보다 좀 모자라지만 순박한 황수건을 따뜻한 연민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황수건은 '나'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황수건은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나'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삼 원을 준 '나'에게 참외와 포도를 갖다 주는 모습에서 황수건이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남편만 남 같으면 ~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라는 부분에서 황수건이 보통 사람보다 좀 모자란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삼 원 돈에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가는 모습, '나'에게 참외와 포도로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에서도 순박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 달아난 것이라 한다." 부분에서 황수건이 장사에 실패하고 아내가 도망가는 아픔을 겪었다는 사연을 '나'가 전해 들었음이 나타난다.

03

㉡ ⑤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은 작품 속의 부수적 인물인 '나'가 주인공 '황수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가 듣거나 관찰한 내용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처지와 심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는 황수건의 처지와 심리를 추측해야 하며 이는 독자에게 긴장감, 신비감을 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치숙_채만식

못 미더운 서술자인 '나'가 지식인 아저씨를 비판하는 구조로 작가가 어떤 효과를 거두려 했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저씨의 좌절을 못 미더운 서술자인 조카 '나'의 눈으로 포착

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정교한 묘사나 구성 대신 함축적인 대화를 통해 서술되고 있으며, 풍자적이고 반어적인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작가는 '나'의 시선을 통해 아저씨의 비현실적 사고방식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나'의 가치관을 은근히 비판하면서 오히려 아저씨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칭찬과 비난을 서로 역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현실 순응형 인물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인 아저씨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지는 않음으로써 아저씨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 인물은? 서술자인 '나',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폐인이 된 지식인 아저씨
- 상황은? '나'는 일제 강점기에 사회주의 운동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 좌절 끝에 폐인이 되다시피 한 아저씨를 독백적으로 소개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서술자인 '나'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하며,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아저씨를 반어적이고 냉소적인 어조로 비판하고 있음.
- 주제는? 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하려는 '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의 갈등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일제 강점기 • 공간: 서울

특징

- 못 미더운 서술자를 통해 현실을 이중적으로 풍자함.
- 대화적 문체를 통해 '나'와 '아저씨'의 가치관을 비교함.

전체 줄거리

발단	화자인 '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 지금은 폐병으로 앓아누워 있는 아저씨를 소개한다. <수록 부분>
전개	'나'는 대학교까지 나와서 전과자가 된 아저씨와, 폐인이 된 남편을 수발하는 어질고 부지런한 아주머니 모두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한다. <수록 부분>
위기	'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종업원으로, 곧 자립하여 일본에 가서 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나'의 계획은 아저씨 때문에 방해 받는다.
절정	'나'는 아저씨의 한심한 행태를 정면에서 비판한다. 그러나 아저씨는 오히려 '나'가 세상 물정, 즉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모른다고 힐난한다.
결말	'나'는 아저씨 같은 사람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살아나 걱정이다.

04

㉮ 2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안의 서술자 '나'가 아저씨, 즉 오촌 고모부가 살아온 삶과 근황에 대해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서술자 '나'가 자신의 과거 삶을 회상하는 내용이 아니라, '아저씨'의 과거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내용이다.
- ③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이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05

㉮ 2번이 답인 이유

아저씨가 막벌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쨌다고 그걸 끝내 하지 못해서 그 발광이고?”라는 '나'의 서술을 볼 때, 아저씨는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계를 책임지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이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도 전문학교나 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 이 길로 들어선 게 다행이다 …… 이런 생각이 들어요.”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조금 바சி시 살아날 만하니까 ~ 그걸 끝내 하지 못해서 그 발광이고?”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라라는 게 무언데? ~ 제 분수대로 편안히 살두록 애써 주는 게 나라 아니오?”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

㉮ 4번이 답인 이유

서술자 '나'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만족하는 현실 순응적 인물로, 올바른 사회의식이나 현실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독자는 그런 '나'가 사회주의 운동가인 아저씨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아저씨를 긍정적인 인물로 바라보게 된다.

오답 피하기

- ① '나'가 어린아이가 맞긴 하지만, 현실 순응적이고 이혜타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순수함을 느끼게 해 주지 않는다.
- ② '나'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건의 암시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독자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나 '나'가 관찰, 평가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 ③ '나'가 올바르게 못한 현실 인식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독자는 '나'의 시선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 ⑤ '나'는 무지하고 어리숙한 탓에 시대 상황을 왜곡해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자에게 현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

07~09 개념으로 작품 읽기

도요새에 관한 명상_ 김원일

각 장마다 서술자가 변화함에 따라 소설의 내용 전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집중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도요새'를 매개로 동진강 하구를 배경으로 삼아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형상화하였다. 이 작품에서 도요새는 당대의 환경 오염의 실태와 민족 분단의 현실을 보여 주면서,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는 소재가 된다. 인간 중심적이고 성장 우선주의적인 1970년대 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며 산업화의 폐해를 보여 주고, 한편으로는 북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온 실향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는 이 작품은, 서술자의 변화와 함께 과



거 회상과 현재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한다. 특히 서술자의 변화는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 주어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제시할 뿐 아니라 각각의 서술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각 인물의 내면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병국 → 아버지)
- 인물은? 병국(장남), 아버지
- 상황은? 병국은 학생 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된 뒤 고향에 내려와 동진강 인근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월남한 아버지는 실직한 이후 동진강 하구에서 철새(도요새)를 보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을 달랠.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병국은 1970년대 맹목적인 산업화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임. 또한 아버지는 분단으로 인한 실향민으로,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도요새를 보며 고향을 떠올리고 그리워함.
- 주제는? 비극적 역사 현실과 산업화의 폐해로 주어진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과제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1970년대 후반(아버지의 회상 부분은 6·25 전쟁 직후)
• 공간: 동진강 유역(도요새의 도래지)

특징 |

-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마다 서술자를 달리함.
(1장: 병식의 시점, 2장: 병국의 시점, 3장: 아버지의 시점, 4장: 전지적 작가 시점)
- 당대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함.

| 전체 줄거리 |

1장	재수생인 '나'(병식)는 강가에서 새를 밀렵하여 번 돈을 유흥비로 쓰면서 생활한다. '나'는 촉망받는 수재였으나 학생 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한 형(병국)에게 실망한다.
2장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나'(병국)는 낙향하여 자책감을 느끼며 생활한다. 그러던 중 자연 문제와 동진강의 새 떼에 관심을 갖고 동진강 주변의 생태계 파괴 원인을 밝히려 노력한다. <수록 부분>
3장	북에 가족을 두고 온 '나'(아버지)는 적극적이고 억척스러운 아내와 대조적인 성격으로 갈등한다. 병국이 낸 진정서 때문에 비료 회사 사람들과 군인들이 찾아오고, 병국에게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병식의 새 밀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수록 부분>
4장	병국은 새 밀렵 행위 문제로 병식과 격렬하게 다투게 된다. 이후 병국은 술집 안에서 들려오는 통일에 대한 아버지의 희망을 듣고, 도요새의 비상을 바라고 따라가지만 놓치고 만다.

07

㉮ ⑤번이 답인 이유

(나)는 아버지가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아버지는 동진강의 도요새를 보면서 북에 두고 온 가족과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는데, 이 서술 내용에서 부도덕한 면모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와 (나)의 서술자는 부자지간으로 동진강 하구를 배경으로 살면서 그곳에서 만난 도요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② (가)는 병국의 시점에서 동진강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는 아버지의 시점에서 분단으로 헤어지게 된 이북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가)에서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자유와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부분에서 서술자 ‘나’가 도요새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는 ‘병국’이 시위 때문에 퇴학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체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라며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나)는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향하여 월남하게 된 체험을 바탕으로 “철새나 나그네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 해가 갈수록 내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다.”라고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08

㉮ ⑤번이 답인 이유

병식, 병국, 아버지가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한 내용은 모두 서술자 ‘나’의 주관적 입장에서 쓰인 것이므로 병식의 서술보다 병국이나 아버지의 서술이 더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상황과 생각이 서로 다른 여러 등장인물의 시각에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그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사건의 경과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 ③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접함으로써 독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 ④ 하나의 현상을 각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참다운 삶의 가치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한다.

09

㉮ ③번이 답인 이유

㉮에서 ‘나’의 사고는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굳게 닫힌 문’의 상태이다. 이러한 ‘나’의 사고를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았다’고 했으므로 ‘나’의 의식이 도요새에 의해 각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병국의 머릿속이 도요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에서 병국과 도요새의 정서적 거리가 멀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은 병국이 도요새 무리와 만남을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의미이므로, 대상과의 재회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의 ‘새’는 실향민인 아버지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인물이 대상에게’가 아니라, ‘대상이 인물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고 있다.
- ⑤ ㉮은 자유로이 휴전선을 넘나다니는 ‘철새나 나그네새’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버지(나)의 처지가 대조되며 인물(아버지)의 안타까움과 비애의 정서가 부각되고 있다.

02 거리, 인물, 서술자의 태도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125~129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심리적 (2) 주제, 우호적, 적대적, 객관적
2 (1) ○ (2) X (3) ○ (4) X
3 ㉠ 가깝다. ㉡ 멀다. ㉢ 가깝다. ㉣ 멀다. ㉤ 멀다.

01 ① 02 ③ 03 ③ 04 ④ 05 ⑤ 06 ① 07 입체적 인물 08 ① 09 ⑤
10 ⑤

01~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꺼빠탄 리_전광용

인물의 유형과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변신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서 6·25 전쟁에 이르는 격동기의 한국 현대사를 조망하고, 사회 지도층의 위선을 통해 왜곡과 굴절의 역사를 걸어온 근대사의 비극을 폭로한 풍자 소설이다.

‘꺼빠탄’은 영어의 ‘캡틴(captain)’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로, 소련군이 북한에 주둔하면서 ‘까빠탄’이 ‘우두머리’ 또는 ‘최고’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발음이 와전되어 ‘꺼빠탄’으로 통용된 것이다. 작가는 ‘꺼빠탄 리’라는 제목을 통해 주인공이 출세와 영달에 눈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임을 암시하고 있다.

- 서술자는? 작품 밖의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이인국 박사, 브라운(미국인)
- 상황은?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의 집에 방문하여 고려청자를 선물로 주고 미국에 가기 위한 협조를 얻어 내게 되자 자신의 처세술에 만족스러워하고, 이후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기뻐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서술자는 이인국 박사가 사회 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격변기마다 대의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엄중하게 비판하고 풍자함.
- 주제는? ① 시류에 따라 변절하면서 순응해 가는 기회주의자의 삶에 대한 비판
② 출세 지향적 삶과 왜곡된 현대사에 대한 비판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1940년대 일제 강점기 말~1950년대

• 공간: 남한과 북한

| 특징 |

- ‘현재-과거-현재’의 입체적 구성 방식으로 전개됨.
- 역사적 전환기마다 변신하는 주인공의 행동을 ‘회중시계’라는 상징적 소재와 연관 지어 나타냄.

| 전체 줄거리 |

발단	처세술이 뛰어난 이인국 박사는 환자의 치료보다 환자의 경제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미국인 브라운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맞추려고 회중시계를 꺼냈다가 이인국 박사는 과거의 일들에 대한 회상에 잠긴다.
전개	이인국 박사는 일제 말기에 친일파로서 득세를 한다.
위기	광복이 된 이후에는 소련군에게 빌붙어서 위기를 모면한다.

절정	1·4 후퇴 때 월남한 이후에는 특유의 생명력으로 고난을 딛고 미국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회 지도층이 된다.
결말	이인국 박사는 브라운 씨 집에 도착하여 고려청자를 선물로 주고, 미국에 가기 위해 협조를 얻는다. 곧이어 비자가 나오고 미국에 갈 준비를 마친다. (수록 부분)

01

㉠ ①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은 작품 안에 서술자 ‘나’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1인칭 시점으로 볼 수 없으며,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성격까지 훤히 파악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인국 박사는 필듯이 기뻐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라거나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이 부풀어 올랐다.” 등의 구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02

㉡ ③번이 답인 이유

“국외로 내어 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나의 처세법은 유에스 에이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등에서 ‘이인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이 글에서 ‘이인국’에 대한 서술자의 우호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브라운 씨’는 ‘이인국’이 주는 뇌물을 받고 ‘이인국’에게 소개장을 써 주기로 한다. 서술자와 달리 이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3

㉢ ③번이 답인 이유

이인국은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후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시류에 영합해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며, 성격이 사건 전개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체적 인물이 아니라 평면적 인물 유형에 속한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이인국은 국가나 민족의 안위를 고려하기보다는, 때면 당시의 주류 세력에 빌붙어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다. 이인국이 상감진사 고려청자 화병을 브라운 씨에게 전달하면서도 “국외로 내어 보낸다는 자책감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였다.”라는 부분이나, “흥, 그 사마귀 같은 일본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 나썸이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이인국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⑤ 이인국은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환자의 건강을 살피는 의사의 전형을 벗어나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인국의 개성적인 면모라 볼 수 있다.

04

㉤ ④번이 답인 이유

㉤에는 이인국 박사가 아들과 딸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출세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혈육에 대한 걱정에만 몰



정답과 해설

두'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서술자가 이러한 이인국의 태도에 연민을 보이지도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우리나라의 귀한 유물을 브라운 씨에게 선물로 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에서 이인국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인국을 비판적으로 보는 서술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② 이인국이 자신의 처세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통해 상황이 변할 때마다 줏대 없이 시대 흐름에 맞추어 태세를 전환하는 그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냉소적으로 비꼬고 있다.
- ③ 의사로서 자기 환자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고 출세에만 몰두하는 이인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⑤ 이인국이 “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기회주의의 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지도층 대부분이 당대의 민족적 수난에도 불구하고 이인국과 같은 태도로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였음을 풍자하고 있다.

05~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감자_김동인

서술자, 인물, 독자 사이의 거리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술 시점과 거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환경 결정론에 바탕을 두고 극빈(極貧)한 삶 속에서 파멸해 가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자연주의 소설이다.

이 작품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자란 ‘복녀’라는 여인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타락해 가는 과정을 냉정하고 객관적인 3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이는 복녀의 도덕적 타락과 비극적 죽음은 일제 강점기의 가난하고 불우한 시대적 현실 때문임을 잘 드러내는 효과를 준다.

이 글은 ‘복녀’로 대표되는 1920년대 하층민 여성들의 삶과 현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 내고 있지만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민족의 빈곤과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 서술자는? 작품 밖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원래는 도덕적이고 정숙한 여인이었으나 주위 환경에 의해 타락하게 되는 복녀. 게으르고 무능한 남편, 복녀를 정부(情婦)로 삼았다가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중국인 왕 서방
- 상황은?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송충이 잡이에 나섰던 복녀가 매춘을 시작하게 되면서 타락하게 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서술자는 ‘복녀’의 도덕적 타락과 비극적 삶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음.
- 주제는? 불우한 환경이 빚어 낸 한 여인의 비극적 운명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일제 강점기(1920년대) • 공간: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

| 특징 |

- 인간의 삶과 가치관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환경 결정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함.
- 행위와 장면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속도감과 긴장감을 조성함.
- 사투리와 비속어 등 하층민의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사실성을 높임.

| 전체 줄거리 |

발단	칠성문 밖 빈민굴에 사는 복녀의 과거사 소개
전개	송충이 잡이에 나선 복녀가 우연히 매춘을 하게 된 다음부터 차츰 타락해 감. <수록 부분>
위기	갑자를 훔치던 일을 계기로 중국인 왕 서방의 정부(情婦)가 됨.
절정	왕 서방의 결혼식 날 밤, 배신감과 질투를 느낀 복녀가 왕 서방의 집에 찾아가 난리를 부리다가 결국 왕 서방 손에 죽게 됨.
결말	왕 서방과 복녀의 남편이 복녀의 시체를 둘러싸고 뒷거래를 함.

05

㉮ ⑤번이 답인 이유

㉮에서 복녀가 얼굴에 분을 바르게 되었다는 것은 복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에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복녀는 선비의 딸로서 도덕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정조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더라도 매춘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 ② 복녀가 매춘을 하는 이유가 굶는 일이 다반사일 정도로 가난한 가정 형편에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임을 암시한다.
- ③ 복녀가 ‘일 안 하고 품삯을 많이 받는 인부’가 되었다는 것은 감독에게 매춘을 하며 쉽게 돈을 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④ 도덕관이나 인생관은 개인의 내적 생각이라는 점에서 서술자가 복녀의 생각이나 심리를 직접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06

㉮ ①번이 답인 이유

이 작품은 부분에 따라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번갈아 나타난다. 이때 [A]는 3인칭 관찰자 시점, [B]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더 멀다.

오답 피하기

- ② [B]는 [A]보다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더 가깝다.
- ③ [A]는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B]는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
- ④ [A]와 [B]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서술한다.
- ⑤ [A]와 [B]의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물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07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복녀의 성격과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녀는 입체적 인물이다.

08~10 개념으로 작품 읽기

한계령_양귀자

시점을 파악하고, ‘은자’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하며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연작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에 실린 단편 소설로, 서술자 ‘나’가 옛 친구 은자의 전화를 받고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한다.

작품 속에서 ‘나’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어릴 적 단짝 동무였던 은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큰오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신적 여유를 잃어 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아울러 ‘나’는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고 싶은 욕구와 그 만남으로 인해 소중한 추억이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데, 작가는 뛰어난 관찰력과 묘사로 교차되는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큰오빠와 은자를 통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의 힘들고 고단한 삶을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대중가요 ‘한계령’과 절묘하게 어울려 감동을 더하고 있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은? 전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작가가 된 서술자 ‘나’, ‘나’의 고향 친구이자 밤무대 가수가 된 은자
- 상황은?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고향 친구 은자가 자신이 노래하는 클럽으로 ‘나’를 초대하지만 ‘나’는 은자를 만나러 가기를 주저하며 망설이기만 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서술자 ‘나’는 과거 추억을 지키고 싶어하면서도 은자를 만나지 않은 채 은자의 전화를 기다림.
-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삶과 소박한 꿈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1980년대 • 공간: 서울, 부천

특징 |

- 노래 ‘한계령’의 가사를 삽입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 ‘좋은 나라’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함.

| 전체 줄거리 |

발단	‘나’가 오랫동안 소식을 끊었던 고향 친구 은자의 전화를 받음.
전개	밤무대 가수로 노래하는 은자에게 초대를 받지만 은자가 일하는 클럽에 찾아가는 것을 망설임. (수록 부분)
위기	은자의 독촉 전화를 받으면서도 은자를 만나러 갈 결심을 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함. (수록 부분)
절정	은자가 일한다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어느 여가수의 노래를 듣게 되지만 은자를 만나지는 않고 돌아옴.
결말	은자에게서 자신이 새로 개업하는 카페인 ‘좋은 나라’로 찾아오라는 전화를 다시 받음.

08

㉠ 1번이 답인 이유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독백적 진술을 중심으로 ‘나’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은자’로 대변되는 소시민들의 삶과 꿈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이 글에서는 서술자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안에 위치한다.
- ④ 의문과 추측의 진술은 드러나지 않으며, 서술자가 은자나 큰오빠와 같은 등장인물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 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 없다.”는 내용을 통해 1인칭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현재와 과거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 외의 인물에게 다가서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09

㉠ 6번이 답인 이유

원미동 사람들은 은자처럼, 그다지 여유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이들이다. 그래서 ‘나’는,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밤무대 가수가 된 은자를 보고 원미동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 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었다.”를 통해 ‘나’가 과거의 은자를 표지판 삼아 옛 기억을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를 통해 ‘나’가 매년 고향에 가기는 하지만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부분에서 고향의 모습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해버렸음을 알 수 있다.
- ③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는 원미동 사람들에게 대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0

㉠ 6번이 답인 이유

‘나’는 ‘은자’를 진정한 마음의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표지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난 은자와 만나기를 두려워하면서도 은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오답 피하기

- ① 서운한 정서를 느끼는 것은 ‘나’가 아니라 은자이다. ‘나’가 자신을 찾아오라는 전화에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은자와의 통화 내용을 통해 은자가 ‘나’가 작가임을 알고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만, ‘나’가 이를 자랑하고 싶어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③ 은자를 통해 옛 추억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은자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은자를 만날 것인지 말지를 고민하며, 은자 때문에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 ④ ‘나’가 밤무대 가수인 은자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은자의 생각이다. ‘나’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3 서술상의 특징 ①_서술 방식, 서술자의 개입, 인물 제시 방법, 풍자와 해학

사뿐히 즈려뺐는 확인 문제

p.134~137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묘사 (2) 요약적 제시 (3) 의식의 흐름

2 (1) X (2) ○ (3) ○ 3 (1) ㉠, ㉡, ㉢ (2) ㉢, ㉣

01 ⑤ 02 ④ 03 ‘그’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 04 ④ 05 ⑤
06 ② 07 ③ 08 ④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고향_현진건

글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서술 방식을 확인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나’가 기차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그’의 인생을 통해 당대 조선의 농촌 공동체가 파괴된 과정과 식민지 현실이 개개인의 삶을 짓밟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 전개를 통해 강렬한 현실 고발정신을 드러내는, 사실주의 문학의 전형을 보여 준다.

기차 안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된 ‘나’는 첫인상만으로는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짙은 동정과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두 인물이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
- 인물은? 서술자 ‘나’,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그’
- 상황은? ‘나’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나’는 처음 ‘그’를 보고는 마땅찮게 여기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조선의 현실과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을 재인식하고 마침내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
- 주제는? 일제 강점기 우리 농민(민중)의 참혹한 생활상의 폭로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일제 강점기 • 공간: 대구발 서울행 열차 안

특징 |

- 1920년대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을 조명함.
- 농토를 빼앗긴 농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림.

| 전체 줄거리 |

발단	‘나’는 서울행 기차에서 동양 삼국의 복장을 입고 천박한 행동을 하는 ‘그’를 만난다. <수록 부분>
전개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고향을 떠난 사정을 듣게 된다. <수록 부분>
위기	‘나’는 과거에 대구 근교의 평범한 농민이었던 ‘그’가 농토를 잃고 파란만장한 유랑 생활을 했음을 알게 된다.
절정	‘그’가 오랜만에 돌아간 고향은 폐허가 되었고, 자신과 혼담이 있었던 여인을 우연히 만난 기구한 인생사를 듣게 된다.
결말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그’는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른다. <수록 부분>

01

㉮ ⑤번이 답인 이유

작품 끝의 신민요는 당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며, 일제가 가혹한 식민 통치를 하여 당대 조선의 민중들이 비극적인 삶의 나라으로 떨어지게 되었음을 풍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그’의 차림새를 묘사한 부분이다. ‘그’는 조선,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삼국의 복색이 고루 섞여 있는 남루한 차림새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고달픈 유랑 생활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나’는 ‘그’의 얼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독자

가 ‘그’의 얼굴을 상상하게끔 한다.

- ③ ‘그’의 신체타령을 들은 서술자가, ‘그’의 지나온 삶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나’와 ‘그’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비참한 삶을 살았음이 드러난다. 또한 대화 속 ‘그’의 말투를 통해 그가 경상도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다.

02

㉮ ④번이 답인 이유

㉠은 ‘-더러’의 서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자인 ‘나’가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 내용을 직접 드러낸 부분이다. ‘그’에 대해 ‘나’가 지니는 동정적인 태도가 영탄적 방식으로 드러난다.

03

‘나’는 기차에서 만난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그’가 살아온 과거를 듣는 동안 차차 ‘그’와 가까워지며 민족적 동질감을 느낀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는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나’가 ‘그’를 이해하고 연민하게 되어 ‘그’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는 행동으로 형상화되었다.

04~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날개_이상

인물의 유형과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현대인의 무의미한 삶과 자아 분열을 그려 낸 최초의 심리 소설로 일컬어지는 이상의 대표작이다. 서술자 ‘나’는 일제 강점기의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한다. 이는 보통의 남녀 관계가 역전된, 아내에게 기생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나’의 윤택된 삶은 아내의 방과 ‘나’의 방이라는 분할된 공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지식인으로서 근대적 흐름에 저항할 수도, 완벽히 적응할 수도 없는 ‘나’의 혼란스러운 내면세계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한편 ‘나’가 ‘아내’가 준 돈을 버리고 탈출의 의미를 지닌 외출을 감행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날개’가 돋기를 염원하는 것에서 ‘나’가 무의미한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읽어낼 수 있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은? 서술자 ‘나’
- 상황은? ‘나’는 하루 종일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빈둥거리며 권태로운 삶을 살아감.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나’는 현실로부터 격리되어, 주체적인 의지가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감.
- 주제는? 무력한 삶과 자아 분열 속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1930년대 어느 날 • 공간: 경성(서울)

| 특징 |

- 내적 독백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됨.
- 상징적 장치를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어두운 내면을 드러냄.

| 전체 줄거리 |

발단	'나'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방 안에서 텅굴며 지낸다. 아내가 외출할 때면 '나'는 아내의 방에서 놀곤 한다. <수록 부분>
전개	아내에게 손님이 찾아올 때면 아내는 '나'에게 은화를 준다. '나'는 은화를 저금통에 모아 두다가 변소에 빠뜨린다. 어느 날 외출에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손님과 함께 있었다.
위기	'나'는 이후에도 가끔씩 외출을 하다가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린다. 아내는 '나'에게 아스피린을 주고 '나'는 그것을 먹고 잠만 자게 된다.
절정	'나'는 아내가 준 약이 수면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고 외출하여 거리를 쏘다니다가 미끄끄시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결말	정오의 싸이렌이 울리자 '나'의 의식이 깨어나는 듯하다. '나'는 날개가 돋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04

㉔ 4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 '나'가 자신의 무기력함과 고독함, 분열된 자의식과 같은 내면 심리를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그려 내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 ① 인과성을 띤 진술이란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 서술한 것을 말한다. 이 글은 원인과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서술자의 내면 심리를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서술자 '나'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독자를 상대로 자신의 내면세계와 의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표현할 뿐, 아내와 말을 주고받고 있지 않다.
- ⑤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이나 내면 심리를 담고 있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보여 주기는 하지만 시·공간적 배경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05

㉔ 5번이 답인 이유

돈이 증식된 사회 속에서 방황하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기에는 의미와 맥락이 잘 통하거나 문법을 잘 갖춘 표현보다 오히려 비문법적이고 뜻을 파악하기 힘든 표현들이 더 적절한 것이다. 작가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인물의 내면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 ① <보기>에서 '나'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내에게 빌붙어 사는 지식인'으로 소개된 것으로 보아 근대화된 식민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나'의 아내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무능력한 '나'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저금통은 돈(동전)을 모으는 도구이며, 돈은 근대화된 물질 문명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변소에 저금통을 빠뜨리는 행위는 '나'가 물질 문명에 적응하고 있지 못함을 상징한다.

④ '박제'는 죽은 동물을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만든 물건이다. 이 글에서는 식민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기자신을 '박제'에 비유하며 물음을 던지고 있다.

06~08 개념으로 작품 읽기

나상_이호철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때 북한국의 포로로 잡힌 두 형제가 북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그려 내었다. 작가는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통해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을 보여 주면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영리함과 거만함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나아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통해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바깥 이야기- 1인칭 관찰자 시점
안 이야기-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나'와, 6·25 전쟁 당시 포로가 된 형제의 사연을 들려주는 '철', 사연 속에 등장하는 형과 동생 철성
- 상황은? 6·25 전쟁 때 형과 동생 철성은 포로로 잡혀 북으로 이송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수룩하지만 동생을 애뜻하게 생각하는 형이 다리를 절다가 쓰러지게 되고 경비병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음.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형제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 '철'은 자신이 그 사연 속의 동생이었음을 고백하며 순응적인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 회의함.
- 주제는? 극한 상황 속에서 모색하는 올바른 삶의 방향

| 핵심 정리 |

| 배경 | • 시간: 6·25 전쟁 당시 • 공간: 북으로 이송되어 가는 길

| 특징 |

- 형의 죽음과 대비되는 '눈'을 통해 비극적인 분위기를 강조함.
- 전쟁의 고통과 비극성을 통찰력 있게 그려 냄.

| 전체 줄거리 |

발단	어느 여름 저녁에 '나'는 철에게서 전쟁 때 북한군 포로로 잡혀 이송되었던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전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수룩한 행동을 하는 형을 동생 철성은 처음에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자신을 위하는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고 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게 된다.
위기	담중에 걸린 다리가 풀아 잘 걸을 수 없게 되자 형은 자신에게 일이 생기면 모른 척하라고 동생에게 당부한다. <수록 부분>
절정	형은 결국 행군 중에 쓰러지게 되고 경비병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는다. <수록 부분>
결말	이야기를 마친 철은 이야기 속의 동생이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면서,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이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해 회의한다.



06

㉮ 2번이 답인 이유

‘형’이 우는 동생을 나무라면서 본인이 운다든가, 동생 귀에 속삭이는 행위, 동생의 허리나 허벅지를 쿡쿡 찌르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동생을 사랑하고, 순수함을 지닌 형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오답 피하기

- ① 인물의 외모나 성격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희화화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6·25 전쟁 당시 포로가 된 어느 형제가 북으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현재와 과거가 번갈아 서술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독백적 어조는 찾을 수 없다.
- ⑤ 형제의 대화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의 성격과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07

㉮ 3번이 답인 이유

걸음걸이가 불편해짐에 따라 자신이 집에 가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동생에게 당부의 말을 남기려 했던 형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포로로 붙잡혀 가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울다가도 눈 내리는 것을 보고 감격하는 모습에서 형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성격이 드러난다.
- ②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포로 신분으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형의 다리 상태가 나빠져 점점 더 걷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형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짐을 의미하며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 ④ 자신의 다리 상태가 좋지 않음을 경비병에게 들켜 목숨을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형의 심리가 드러난다.
- ⑤ 필요에 따라 언제든 사람을 죽일 만큼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며, 이는 전쟁이 야기한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08

㉮ 4번이 답인 이유

‘형’과 ‘동생’의 대화, 반복된 행위의 묘사 등을 통해 ‘형’이 어떤 인물인지 간접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간접 제시 방법은 상황을 극적으로 제시해 독자에게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며 독자가 상상을 통해 인물에 대해 추측해야 하므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③, ⑤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직접 제시 방법에 대한 진술이다.

04 서술상의 특징 ②_문제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142~144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문제 (2) 문어체 (3) 간결체

2 (1) X (2) ○ (3) ○

3 (1) ㉠ (2) ㉢ (3) ㉤

01 ③ 02 ③ 03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숙한 ‘나’의 시선으로 독자에게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04 ④ 05 ① 06 ③

01

㉮ 3번이 답인 이유

(가)는 만연체, (나)는 간결체로 쓰였다. 사건 진행이 느려져서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은 호흡이 긴 만연체의 특징이다.

02~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봄·봄_ 김유정

이 글의 해학성을 높이는 표현상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봄·봄>은 김유정의 작품 중에서 가장 해학성이 넘치는 작품이다. **우직하고 순진한 ‘나’와 장인의 행동은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하지만 이 웃음 속에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이 숨어 있다.**

1930년대는 ‘지주-마름-소작인’의 지배 구조가 형성되었던 시기로, 극심한 빈곤과 일제의 수탈에 시달렸던 농민들 대부분은 소작인이 되었다(농촌 인구의 약 80% 정도). 이를 통제하는 친일 지주들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마름을 두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마름인 장인이 강자로 등장하여 ‘나’와 점순의 결혼을 빌미로 ‘나’에게 임금도 주지 않고 고된 일을 시킨다. ‘나’는 동네의 우두머리인 구장에게 중재를 요청하지만 다른 이들처럼 소작인인 구장은 마름인 장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이 작품은 농촌에서 마름이라는 강자가 머슴이라는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심각한 **수탈의 상황**을 ‘데릴사위’라는 소재를 통해 매우 해학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은? 어리숙하고 순진한 ‘나’와, 혼인을 약속한 ‘점순이’, 그리고 혼인을 미끼로 ‘나’를 머슴처럼 부려 먹는 교활한 ‘장인’
- 상황은? 점순이의 키가 아직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인이 혼례를 자꾸 미루며 ‘나’를 머슴처럼 부려 먹는 상황에서 점순이마저 ‘나’에게 성례할 것을 부추기자 ‘나’는 장인과 싸우게 되는데, 막상 싸움이 벌어지자 점순이가 아버지 편을 들. 그리고 장인이 다시 ‘나’를 다독이자 ‘나’는 오히려 고마워하며 당장 일을 하러 감.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나’는 무지하고 어수룩하여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번번이 이용당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함.
- 주제는? 우직하고 순박한 데릴사위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간의 갈등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1930년대 봄

• 공간: 강원도 산골의 농촌 마을

| 특징 |

• 역순행적 구성임.

• 토속어, 방언,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향토성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음.

| 전체 줄거리 |

발단	'나'는 점순이와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3년 7개월이나 변변한 대가 없이 점순이네 집의 머슴 일을 해 주고 있다.
전개	음흉하고 교활한 장인은 점순이가 덜 컸다는 이유로 혼례를 미루고 '나'는 구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여 중재를 요청하지만 구장은 결국 장인의 편을 든다. <수록 부분>
위기·절정	몽태가 충동질하고 점순이 성례를 부추겨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나'는 결국 장인과 대판 몸싸움을 벌이고, '나'와 장인의 싸움에서 내 편을 들 줄 알았던 점순이는 아버지의 편을 든다. <수록 부분>
결말	장인은 가을에 혼례를 올려주겠다며 '나'를 다독이고 신이 난 '나'는 다시 일하러 나간다. <수록 부분>

02

㉮ ①번이 답인 이유

이 글은 인물 간의 대화에서 “사경 내슈……”, “어떻게 엘 낳지유?”와 같은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느낌을 주고 작품에 현장감과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망할 게’, ‘얼빠진 등신’ 등 비속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시대 상황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② 이 글은 1930년대에 쓰인 현대 소설로, 방언과 비속어 등 구어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 ④ 농촌의 풍경이 감각적으로 묘사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병모’(본래 다른 사람의 장모를 높여 이르는 말)라는 표현을 통해 장모를 높이는 동시에 ‘참새만한 것’이라고 하여 장모를 낮추어 표현함으로써 해학적인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03

독자는 정황으로 미루어 ‘나’와 점순이의 혼인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란 것을 알고 있는데, 어리숙한 ‘나’는 장인이 머지않아 점순이와 자신을 혼인시켜 줄 것이라 믿고 있다. 이는 독자에게 흥미와 웃음을 유발한다.

04

㉮ ①번이 답인 이유

제목 <봄·봄>은 계절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의 전체 내용과 연결 지을 때 더 큰 상징성을 갖는다. 매년 봄이 되면 ‘나’는 장인에게 성례를 요구하지만 매번 장인의 회유책에 넘어간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부라사라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가’는 ‘나’의 행동에서 또다시 어리숙한 ‘나’가 장인의 계략에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즉, 제목 <봄·봄>은 다음 해 봄에 또다시 동일한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천변 풍경_ 박태원

1930년대 청계천 변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 내기 위해 작가가 어떤 기법을 활용하여 서술했는지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청계천 변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총 50개 절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세태 소설(어떤 특

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설)이다.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법을 따르지 않고, 다양한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이들과 관련한 **각각의 일화**를 특별한 줄거리나 순서 없이 나열하는 **삽화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작품은 대도시인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1930년대 당시 서민층의 일상적인 생활 양상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영화적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특정한 대상을 확대해 보는 ‘클로즈업 기법’과 카메라가 이동하며 촬영하는 듯한 ‘카메라 아이(camera-eye)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 서술자는? 작품 밖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혼용
- 인물은?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소년인 ‘창수’와 천변 근처의 여러 사람
- 상황은? 창수는 가평 시골에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올라와 천변의 풍경을 관찰하며 감격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서술자는 어수룩하고 순박한 시골 소년인 창수가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차 세속적인 인물로 변해 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러한 변모를 경계함.
- 주제는? 1930년대 청계천 주변에서 살아가는 서민층의 삶의 애환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1930년대

• 공간: 서울 청계천 주변

| 특징 |

- 여러 인물의 일상생활을 삽화식 구성으로 보여 줌.
- 카메라아이(camera-eye) 기법을 활용하여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 전체 줄거리 |

	청계천 뿔래터에서 아낙네들이 잡담을 나누고 이발소 소년 재봉은 천변 풍경을 관찰한다. 시골에서 올라온 창수는 한약국에서 일을 시작한다. <수록 부분>
삽화식 구성	창수는 세속적인 인물로 변해 가고, 금순은 취직을 시켜 준다는 금광 브로커에게 속아서 하숙소에 방치된다. 브로커의 행방불명으로 속을 태우던 금순에게 기미코가 찾아오고 금순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천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한 이쁜이는 고단한 시집살이 때문에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세타령을 한다. 장마가 시작되어 창수가 한약국을 나가고, 브로커가 돌아와 금순이를 데려가려 하지만 실패한다.
	하나코는 양반댁으로 시집을 가지만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 하고, 서울을 떠났던 창수는 다시 돌아와 구락부에 취직한다.
	하나코는 전실 자식 때문에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기미코는 금순을 손주사의 후처로 보내려 한다. 이쁜이는 남편에게 쫓겨나 어머니에게 돌아오고, 포목점 주인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개천에 떨어진다.

05

㉮ ①번이 답인 이유

이 글에서 섬표는 한 문장 안에서 여러 대상(창수의 눈에 비친 서울의 거리나 사람들)과 장면(서울 아이들이 창수를 시골 아이라고 놀리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장치로 쓰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이 글은 특별한 줄거리나 순서 없이 여러 인물의 일상생활을 삽



화식 구성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과거가 교차 서술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이 글에는 비속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문명화에 대한 저항 의식도 찾을 수 없다.
- ④ 이 글은 빈번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대상을 확대해 보는 ‘클로즈업 기법’과 카메라가 이동하며 촬영하는 듯한 ‘카메라이 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⑤ 소년이 청계천 변의 사람들을 관찰한 내용이 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여러 인물의 내면 심리나 의식이 서술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 ③번이 답인 이유

창수는 ㉮에서 도시의 풍경도 밤낮으로 보면 물리고 만다고 했지만, 이어지는 부분에서 화신상에 가고, 전차와 승강기를 탈 것을 한껏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창수가 도시를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한다고 볼 수 없다.

05 서술상의 특징 ③_표현 기법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148~151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반어, 아이러니 (2) 관용적 (3) 현학적

2 (1) X (2) ○ (3) ○ 3 (1) ㉮ (2) ㉮ (3) ㉮ (4) ㉮

01 ④ 02 ④ 03 ⑤ 04 ‘진시황’은 윤 직원 영감이고, ‘호해’는 종학이다. 이처럼 ‘망진자는 호아나라’라는 관용적 표현을 제목으로 지은 것은 윤 직원 영감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은 윤 직원이 믿었던 가족 중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05 ① 06 ⑤ 07 ② 08 ③

01~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태평천하_채만식

경어체 문장, 서술자의 개입, 풍자와 반어와 같은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구한말에서 개화기,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수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일제 강점기의 대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 직원을 중심으로 그의 가족의 부정적인 면모를 그려 냄으로써 당대 사회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부정적 성격이 강할수록 희화적 풍자가 심해지는데, 윤 직원은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여기는 등 역사 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작가는 이렇게 주인공 윤 직원을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수법으로 묘사함으로써 식민 치하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다.

- 서술자는? 작품 밖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윤 직원과 그의 아들 윤창식, 손자 윤종학

- 상황은? 일제 강점기 사회를 ‘태평천하’로 생각하는 윤 직원 영감이 아들 창식과 갈등하던 중에 가장 믿는 손자인 종학이 사상 문제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서술자는 식민 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윤 직원과 같은 친일 지주 계층의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 내고 있음.
- 주제는? 일제 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과 가족의 붕괴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1930년대 후반

• 공간: 서울의 어느 대지주 집안

| 특징 |

- 비유, 과장, 반어, 희화화 등을 통해 대상을 깎아내리고 독자의 웃음을 유발함.
-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믿는 윤 직원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풍자함.
- 경어체를 사용하여 마치 판소리 창자(唱者)와 같이 독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작품 속 인물을 조롱함.

| 전체 줄거리 |

발단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 와서는 그 값을 깎으려 하고 나이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인색하게만 군다.
전개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아버지가 구한 말 화적들의 습격을 받아 죽었던 집안의 내력을 가슴에 안고 일제의 권력과 결탁해 돈을 모으려고 한다.
위기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밤을 새며 가산을 탕진하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많은 돈을 날린다.
절정 · 결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손자 종학이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전보를 받은 윤 직원은 이런 태평천하에 왜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한다. <수록부분>

01

㉮ ④번이 답인 이유

윤 직원은 아버지 윤용규의 죽음 이후 일제의 권력과 결탁해 부를 모으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윤 직원은 당대의 현실을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는 일제 식민 체제에 대한 역사적식 없이 개인적인 안위만 보장되면 태평천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기>에 비추어 볼 때, 윤 직원은 일제 식민 정책 덕분에 성장한 계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윤 직원의 부친은 화적 떼가 그의 집을 약탈하려 하는 것을 막다가 죽었다.
- ③ 윤 직원은 일제 강점기 상황을 태평천하라고 표현하면서, 손자 종학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집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지가 땅땅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일제에 저항하고자 손자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할아버지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인물은 종학이다.

02

㉮ ④번이 답인 이유

서술자는 부친 윤용규의 죽음 이후로 친일을 하여 재산을 모은 윤 직원의 결심과 행적을 ‘웅장한 투쟁의 선언’, ‘승리’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반어적 표현은 윤 직원의 추악한 면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낸다.

오답 피하기

- ① 윤 직원에게 일관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지요.”, “~겸해야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등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물인 윤 직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서술자가 독자에게 경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데, 이는 독자가 마치 서술자와 한편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 서술자는 윤 직원을 더 효과적으로 조롱할 수 있다.
 ⑤ 일제 강점기를 ‘좋은 세상’, ‘고마운 세상’, ‘태평천하’ 등으로 생각하는 윤 직원 영감은 반민족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의 묘사를 통해 윤 직원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03

㉮ ①번이 답인 이유

④(윤 두꺼비)는 윤 직원의 젊은 시절 별명이고, ⑥(말대가리)는 얼굴 생김이 말과 닮은 윤용규의 별명이다. 서술자는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인물의 천박한 별명을 그대로 불러 윤 직원과 윤용규를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즉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04

“망진자는 호야나라”는 중국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진시황의 아들인 호야라는 뜻이다.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소재목으로 정한 것은 윤 직원 영감의 집도 믿었던 가족 중 누군가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05~08 개념으로 작품 읽기

외판 방_ 신경숙

이 글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에 어떤 표현 기법들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가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쓰인 자전적 소설이다. 1970년대 말, 농촌 출신 소녀의 눈에 비친 산업화 시대와 노동자의 현실을 서정적인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은 성숙한 자아인 ‘나’가 과거의 ‘나’를 떠올리며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는 자아의 성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노동자의 삶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어린 소녀 개인의 내면세계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성장 소설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성장 소설은 주인공의 삶을 하나의 흐름으로 그리는 반면, <외판 방>은 중심 사건이 벌어지는 과거와 소설가가 된 현재의 시점을 주기적으로 교차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교차 서술에 현재형 어미와 문단에 여백 두기 방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은? 암울한 환경에서 꿈을 갖고 싶어 하다가 소설을 만나게 된 ‘나’, ‘나’에게 소설 써 볼 것을 권유하는 ‘선생님’, ‘나’와 같은 학교와 공장에 다니는 ‘희재 언니’

- 상황은? 서른 살이 된 ‘나’가, 암울한 환경에서 방황하다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소설을 만나게 되었던 열일곱 살 때의 ‘나’를 회상하는 상황임.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암울하게 생활하다가 소설가를 꿈꾼 이후로 삶의 희망을 찾음. 서른 살이 된 ‘나’는 열일곱 살의 ‘나’에 관해 글을 쓰기로 결심함.
- 주제는? 성장 과정의 자기 고백을 통한 내면의 성숙(유년 시절 겪었던 삶의 아픔과 소설가의 자의식)

핵심 정리

- | 배경 | • 시간: 1970년대 말, 1990년대 초
- 공간: 농촌, 서울의 구로 공단 지역, 제주도

특징 |

- 과거의 ‘나’의 성장 과정과 현재의 ‘나’의 글쓰기 상황이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됨.
- 과거는 현재형 어미, 현재는 과거형 어미로 서술함.
- 심표와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 전체 줄거리 |

발단	‘나’는 제주도에 와서 열일곱 살의 ‘나’를 회상하며 그때의 기억을 글로 표현하려 한다. 그리고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며 글을 쓰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수록 부분>
전개	농촌에서 살던 ‘나’는 서울로 올라와 큰오빠와 함께 가리봉동의 외판 방에 살면서 구로 공단에 자리 잡은 공장에 다닌다.
위기	1979년부터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 특별 학교인 영등포 여고에 다닌다. 그러던 중에 희재 언니를 알게 된다.
절정	희재 언니는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는 애인의 말에 충격을 받아 자살하고, ‘나’에게 방 열쇠를 걸어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나’가 그녀의 자살을 돕게 되었다는 상처를 남긴다.
결말	소설가가 된 ‘나’는 공장에 다니던 옛 시절의 친구로부터 ‘왜 우리들 이야기는 소설로 쓰지 않느냐’며 질책하는 전화를 받고 이 소설을 쓰게 된다.

05

㉮ ①번이 답인 이유

과거 회상 부분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이를 통해 이야기의 속도를 높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소설은 열일곱 살의 ‘나’의 이야기는 현재형 어미, 삼십 대의 ‘나’의 생각은 과거형 어미를 사용하여 서술되었다. 이는 삼십 대의 ‘나’가 과거를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으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드러내는 효과를 낸다.

오답 피하기

- ④ 과거 회상 부분에서 서술자는 자신을 ‘열일곱의 나’라고 부르고 있다.

06

㉮ ⑤번이 답인 이유

‘나’는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나에게는 객관화가 되어 있으려니 했다.”,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을 땐 나는 그 시절을 다 극복한 것도 같았다.”라고 하였다. 즉, ‘나’는 이제 삼십 대가 되었기 때문에 열일곱 살 때의 일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듯 담담하게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07

㉮ ②번이 답인 이유

‘㉠(반성문)’은 ‘나’가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나



머지 넷과 심리적 태도가 다르다.

오답 피하기

- ①, ⑤ “학교에 가기 위해서, ~ 공장 굴뚝의 연기를 참아낼 수 있기 위해서”라는 데에서 ‘나’가 공장을 떠나 학교를 가고 싶어함을 알 수 있으므로, ‘㉠(컨베이어)’, ‘㉡(공장 굴뚝의 연기)’에 대해서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④ “주산 농기도 싫고 부기책도 싫으며”를 통해 ‘나’가 ‘㉢(주산)’과 ‘㉣(대차대조표)’에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 ①번이 답인 이유

[A]를,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에서 ‘나’와 가족이 고단한 생활을 했음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 ② 소설을 옮겨 적는 행위는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에 있음을 암시한다.
- ④ [A] 다음 부분에서 “나는 시인을 꿈꾸었을 것이다.”, “나는 꿈이 필요했었다.”를 통해 ‘나’가 소설을 옮겨 적는 것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⑤ [A]의 앞부분은 ‘나’가 옮겨 적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일부분이고, 뒷부분은 소설을 옮겨 적으며 ‘나’가 떠올린 상념이다. ‘나’의 상념에서 “.....이제 열일곱의 나는 컨베이어 위에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기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 ‘나’가 이 소설에 애착을 갖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06 갈등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157~160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갈등 (2) 인과적 (3) 가치관, 성격
- 2 (1) ○ (2) ○ (3) X 3 ㉠ 내적, ㉡ 외적, ㉢ 인물, ㉣ 사회, ㉤ 자연
- 01 ⑤ 02 ⑤ 03 성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방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04 ③ 05 ⑤ 06 ④ 07 ⑤

01~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역마_김동리

갈등의 유형과 갈등 해소 방식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역마살’을 소재로 하여 운명에 의해 상처받고 좌절하면서도 순응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인간과 운명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인

물이다. 체 장수 영감이 맡기고 간 계연과 성기를 맺어 주어 정착하길 바라지만, 체 장수 영감이 옥화의 아버지임이 드러나면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이와 같이 이 소설의 주된 갈등은 운명과 그에 맞서는 인간의 노력이다.

옥화가 아들의 정착을 포기하고, 성기가 옛장수가 되어 길을 떠나는 모습에서 운명에 순응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운명을 달관하고 살아내려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인간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역마>는 자연 법칙과 인간이 조화되는 모습을 그려 낸 작가 김동리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다.

- 서술자는? 작품 밖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역마살을 타고난 성기와, 아들의 역마살을 없애려고 하는 옥화, 그리고 성기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지는 계연
- 상황은? 계연이 떠난 뒤 병이 나 버린 성기에게 옥화는 모든 사정을 밝히게 되고, 이를 들은 성기는 자신의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옛장수가 되어 화개 장터를 떠나게 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서술자는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성기의 모습을 순응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함.
- 주제는? 한국적 운명관에 순응하며 사는 삶과 인간 구원의 문제

핵심 정리

- | 배경 | • 시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공간: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화개 장터

특징

- 공간적 배경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
- 전통적 운명론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과 운명의 갈등을 형상화함.

전체 줄거리

발단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옥화는 아들 성기의 타고난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어느 날, 체 장수 영감이 딸 계연을 데리고 와 옥화네 주막에 맡긴다.
전개	옥화는 계연을 성기와 맺어 주어 성기가 역마살을 극복하고 정착하기를 바란다.
위기	어느 날,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귓바퀴에 난 사마귀를 발견하고 자신의 동생이 아닐까 의심한다.
절정	체 장수 영감이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에 따라 계연이 옥화의 이복동생임이 밝혀지고, 계연과 성기는 이별하게 된다.
결말	계연은 아버지를 따라 고향으로 떠나고 성기는 병을 앓는다. 이후 성기는 옛편을 걸고 화개 장터를 떠난다. <수록 부분>

01

㉠ ⑤번이 답인 이유

“옥화는 전과 같이 이제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서술과 “너 졸 대로(좋은 대로) 해라.”라는 옥화의 말로 미루어 볼 때, 옥화도 성기의 운명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성기는 옥화의 반대로 계연과 이별하게 되자 실연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 ② 성기가 병에 걸려 살아날 가망이 없게 되자 결국 옥화는 자신이 계연과의 혼인을 반대한 까닭을 성기에게 말해 주기에 이르고, 그 사연을 들은 성기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 ③ 옥화는 성기와 계연이 결혼하여 정착해 살기를 바랐지만 계연

이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알게 된 이후 성기와 계연의 관계를 반대한다. 그리고 체 장수가 이를 시인하여 계연을 데리고 떠남으로써 성기와 계연은 헤어지게 된다.

- ④ 성기의 갈등 해소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운명에 순응하는 삶과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02

㉮ 5번이 답인 이유

옥화는 성기가 결혼하여 정착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기 역시 계연과 결혼하여 정착하기로 결심하지만, 이는 옥화와 계연이 자매임이 밝혀짐에 따라 좌절된다. 결국 성기는 타고난 운명, 즉 역마살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하는 삶에 순응하게 된다.

03

㉮의 '옛판'은 떠돌이의 삶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성기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고 유랑의 삶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서 계연이 떠난 곳과 같은 방향의 구레 쪽 길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 역시 그가 운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역마살을 받아들였음을 나타낸다.

04

㉮ 1번이 답인 이유

성기가 옛장수가 되어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마살을 인정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려는 행동이며, 이로써 세상과 조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성기가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 ②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알고 성기와 계연이 인연을 맺을 수 없는 운명임을 받아들이는 인물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따른다.
- ④ 성기가 계연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마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때 성기는 자신의 삶에 주체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⑤ 옥화가 계연의 꾀바퀴에 자신과 똑같은 사마귀가 있으며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까닭으로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과학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05~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삼대_염상섭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드러난 각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1920년대 각기 다른 가치관을 지닌 조 의관, 조상훈, 조덕기의 삶과 갈등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장편 소설이다. 조 의관은 봉건적 가치를 고수하며 돈을 중시하는 인물로, 조상훈은 외국 유학을 통해 개화 의식을 지녔지만 주체성을 잃고 타락한 인물로, 조덕기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다른 신세대이지만 어떤 확고한 의식 없이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만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보다 **세 인물의 가치관의 대립과 그에 따른 갈등**이다. 세 인물이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대립하고 갈등하는지를 파악하면 **당대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작가는 조 의관 주변의 타락한 인물들을 통해 시대착오적이고 위선적인 삶에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면서, 덕기와 병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서술자는?** 작품 밖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구한말 봉건적 가치관을 가진 조 의관과, 그의 아들로서 개화기 세대를 대표하는 조상훈, 식민지 세대로 태어나 부르주아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조덕기, 덕기의 친구이자 계층적 갈등 관계를 맺는 김병화
- **상황은?** (가) 가짜 족보를 만드는 일에 대해 조 의관과 상훈이 갈등을 빚음. (나) 조 의관이 죽은 후 재산 문제를 둘러싼 상훈과 덕기의 갈등이 심화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세대 간 갈등 전개 과정에서 재산 또는 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작가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 '돈(자본)'이라는 인식을 드러냄. 또한 병화, 홍경애와 같은 진보적 신세대 인물들에게서 암울한 시대적 현실을 극복할 희망을 찾음.
- **주제는?** 일제 강점기 중산층 가문을 둘러싼 재산 상속 문제와 세대 갈등을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일제 강점기 (1920~1930년대)
- **공간:** 서울 중산층의 집안

| 특징 |

- 당시의 풍속과 세대 간 갈등을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함.
- 사건의 전개보다 인물들 간의 관계나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춤.

| 전체 줄거리 |

발단	유학생 덕기가 방학을 맞아 귀향했다가 친구 병화 등과 만난다.
전개	덕기는 조부(조 의관)와 그의 후처인 수원집을 비롯한 집안의 뒤엉킨 인간관계와 갈등을 목격한다. <수록 부분>
위기	수원집과 그녀를 조 의관에게 소개해 준 최 참봉 등은 재산을 빼돌릴 생각으로 유서를 변조하고 모략을 꾸민다.
절정	조 의관이 독살되자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집안의 갈등이 심화되지만 덕기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원집 일행의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여기에 사회주의 사건과 관련하여 덕기와 주변 사람들이 체포된다. <수록 부분>
결말	덕기는 무혐의로 풀려나지만, 향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망연해한다.



05

㉮ 6번이 답인 이유

덕기는 안방 하나를 치장하기 위해 천여 원을 쓰는 것은 지나치고 생각하고 있고, 부친 상훈의 씬씀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미소 장부를 내주기를 주저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상훈의 부친인 조 의관은 족보를 만드는 데 삼사천 원을 쓰고도 아들에게 ‘한 천 원’ 썼을 뿐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 ② 조 의관은 상훈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돈을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 ③ 상훈은 조 의관이 (가짜) 족보를 만드는 데 돈을 쓰는 것, 특히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 ④ 덕기는 기존에 집에서 쓰던 세간을 가져다가 써도 충분하므로 ‘세간 값’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06

㉮ 4번이 답인 이유

(가)에서 조 의관은 아들 상훈이 집안의 제사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통한 사회 운동이나 교육 사업에 투자하느라 집안의 돈을 빼돌리는 것이나, 자신이 돌보던 운동가의 딸인 홍경애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고도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만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② (가)와 (나) 모두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씬씀이에 대해 아들이 알아알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 ③ (가)와 (나) 모두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씬씀이가 지나치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행위를 문제 삼는다.

07

㉮ 6번이 답인 이유

(나)에서 덕기는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작 중에 그럴 수 없다.”라는 서술과 “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과 “모두 내놓으라셔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처럼 방어적으로 말을 꺼내는 덕기의 모습을 볼 때 덕기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①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으로, 족보를 꾸미는 데 돈을 들이는 행동은 가문과 신분을 중시하는 봉건적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② 상훈은 조 의관이 족보를 만드는 일에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으며, 조 의관의 봉건적 사고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자신이 하는 교육 사업과 같은 일이야말로 ‘돈을 유리하게 쓰’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 ③ 상훈은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등 지식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이지만 홍경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이까지 낳고도 무책임

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위선적인 인물이다.

- ④ 조 의관과 상훈은 각기 봉건적 가치관과 개화기의 근대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들의 가치관 차이는 돈의 쓰임새를 두고 표면화되고 있다. 조 의관이 재산을 아들이 아닌 손자인 덕기에게 상속하는 행동은 세대 간 갈등이 흔히 나타났던 당대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7 구성

사뿐히 즈려뺏는 확인 문제

p.166~169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구성 (2) 복합 (3) 평면 2 (1) X
(2) ○ (3) X 3 ㉮ 병렬 ㉮ 액자 ㉮ 피카레스크 ㉮ 옴니버스

01 ① 02 ④ 03 ③ 04 ① 05 □ - ㄹ - ㄱ - ㄷ - ㄴ 06 ④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종탑 아래에서_윤홍길

액자식 구성의 특징을 이해하고, 소설의 구성 단계를 파악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순박한 소년인 ‘나’와 끔찍한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소녀 ‘명은’의 만남을 통해 6·25 전쟁이라는 시대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명은이에게 호기심과 연민을 느끼는데, 그 감정은 종탑 아래에서 울리는 종소리로 극대화된다. 이 종소리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을 바라는 명은이의 소망을 담고 있어 독자들에게 강한 울림을 준다. 소년의 도움으로 소녀가 종을 울리는 절말은, 전쟁의 상처와 절망이 공감과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내화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시각을 활용해 전쟁에 접근함으로써 6·25 전쟁이 사람들에게 준 고통과 슬픔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방언과 일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당시의 상황을 실감 나게 재현하고 있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외화), 1인칭 주인공 시점(내화)
- 인물은? 명은의 유일한 친구인 ‘나’(건호), 6·25 전쟁으로 부모를 여읜 총격으로 앞을 못 보게 된 명은, 종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딸고만이 아버지
- 상황은? ‘나’는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린 시절 명은과의 추억을 이야기를 하게 됨. ‘나’는 우연한 기회에 명은이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명은이의 유일한 친구가 되는데, 명은이의 부탁 때문에 함께 교회의 종을 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나’는 명은이를 보호하며 명은이가 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
- 주제는? 사랑과 연민으로 극복하는 전쟁의 상처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6·25 전쟁 이후 • 공간: 전라도 익산

| 특징 |

- 전쟁으로 비롯된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
- 우화를 삽입하여 작중 인물의 상황과 주제를 부각함.
- 구체적인 지명과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실감을 높임.

| 전체 줄거리 |

외화(도입)	환갑이 다 된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여 돌아가며 자신의 옛 이야기를 한다. 마지막에는 말수가 없는 건호가 나서서 어린 시절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다. <수록 부분>
내화	발단 '나(건호)'는 어느 날 군청 관사 정원을 지나다가 명은이를 보게 되고, 명은이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 달아난다. <수록 부분>
	전개 다음 날부터 '나'는 명은이와 친해지기 시작한다. 어느 날 '나'는 명은이에게 전쟁 이야기를 전하다가 갈등을 겪게 되고 '나'와 명은이는 종소리를 계기로 화해한다. <수록 부분>
	위기 '나'는 명은이에게 종을 올린 백마 이야기를 들려주고 종탑 아래에서 함께 종소리를 듣는다. 그 후 명은이는 직접 종을 치고 싶어 하지만 '나'는 종을 관리하는 딸고만이 아버지가 무서워 선뜻 명은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절정·결말 '나'는 결국 명은이와 함께 종탑에 가서 종을 치고, 명은이의 울음소리와 종소리가 함께 울려 퍼진다. <수록 부분>
외화(종결)	건호의 이야기를 들은 초등학교 동기들은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난다.

01

㉮ ①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과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였다. ①은 옴니버스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외화에서 '최건호'는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린 시절 명은이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그 사연은 이 소설의 내화 내용이 된다.
- ③ '최건호'가 자신의 어린 적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신뢰성을 준다.
- ④ 이 소설은 '현재 최건호의 이야기-과거 최건호의 이야기-현재 최건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고 있으며, 현재의 최건호가 명은이를 "반세기가 지나가드락 영 잊혀지지 않는 소녀"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의 첫사랑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외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내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02

㉮ ④번이 답인 이유

(마)에서 딸고만이 아버지는 '나'와 명은이가 자신의 허락 없이 종을 치는 것을 보고 고함을 지르며 내 손을 뱃줄에서 잡아떼려 했다.

오답 피하기

- ① (나)에서 '나'는 명은이를 보고 명은이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놀라 달아났으며 이후 명은이의 외할머니에게 명은이가 눈이 먼 까닭을 듣게 된다.
- ② (다)에서 '나'는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면 명은이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거라고 기대했고 또한 자신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일깨워 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이 명은이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 ③ 중간 줄거리를 통해 (다)에서 명은이가 전쟁 이야기 자체를 듣

기 싫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드러나므로 '나'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서 서운함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마)에서 명은이의 울음은 참혹한 전쟁에서 비롯된 슬픔과 상처 때문이라 볼 수 있다.

03

㉮ ③번이 답인 이유

(다)는 소설의 두 번째 단계인 '전개' 부분으로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히고 갈등이 겹으로 드러나는 단계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가)는 외화이자 소설의 도입 부분으로 내화에서 전개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 ② (나)는 내화의 발단 부분으로 시·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 등이 소개된다.
- ④ (라)는 내화의 위기 부분으로 절정 단계에 앞서 새로운 사건을 전개하여 위기감을 높인다.
- ⑤ (마)는 내화의 결말 부분으로 모든 사건과 갈등이 해결되고 마무리되면서 작품의 주제가 드러난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아버지의 땅_임철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입체적 구성의 특징을 알고, 사건 전개에 흐름을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서술자 '나'가 군사 훈련을 받던 중 우연히 유골을 발견한 사건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그 극복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유골을 발견한 순간 좌의 인사로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회상한다. 작가는 이렇듯 **현재의 유골 수습과 '나'의 기억 회상이 중첩되는 이중 구조**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이념 대립의 비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가 아버지를 연민하고 이해하고 보듬게 되는 결말**을 통해 화해와 통합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은? 군인인 '나', 월북한 아버지를 한 평생 기다리는 홀어머니
- 상황은? '나'가 야전 진지를 구축하는 도중에 우연히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을 발견함. '나'는 유골을 수습하며 공산주의자가 되어 사라진 아버지와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떠올림.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나'는 유골에 아버지의 모습을 중첩시키며 연민을 느끼게 되고, 그간 원망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6·25 전쟁의 피해자임을 깨닫고, 두 사람을 이해하게 됨.
- 주제는? 이념 대립과 분단 현실이 가져온 아픔과 그 극복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1980년대 • 공간: 전방의 어느 야영지

| 특징 |

- '나'가 유골을 발견하는 현재 이야기와,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가 중첩되는 이중 구조가 나타남.
- 내적 고백의 형식을 통해 사건 전개에 따른 주인공의 의식 변화가 드러남.



| 전체 줄거리 |

발단	‘나’는 군 복무 중 야전 진지를 구축하다가 유골 한 구를 발견하는데, 이를 보고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린다.
전개	‘나’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중학생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좌익 활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이후 ‘나’에게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죄책감처럼 따라붙게 되었다.
위기	유골의 묘를 새로 만들어 주기 위해 ‘나’는 동네 노인을 모셔 오고, 그 노인은 정성을 다해 유골을 수습한다. <수록 부분>
절정	‘나’는 노인을 배웅하며 오랫동안 자신이 미워했던 아버지와, 사라진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린다. <수록 부분>
결말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고, ‘나’는 눈이 주변의 모든 경계를 덮는 모습을 본다.

04

㉮ ①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은 군인인 서술자가 야전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골을 발견한 후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리는 작품으로, 작품 속 서술자 ‘나’의 내적 독백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나’와 오 일병은 땅을 파다가 우연히 유골을 발견한 후 그 유해를 다시 땅속에 잘 묻어 주게 되는데, 노인은 이 일을 도와주는 인물로 ‘나’와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 ③ 이 소설 속 문장에는 대부분 과거형 어미(“-었/았-”)가 사용되었다.
- ④ 서술자 ‘나’의 내적 독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현재와 과거 회상이 교차되고 있어 사건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나’의 회상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직도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리며 그를 기다려 왔다는 사실과, 어머니가 울고 있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05

이 글에서 어머니와의 장면은 과거 회상이고 노인과 유해를 수습하는 장면은 현재이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장면을 재배열하면 ‘ㄱ - ㄴ - ㄷ - ㄹ’이 된다.

06

㉮ ④번이 답인 이유

<보기>의 진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을 통해 유해가 형의 것임을 확인하지만 이 글의 ‘나’는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나’는 ‘노인’이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님 모두가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닫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나’가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장면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보기>에서 유해 발견이 현재와 과거 사건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글에서도 ‘나’가 학살당한 누군가의 유골을 발견한 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해 떠올리고 있으므로 사건 전개에 실마리로 삼을 만하다.

- ② <보기>의 진태는 동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싸워 전쟁 영웅이 되지만 결국 유해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인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아버지도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과 분단 체제 속에서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인물로 설정할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형제의 비극적인 운명이 살아남은 진석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 글에서는 ‘나’가 가족의 과거사를 밝혀내는 것이 적절하다.
- ⑤ <보기>의 진석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형이 끝내 유골로 돌아왔기 때문에 절규하며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글의 ‘나’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유해를 수습하고 있을 뿐이며, 다만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닫고 있으므로 착잡한 표정을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

08 소재의 기능

사뭇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172~175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소재 (2) 주제 2 (1) ○ (2) X (3) ○
- 3 ㉠ 갈등 ㉡ 성격 ㉢ 태도 ㉣ 장면 ㉤ 회상 ㉥ 주제
- 01 ④ 02 ⑤ 03 ④ 04 ⑤ 05 ② 06 ② 07 ④ 08 ⑤ 09 ③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나목_ 박완서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중 서울이 수복된 직후를 배경으로, 미군 부대 안의 초상화 가게에서 ‘나’와 옥희도가 만나고 헤어지는 사연을 그려 내고 있다. 불우한 화가 옥희도가 예술 세계를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황폐한 삶 속에서도 진정한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였다.

이 작품은 자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의 의식 성장을 다룬 성장 소설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특히 마지막 전시회 장면에서 옥희도의 그림 속 나무가 고목(枯木)이 아니라 나목(裸木)임을 깨닫는 부분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 ‘나’는 그림을 통해 옥희도 씨가 1950년대의 황량하고 메마른 현실을 나목처럼 견디면서 내면의 희망을 키웠으며, 자신은 그에게 기대어 삶의 좌절을 견디었음을 깨닫게 된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은? 젊은 시절 옥희도의 예술혼에 끌려 그를 사랑했으나 현재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나’(이경)와 진정한 예술 정신을 지닌 화가 ‘옥희도’,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남편
- 상황은? ‘나’가 남편과 함께 옥희도의 유작전에 갔다가 그의 그림 속 그림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나’는 젊은 시절 보았던 그림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됨.
- 주제는? 진정한 예술가의 초상과 고독한 청춘기의 성숙 과정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6·25 전쟁 중, 10년 후 • 공간: 서울

| 특징 |

- 인물의 내면세계가 섬세하고 치밀하게 서술됨.
- 실존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옥희도'라는 가상 인물을 설정하여 이야기를 전개함.

| 전체 줄거리 |

발단	'나'는 6·25 전쟁 중 두 오빠를 잃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나'는 이런 암울한 집안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던 중 '나'는 생계를 위해 서울 명동의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초상화 가게에서 일하게 된다.
전개	'나'는 미군 부대에 새로 온 화가 옥희도를 만나고 '황량한 풍경'이 담긴 눈을 가진 옥희도에게 끌린다.
위기	두 사람은 명동 성당과 완구점 앞에서 계속 만나지만 유부남과 처녀인 그들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나'는 방황한다.
절정	며칠 동안 옥희도가 가게에 나오지 않자 '나'는 그의 집에 찾아갔다가 캔버스에 고목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다. 옥희도와 이별한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황태수와 결혼한다.
결말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옥희도의 유작전에 가서 지난날 옥희도의 집에서 보았던 그림이 고목이 아니라 봄을 기다리며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나목이었음을 깨닫는다. <수록 부분>

01

㉮ 4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에서는 장면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순행적 구성을 취하며 그림을 본 뒤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는 '나'의 내면 서술이 나올 뿐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마지막 문단의 “이미 그의 눈에 ~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라는 부분에 ‘남편’에 대한 ‘나’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안 서술자 ‘나’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서술자 ‘나’가 ‘옥희도’의 유작전에 전시된 ‘나무와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고는, 그림 속 나무가 고목(枯木)이 아니라 나목(裸木)임을 깨닫는 과정에서 주제가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⑤ 그림에 대한 감상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인식의 변화는 ‘나’가 무기력하고 불안한 젊은 시절을 지나 정신적 성숙과 의식의 성장을 이루었음을 보여 준다.

02

㉮ 5번이 답인 이유

⑥는 잎이 지고 가지만 앙상히 남아 있지만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력과 희망이 있는 나무이다. 따라서 ‘나목’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보여 주며, 동시에 ‘옥희도’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 소재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③은 6·25 전쟁으로 앞날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힘들었던 당시, 젊은 시절의 ‘나’가 ‘옥희도’의 집을 찾아갔다가 본 그림이다.
- ② ③은 메말라 생명력이 고갈된 나무로, 과거의 ‘나’는 색채를 잃

은 채 말라죽은 나무의 모습이 ‘옥희도’의 황량한 내면세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⑥는 ‘옥희도’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된다.
- ④ ⑥는 어느덧 중년이 된 ‘나’가 ‘옥희도’의 유작 전시회에서 다시 보게 된 그림이다.

03

㉮ 4번이 답인 이유

㉮에서 ‘나’는 풍선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라, 감상의 여운 때문에 “눈물이 솟도록 하늘의 푸르름이 눈부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지난날 보았던 그림 속 ‘고목’을 ‘나목’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 ② ‘나’는 그림을 감상하고 나서 옥희도가 나목이었음을 깨닫는다.
- ③ ‘나’는 옥희도의 치열했던 예술 정신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은 ‘나’를 망연함에 빠져들게 하는데, 한때 사랑했던 옥희도에게 자신의 존재가 한낱 절없는 여인이었을 뿐이었다는 자괴감과 의연했고 고귀한 옥희도의 예술혼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옥희도의 삶을 생각하며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아득한 감정에 사로잡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나는 야망이나 고뇌, 앓된 갈망 없이 세속적인 일상의 욕망만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실망하며 남편을 낮설게 여기고 있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돌다리_이태준

중심 소재를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43년에 발표되었으며, 물질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아들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제안하지만 아버지는 땅이 천지만물의 근거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 토지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한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버지는 ‘돌다리’를 가족과 선조들이 인연이 닿아 있는 사물로 인식해, 이를 꾸준히 보수한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꿈을 잃지 않고 민족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 서술자는? 작품 밖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전형적인 시골 농부인 아버지,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의사인 아들(창섭)
- 상황은? 돌다리 보수와 시골 땅을 파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버지와 창섭이



- 갈등을 빚다가, 창섭은 아버지와 심리적 결별을 느끼며 떠나감.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서술자는 '돌다리'와 '땅'에 관한 아버지의 말을 통해 전통적이며 자연 중심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며 창섭이 보여주는 근대적,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함.
 - **주제는?**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물질 만능 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일제 강점기 말기 초겨울 • 공간: 어느 농촌 마을

특징

-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로 주제를 형상화함.
- 작가가 보존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냄.

전체 줄거리

발단	서울의 권위 있는 내과 의사인 창섭은 병원을 크게 늘리기 위해 부모님이 계신 시골의 농토를 팔려는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온다.
전개	창섭은 땅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을로 향하다가 마을 입구에서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만난다.
위기	창섭은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팔자고 설득한다.
절정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죽기 전에 땅을 농민에게 넘기겠다는 말을 하고, 창섭은 자기 세계와 아버지 세계의 결별을 느끼며 서울로 돌아간다. <수록 부분>
결말	아버지는 다음날 고쳐 놓은 돌다리에 나가 세수를 하면서 땅을 지키는 삶이 천지자연의 이치임을 되새긴다.

04

㉮ ①번이 답인 이유

인물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이 소설은 '돌다리'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물질적인 가치만 중시하는 근대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소설의 '아버지'는 시골 농부로서 전통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전형적인 인물로, '아들'은 도시 의사로 살아가며 근대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전형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또한 두 인물 모두 내용 전개에 따른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평면적 인물이다.
- ② 이 소설은 아버지가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들은 자기와 아버지가 속한 세계의 괴리를 깨달으며 귀경하면서 끝나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갈등 해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이 소설은 돌다리와 땅에 대한 부자 간의 대화와 서술을 통해 각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언행은 물론 내면 심리와 의식 세계까지 서술하고 있다.

05

㉮ ②번이 답인 이유

②는 ①에 대한 설명이다. 돌다리는 창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전통적 세대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으로, 단순한 돌다리가 아니라 가족과 선조들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① ①은 튼튼하지는 않지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리와 편의를 중시하는 창섭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대변한다.

- ③ ①은 전통적 세대의 자연 중심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로, 모든 것을 금전적 가치로만 평가하는 근대적 세태를 비판하기 위한 상징적 도구이다.
- ④ ①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이며, 아버지가 돌다리를 보수하는 행위는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정신적 문화가 앞으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⑦과 ①은 아들과 아버지가 각각 지닌 근대적 사고방식과 전통적 사고방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대립적인 소재이다.

06

㉮ ②번이 답인 이유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땅의 본래적 가치보다는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과 신념을 지닌 사람으로, 땅이 천지만물의 근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땅의 본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으나, 땅에서 인간의 지혜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땅의 가치를 효율성으로 평가하는 태도는 땅을 교환 가치 또는 재산으로만 평가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는 글쓴이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 ④ 땅을 이익 획득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농민이라고 해서 땅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⑤ 소설에서 이야기되는 '땅'은 마음의 땅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땅이다.

07~09 개념으로 작품 읽기

옛우물_ 오정희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작가의 단편 소설집 《옛우물》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 소설로, 마흔다섯 번째 생일을 맞은 주인공 '나'가 유년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 '나'는 평범한 일상을 열거하는 동시에 자기 고백적 서술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느끼는 성찰을 풀어내고 있다.

이 작품은 '나'가 생일날 아침,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날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나 연당집 등을 통해 생애와 소멸, 그리움과 사랑 등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어린 시절 자신이 보았던 '옛우물'을 떠올리며 '옛우물'로 상징되는 여성의 자궁을 통해 영원히 순환되는 생명력과 여성성을 깨닫게 된다.

이 작품에서 '옛우물'은 막냇동생의 탄생과,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금빛 잉어를 통해 생명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획득한다. 또한 '우물'은 우물에 빠져 죽은 정옥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결국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이 모두 우물 안으로 귀결됨으로써 탄생은 죽음으로, 죽음은 다시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서술자는? '나'
-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은? 중년 여성인 서술자 '나', 남편, 열일곱 살의 아들, 치매 상태의 노모
- 상황은? '나'의 생일날에 '나'는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날을 회상하고, 갈라 파고스와 '도도'라는 멸종된 새를 떠올리며 중년의 주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성찰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도도'처럼 자신도 스스로 가능성이 도태된 존재라고 생각함.
- 주제는? ① 삶(생명)과 죽음에 대한 성찰
② 여성의 자궁(모성)을 통해 영원히 순환하는 생명력

핵심 정리

배경 |

- 시간: 2000년대 이후 현재
- 공간: 지방의 한 도시에 위치한 '나'의 집, 도로, 찻집, 사우나 등

특징 |

-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 '옛우물, 연당집, 예성아파트' 등 여러 공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

전체 줄거리 |

발단	주인공 '나'는 어느 지방 도시에 사는 마흔다섯 살의 중년 주부이다. '나'는 자신의 생일날 막냇동생이 태어나는 순간을 회상한다. 또한 갈라파고스와, 멸종된 새인 '도도'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린다. <수록 부분>
전개	'나'는 집안일을 마치고 집을 나서 시장을 들렀다가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관찰한다. '나'는 어릴 적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기도 하고, 간질 발작을 일으킨 남자를 보며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위기	'나'와 남편은 같은 해에 태어나 유년기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들의 관계는 위선적인 무엇인가가 있다. '나'는 남편이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서로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절정	'나'는 설빔 잠들었다가 옛우물과 금빛 잉어에 관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와 옛우물에 얹힌 어린 시절에 대해 떠올린다. 정육이 우물에 빠져 죽은 뒤에 우물은 메워졌다.
결말	'나'는 자주 예성아파트에 와서 연당집이 허물어지는 모습과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바보를 바라보며, 젊은 시절 '그'에 대해 떠올린다. 나는 삶과 죽음, 사랑과 그리움에 대해 생각하며 조금 울고 집으로 돌아온다.

07

㉮ ④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의 '나'는 “남편과 함께 성장을 하고 밤 외출을 하기도 한다.”라고 서술하였으므로 가족에게서 벗어나 성장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자신의 생일에, 그해 봄날에 대한 기억은 없다면서 오히려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날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 ② '나'는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사십오 년은 “부자도 가난뱅이도 될 수 있고 ~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③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의 학교 자모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재활 센터에서 자원봉사 일을 하는 등 규칙적으로 모임에 참석한다. 그러나 글의 마지막에서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⑤ '나'는 “내 손으로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마늘과 생강이 어우러져 내는 맛을 알고 행주와 걸레의 질서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집안일임을 알 수 있다.

08

㉮ ⑥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가 독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날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감각적인 문장이 일부 나타나지만 혼란스러운 시대상과는 무관하다.
- ② 막냇동생이 태어나던 날을 떠올리고는 있지만 인물의 행적이나 갈등의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③ 이 소설은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나'의 자기고백적 성찰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사건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사십오 년이란 무엇일까’, ‘~ 여기지 않았는가’, ‘~ 나타내지 않았는가’와 같은 의문과 추측의 종결 어미가 몇 차례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내용은 아니다.

09

㉮ ③번이 답인 이유

주인공은 아들에게서 '도도'가 이미 4백 년 전에 멸종된 새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주인공은 '도도'를 통해 젊은 시절의 모든 가능성과 꿈을 잃은 채 중년의 주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나'가 갈라파고스 섬의 희귀종을 떠올린 것은 그곳에서 일주일 이상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의 잔상 때문이며 현대 과학 문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 ② '나'의 아들이 '도도'라는 이름을 자기 물건에 붙여 놓았다는 사실과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전체 맥락에도 맞지 않다.
- ④ 이 글에서 '나'와 아들 간의 갈등을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도도'가 이들 간의 갈등 해소를 돕는 소재라고 보기 어렵다.
- ⑤ '나'는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는 것은 “관습과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두려움과 항거”를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도'라는 소재가 '두렵지만 항거하고자 하는 현실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9 배경의 종류와 기능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179~182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배경 (2) 시간적 (3) 도시적 2 (1) ○ (2) X (3) ○ 3 ① 분위기 ② 심리, 전개 방향 ③ 개연성 ④ 주제

01 ④ 02 ④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④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서울, 1964년 겨울_ 김승옥

공간적 배경인 '여관'과 시간적 배경인 '겨울'이 이 글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서로 알지 못하는 세 남자가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발생한 일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나'와 '안'은 자신들의 진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심각하고 진지한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나 가치 지향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삼십 대의 외관원 사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고뇌와 비애를 공유할 것을 간청한다. 그러나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나'와 '안'에게 그 사내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사내가 화재가 난 곳을 찾아가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버리는 행위는 허위적이고 비인간적인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의 표현이다. 또 세 사람이 여관으로 와서도 각각 다른 방을 쓰게 되고, '안'의 경우 외관원 사내가 자살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인간적 유대가 없는 현대 사회의 소외는 극대화되고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 서술자는? 작품 속 서술자 •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판 것을 괴로워하는 '사내'와, '사내'의 괴로운 모습에도 개인적인 모습을 보이는 '안', 어느 정도 인간다운 모습은 있으나 결국 개인주의에 동조하는 '나'
- 상황은? 우연히 만난 '사내', '안', '나'가 여관에 들어가 각각 다른 방을 잡았고, 다음날 사내의 자살을 알게 된 '나'와 '안'이 급히 여관에서 나옴.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서술자는 '사내'를 '안'보다는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안'의 개인주의에 동조하거나 사내의 죽음에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주제는? 뚜렷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도시인들의 방황과 연대감을 상실한 도시인들의 절망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1964년 어느 겨울밤 • 공간: 서울 거리

특징

- 등장인물을 익명화하여 제시함.
- 여관을 '벽으로 나누어진 방'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전달함.

전체 줄거리

발단	'나'는 '안'이라는 냉소적인 성격의 대학원생을 우연히 만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무의미한 대화를 나눈다.
전개	늦은 사내가 불꽃 다가와 오늘 아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함께하기를 부탁하고, '나'와 '안'은 그 사내와 함께 서울 밤거리를 돌아다닌다.
위기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세 사람은 소방차를 따라가서 불구경을 하게 된다. 화재가 난 곳에서 사내는 아내의 시체를 판 돈을 불 속에 던지고는, 돌아가려는 '나'와 '안'에게 혼자 있기가 무섭다며 같이 있어 달라고 한다.
절정	세 사람은 여관에 들어가게 되고, '나'는 사내를 생각해서 같은 방에 들어가기를 제안한다. 그러나 '안'은 각기 다른 방을 쓸 것을 주장하고, 결국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에 묵게 된다. <수록 부분>
결말	다음날 아침, 사내가 자살할 것을 알게 된 '안'은 그 사내를 살리는 길이 그를 혼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한다. '나'와 '안'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여관에서 나와 헤어진다. <수록 부분>

01

㉮ 4번이 답인 이유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라는 ‘안’의 말과 “역시…….”라는 ‘나’의 말을 고려할 때 사내의 죽음을 반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안’과 ‘나’의 성격 역시 작품 내내 변하지 않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인물의 성격은 ‘나’, ‘안’, ‘사내’ 사이의 대화와 이들의 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다.
- ②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 ‘나’가 ‘안’과 ‘사내’를 우연히 만남으로써 겪은 사건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③ 비교적 짧은 길이의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되었다. 또한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등에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⑤ ‘1964년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제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02

㉮ 4번이 답인 이유

‘나’는 모두 한 방에 들자고 하고 화투를 사서 함께 놀자고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안’의 거절에 곧바로 동조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내’에 대한 ‘나’의 배려가 일시적인 연민에 불과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나’의 행동이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이 글의 주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피하기

- ① ‘벽으로 나누어진 방’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관이 개인을 소외시키고 서로를 단절시키는 공간임이 드러난다.
- ②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다.”라는 서술은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인 거리에서는 ‘사내’, ‘안’, ‘나’가 함께할 수 있었으나, 거리보다 훨씬 좁은 공간인 여관에서는 오히려 세 사람이 각기 떨어져 있게 됨을 의미한다.

03

㉮ 4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의 사회적 배경은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인 4·19 혁명이 일어난 이후이다. 혁명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시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우울하고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허무와 권태를 느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인 ‘겨울’의 춥고 차디찬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되었다.

04~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메밀꽃 필 무렵_ 이효석

시간·공간적 배경이 인물들의 심리와 작품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며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일생을 길 위에서 살아가는 장돌뱅이의 삶과 애환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애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소

설은 토속적인 어휘와 서정적이고도 낭만적인 묘사로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백미로 평가되고 있다.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산길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부자(父子) 상봉의 모티프를 한 폭의 수채화 속에 구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달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작품의 서사 구조를 이끄는 기능을 한다. 허생원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서사가 진행되는 것도 달밤이며, 허생원과 성 서방네 처녀가 만나게 된 것도 달밤이었기 때문이다. 배경이 작품의 서사 진행과 긴밀한 연관관 맺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중심 구조는 허생원과 동이 사이의 갈등과 해소에 있다. 작가는 치밀하게 계산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구조적으로 배치하고 적절한 공간적 배경과 향토적 어휘를 구사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 서술자는? 작품 밖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평생을 장돌뱅이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의 낭만적인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나'와, 허생원의 친자식으로 암시되는 '동이', 그리고 허생원의 친구인 '조 선달'
- 상황은? 다음 장으로 이동하는 달밤에 허생원이 지난 날 성 처녀와의 인연을 회상한 후, 이어지는 동이의 이야기를 통해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암시가 드러난다.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거나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않고 관찰자로서 서술함. 이로써 독자에게 여운을 남김.
- 주제는? 떠돌이 삶의 애환과 혈연의 정

핵심 정리

- 배경 | • 시간: 1920년대 어느 여름날의 낮부터 밤까지
- 공간: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 장터로 가는 길

특징 |

- 전지적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함.
- 서정적이며 시적인 문체를 구사하여 배경을 낭만적으로 묘사함.
- 암시와 여운을 남기는 결말 구성을 취함.

전체 줄거리 |

발단	장돌뱅이인 허생원은 봉평 장에서 동이라는 장돌뱅이가 총쪼집과 수작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쫓아 버린 뒤 바로 화해한다.
전개	다음 장터로 가는 길에 허생원, 조 선달, 동이는 동행하게 되고, 허생원은 오래 전 추억을 이야기한다. <수록 부분>
절정	동이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동이 어머니의 친정이 봉평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허생원은 개울을 건너다가 물에 빠진다. <수록 부분>
결말	허생원은 동이의 등에 업혀 개울을 건넌 후, 동이가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라는 점을 발견한다.

04

㉮ 4번이 답인 이유

이 소설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핀 달밤의 산길'이라는 배경을 묘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이 묘사하는 배경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배경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작품의 분위기 형성, 사건의 진행, 주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묘사가 허생원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글에서 허생원

이 성 서방네 처녀와의 과거에 미련을 보이는 것은 추억을 간직하려 하는 소박한 행위로, 이를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달밤은 허생원이 과거의 어느 달밤에 겪었던 성 처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② 메밀꽃이 핀 달밤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허생원이 사랑이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④ 메밀꽃이 핀 달밤이라는 낭만적인 배경은 독자가 허생원의 추억을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게 한다.
- ⑤ 달빛이 비치는 메밀밭과 산길이 향토적 서정을 자아내고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허생원은 조 선달과 자신의 추억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또 동이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된다.

05

㉮ 4번이 답인 이유

'이곳'은 고개이다. 고개를 지나려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행위를 해야 하므로 고개를 지나가는 것은 '수직적'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허생원은 고개를 넘으면서 미끄러지는 나귀와 차오르는 숨 때문에 '거듭 시련을 겪'는다. 고개를 넘은 후 허생원이 이동한 '다음 공간'은 개울로, 여기서 허생원은 동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동이의 어머니가 성 서방네 처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울에서 허생원은 자신이 정착할 유일한 이유("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 살까…….")인 성 서방네 처녀의 소식을 발견하므로, 개울은 '정착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공간이다.

06

㉮ 5번이 답인 이유

이 작품에서 길이라는 배경은 그 너비의 변화에 따라 허생원과 동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③에서는 길이 좁아짐으로써, 허생원이 조 선달에게 말한 성 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동이가 듣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동이는 허생원과 자신의 관계를 짐작하지 못하고, 이는 독자에게 서사적 긴장감을 준다. 한편 허생원과 조 선달의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길이 넓어져 동이와 허생원이 나란히 걸으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게 된다.

07

㉮ 4번이 답인 이유

허생원은 동이 어머니가 성 서방네 처녀일지 모른다는 기대로 동이 어머니의 고향과 동이 아버지의 성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다. 따라서 허생원이 '제천', '봉평'이라는 지명을 낚설어하여 탐정식 질문을 한다고 볼 수 없다.

폼엔들 잇힐리아 수능 다가가기

p.190~195

01 ① 02 ⑤ 03 ④ 04 ⑤ 05 ② 06 ⑤

줄거리 요약 [191쪽] ① 물 ② 배신감 ③ 출근 ④ 수위 ⑤ 배신감
⑥ 양심
[194쪽] ① 고두신짜 ② 미심 ③ 액땀 ④ 큰 산 ⑤ 공포감



작품 분석하기

[191쪽]

시점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여 아버지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요 상황		물을 무서워하는 '나'를 아버지가 물에 빠뜨림.	아버지가 꼬오다와 생쥐 같은 사내들에게 '경련'을 함.	고등학생이 되어 아버지가 많이 늙으심.
태도와 반응	나	• 지독한 배신감을 느낌. • 충격과 분노로 수영을 배움.	고독감을 느끼고 지독한 앙심을 품음.	앙심은 사라지고, 연민만 남음.
	아버지	허리를 비틀고 질질대고 웃음.	별안간 질질대며 지독한 웃음을 웃음.	

[194쪽]

시점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하여 고무신 짝과 관련한 사건과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상황		아내가 고무신 짝을 이웃집 담장으로 버림.	눈이 내림.	고무신 짝이 다시 돌아옴.
태도와 반응	나	아내가 고무신 짝을 아무 집 담장으로 버렸으리라 추측함.	고향의 큰 산이 떠오른 것을 애써 지워 버리려함.	공포를 느낌.
	아내	'나'에게 아무 내색을 하지 않음.	즐거워함.	공포를 느낌.

01~03

2015학년도 6월 고2 학력평가

박완서, 〈배반의 여름〉

주제 우상들의 배반을 통한 성장기 소년의 자아 성장

해제 이 작품은 주인공 '나'가 더운 여름날 겪었던 배반의 에피소드 세 가지를 회상의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제시문은 아버지에게 가졌던 '나'의 기대와 믿음이 무너지는 두 번의 사건을 보여 주고 있는데, 어린 '나'는 이러한 배반을 경험한 순간 큰 충격을 받지만 아버지에게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이 작품은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인 여름과 소년의 성장이 대응되어 작품의 구조적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전체 줄거리

발단	누이의 죽음 이후 물을 무서워하는 '나'를 아버지가 풀장에 빠뜨린다. 이를 계기로 수영을 배우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수록 부분>
전개	우상이었던 아버지의 직업이 수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수록 부분>
위기	아버지의 직업에 충격을 받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절정	고등학생이 되어 새로운 우상으로 전구라를 섬기는 나에게 아버지는 그의 일화를 들려준다.
결말	전구라의 실상을 알게 된 '나'는 '나'의 남자다움을 카우겠다고 다짐한다.

특징

- 회상 형식을 통해 우상의 배반으로 내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 줌.
- 다 알게 된 사실을 모르는 척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이끌어 냄.
- 기대하는 바와 어긋나는 결과가 반복하여 나타나면서 극적 반전을 유도함.

01 서술상 특징

정답 ① 정답률 76%

㉠ 1번이 답인 이유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이 소설은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등장인물이면서 서술자인 '나'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넥타이 맨 생쥐 같은 사내들은 ~ 아버지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가 있었다.” 등의 부분에서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시대적 상황 묘사를 통하여 /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이 글에서 시대적 상황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고, 또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서술된다.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이 작품은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의 장면은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비속어나 구어체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지만,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입장에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과거와 현재의 교차(→163쪽) • 입체감(→163쪽)

• 사건의 객관적 서술(→116쪽)

사실성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것이어야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 이에 작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이며 한다. 대상에 거리를 두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사실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02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⑤ 정답률 73%

보기

이 작품은 '기대-배반-성장'의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주인공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아버지에게 대해 기대와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배반을 경험한다. 하지만 차츰 아버지에게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 5번이 답인 이유

⑤ ㉠은 '아버지'의 웃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나'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보여 주는군.

➔ <보기>에서 내적 성장은 아버지에게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㉔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배반의 경험이므로 내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㉔에서 물을 무서워하는 '나'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군.
- ➡ <보기>에서 주인공은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아버지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㉔에서 "아버지와 같이라면 폴도 조금쯤은 덜 무서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아버지 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㉔은 '나'가 '아버지'의 행동으로 기대와 믿음이 깨어지자 보인 반응 이군.
- ➡ <보기>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배반을 경험한다고 한다. ㉔에서 믿었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아버지로부터 배반을 경험한 나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㉔에서 '아버지'에게 느낀 배반감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군.
- ➡ <보기>에서 배반을 경험하고,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룬다고 진술한다. ㉔에서는 배반감에서 비롯된 분노로 수업을 배우고, 물에 대한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고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 ④ ㉔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해 줄 실체를 찾으려는 기대에서 나온 행동이군.
- ➡ <보기>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진술한다. ㉔에서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로 아버지의 시중꾼을 찾는 '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표현상 특징과 효과

정답 ④ 정답률 82%

㉔ 4번이 답인 이유

- ④ [A]는 새로운 공간이, [B]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 ➡ [A]에서 '나'는 무지무지하게 높은 집만 있는 동네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서 아버지를 잃으면 생전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따라 나온 것을 후회한다. 또, [B]에서 '나'는 쪼오다의 등장으로 아버지의 처지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는다. 결국 [A]는 '동네'라는 공간이, [B]는 '쪼오다'라는 인물이 '나'의 심리를 변화시킨다.

오답 풀이

- ① [A], [B] 모두 현재형 진술을 통해 긴박감을 조성한다.
- ➡ [A], [B] 모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았-'을 사용하여 과거형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② [A], [B] 모두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
- ➡ [A], [B] 모두 배경 묘사가 나타나지 않고, 미래 사건에 대한 암시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③ [A]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B]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 [A]에서는 '나'의 불안이라는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만, [B]에서는 아버지의 행위를 제시할 뿐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A]에서는 직접적 제시를 통해, [B]에서는 간접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 [B]는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아버지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A]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현재형 진술(→147쪽)
- 긴박감: '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느낌'을 뜻한다.
- 직접적 제시(→133쪽)
- 간접적 제시(→133쪽)

04~06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이호철, <큰 산>

주제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 비판

해제 액운을 환기하는 고무신 짝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현대인들의 소시민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이러한 태도의 원인을 그들이 공동체의 질서와 균형을 잡아 주는 근원적인 힘, 즉 '큰 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큰 산'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조화의 질서와 윤리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근원이 되는 '큰 산'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전체 줄거리

발단	첫눈이 내린 날 아침에 대문 옆 담에 '고무신 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름칙함을 느낀다.
전개	어릴 적 '큰 산'을 회상하고, '큰 산'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위기·절정	아내가 다른 집 담장으로 던진 '고무신 짝'이 마당에 있는 것을 보고 공포감을 느낀다.
결말	아내가 신문에 쓴 신발을 갖다 버리고 다소 흥분해진 마음으로 돌아오고,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특징

- 상징적 소재로 주제 의식을 드러냄.
- 회상 구조를 통해 현재와 과거가 긴밀하게 연결됨.
- 대상에서 느낀 서술자의 개인적 체험과 인식이 사회적 의미로 확장됨.



04 서술상 특징

정답 ⑤ 정답률 72%

㉮ ⑥번이 답인 이유

- ⑤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 그렇게 그쯤으로 액땀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을 포함한 요약적 진술을 통해 지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현재 아내와 ‘나’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치하여 /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나란히 배치 더디게 하고
- ➡ 이 작품은 열흘 전과 열흘 후의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한 것이지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나’의 상념으로 인한 서사의 지연이 일어나지만, 사건을 병치하여 서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여 / 인물 간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3인칭 서술자
- ➡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인물 간의 갈등도 드러나지 않았다.
- ③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여 /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을 대상에서 다른 사건이나 사물을 떠올리는 것 구체화하고 있다.
- ➡ ‘나’는 고향의 큰 산을 떠올리지만 이내 지워 버린다. 그러므로 연상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시대 상황의 이념적 성격과도 거리가 멀다.
- ④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을 통해 / 인물의 위선적 면모를 표면화하고 있다.
- ➡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는 고무신짝과 관련된 사건에 개입되어 있으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이의 객관적 관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개념의 좌표 찾기

- 사건의 병치(→164쪽) • 서사 진행 지연(→130, 131쪽)
-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114~116쪽)
- 연상: 어떤 대상에서 다른 사건이나 사물을 떠올리는 것.
- 객관적 관점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한다. 서술자가 서술하고자 하는 사건에 개입되지 않거나,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과 거리를 멀리할수록 객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다.
- 요약적 진술(→130쪽)

05 소재·배경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② 정답률 71%

㉮ ②번이 답인 이유

- ②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밝은 분위기가 ‘나’와 ‘아내’의 불안감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로 바뀐다.
- ➡ 아내는 전날 고무신을 아무 집 담장 너머로 횡 던져 버렸다. 이로써 느끼는 개운하고 즐거운 기분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의 맑고 밝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담 밑 고무신짝을 발견한 이후부터 ‘아내’와 ‘나’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눈 내린 겨울 아침의 활짝 갠 하늘을 보고 ‘나’는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한다.
- ➡ ‘나’는 눈 내린 풍경을 보고 기뻐하는 아내에게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있다. 또한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 주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③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상실감에 젖는다.
- ➡ ‘나’와 ‘아내’는 ‘열흘쯤 전’ 고무신짝이 담 안으로 날아든 일을 ‘없었던 셈’으로 치고 서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열흘쯤 전’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상실감에 젖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눈 내린 겨울 아침에 ‘아내’는 감정에 들떠 한때 ‘나’에 대해 가졌던 ‘미심한 느낌’을 떨쳐 버린다.
- ➡ ‘아내’는 ‘열흘쯤 전’에 고무신짝이 담 안으로 날아든 일에 대해 미심함을 느꼈을 뿐, ‘나’에게 미심한 느낌을 가지지는 않았다.
- ⑤ 눈 내린 겨울 아침에 ‘나’는 ‘고향의 그 큰 산’에서 겪은 일에 대한 기억을 낱날이 되살리려 애쓴다.
- ➡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 버렸다.”라고 서술했으므로 큰 산에 대한 기억을 낱날이 되살리려 애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6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⑤ 정답률 79%

보기

〈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도시에서 살면서도 아직은 합리적 사고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미신을 믿는 아내

고무신 짝을 이웃집에 던져 버림

고무신 짝에 의미를 부여하고, 되돌아온 고무신 짝을 보고 공포를 느낌

나는 합리적인 성격의 인물임

나는 자신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고 생각하지만

고무신 짝이 되돌아온 것에 두려움을 느낌

⑤번이 답인 이유

- 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
-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 합리적인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아침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낼 뿐이다. 또 〈보기〉는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만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고무신 짝의 논리’가 ‘액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보기〉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에게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는 ‘액운’으로 여겨지는 고무신 짝을 불길하게 여기고 ‘고무신 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던지면서 ‘액땀’을 했다고 여기는 ‘아내’의 행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 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보기〉에서 도시인들은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고 한다. 이는 액운을 상징하는 고무신 짝을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는 이기적인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보기〉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주술적인 사고방식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과도기적 상황을 언급한다. 이는 버린 고무신 짝을 다시 발견했을 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주술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공포감을 느끼는 ‘나’와 ‘아내’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 짝’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
- 〈보기〉에서 상이한 가치관 즉,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주술적인 사고방식 사이에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다고 언급하고 있는

데, 이는 ‘나’가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싫거든.”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마당에 있는 고무신 짝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IV. 고전 소설

01 고전 소설의 개념과 특징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202~205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전형적 (2) 이원적 (3) 우연성
2 (1) ○ (2) × 3 ㉠ 고귀한 ㉡ 능력 ㉢ 조력자

01 ② 02 ③ 03 팔선녀 04 ⑤ 05 ② 06 ②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이생규장전_김시습

‘우연성’과 ‘전기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읽으며 고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이생과 최랑의 자유연애가 등장한다. 두 사람은 관습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사랑을 하지만 흥건적의 난으로 최랑이 죽고 만다. 두 사람의 사랑은 최랑의 환생이라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다시 이루어지는데, 이는 비극적 현실을 환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 서술자는? 작품 밖의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시문에 능하고 수려한 외모를 지닌 선비 ‘이생’, 흥건적의 위협에도 절개를 지킨 ‘최랑’
- 상황은? 이생과 결혼한 최 씨(최랑)는 흥건적의 난을 당해 정조를 지키려다 죽게 된. 죽은 아내(최 씨)의 환신이 돌아오고, 이생은 그녀가 환신임을 알면서도 함께 살기로 함.
-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핵심 정리

- 갈래: 한문 소설, 애정 소설, 전기(傳奇) 소설
- 형식상 특징: 현실 속 인물이 환생한 존재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다룸.
- 의의: 최초의 한문 소설, 조선 시대 소설 발달에 큰 영향을 줌.

| 배경 | • 시간: 고려 말(공민왕) 흥건적의 난 때
• 공간: 조선 황해도 송도(개성) 선죽리

특징

- 인물과 현실 세계가 팽팽하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갈등을 드러냄.
- 인간 욕망의 성취라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소망을 잘 반영함.
- 작가의 진보적 애정관이 드러남.
-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킨 점에서 자주 의의가 드러남.
- 시를 삽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전체 줄거리

발단	이생은 어느 봄날 서당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담 너머로 최 씨 집 안의 아름다운 처녀 최랑을 보게 된다.
전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는데, 이생의 부모가 이를 눈치채고 둘을 헤어지게 한다. 최랑이 상사병에 걸리자 최랑의 부모는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여 두 사람을 혼인시킨다.
위기	흥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최랑은 정조를 지키다가 흥건적의 손에 죽게 된다.

절정	이생이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슬퍼하던 중, 최랑이 환생하여 돌아오고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삼 년 동안 행복하게 산다. <수록 부분>
결말	최랑은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장사 지내 줄 것을 부탁하며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한다. 이생은 아내의 유언에 따라 장사를 지내 주고, 아내를 그리워하다 병들어 죽는다.

01

㉠ ②번이 답인 이유

아내가 환생하는 것에서 고전 소설의 전기성(傳奇性)이 드러나지만 아내를 천상의 인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내가 적장을 했다고도 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이미 죽은 아내가 환생하여 이생과 만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 이므로, 전기성(傳奇性)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 이생은 아내가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살기로 한다. 이러한 이생의 태도에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 평면적 인물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을 말한다. 이생은 아내가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도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므로 ‘평면적 인물’로 볼 수 있다.
- 이생은 죽은 아내와 빈집에서 우연히 만나고 있다.

02

㉠ ③번이 답인 이유

이생의 아내인 최랑이 도적을 만나 남편과 헤어지고, 사망하여 해골이 흩어진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시는 ③이다.

오답 피하기

- 윤선도의 연시조 <만흥(漫興)>의 제3수로, ‘퇴(山)’가 그리워하던 임보다 더 반갑다고 하는 자연 친화적 태도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 황진이의 시조로, 자신과 떨어져 있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 월산 대군의 시조로, 가을 강에 낚시를 하러 가서 빈 배에 달빛을 싣고 돌아온다는 점에서 욕심 없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사랑이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③과 함께 <이생규장전>에 삽입된 시이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구운몽_김만중

이원적 구성과 환몽 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을 읽으며 고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현실 → 꿈 → 현실’의 환몽 구조로 세속적 욕망이 꿈속의 일처럼 허망한 것임을 말하는 소설이다. 또한 환몽의 전환 과정이나 남녀의 만남 과정을 실감 나게 서술하여 독자를 사로잡고 있으며, 등장인물이 각각의 개성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문체로 배경과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 서술자는? 작품 밖의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세속의 부귀영화를 탐내다가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성진', 가르침을 주기 위해 성진을 인간 세계로 내쫓아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알려 주는 '육관 대사'
- 상황은? 성진이 불교의 가르침을 잊은 채 술을 마시고 팔선녀와 놀았던 일 때문에 인간 세계로 쫓겨나게 됨.
- 주제는?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

핵심 정리

- 갈래: 국문 소설, 애정 소설, 영웅 소설, 환몽 소설, 액자 소설
- 형식상 특징: 환몽 구조를 액자식으로 구성함.
- 의의: '현실-꿈-현실'의 구조를 완벽하게 장편 소설로 그려 내 후대의 소설에 영향을 미침.
- 연대: 조선 숙종 15년(1689) 남해 유배 시절(작가 53세)

| 배경 | • 시간: 중국 당나라 때

- 공간: 남악 형상의 연화봉(현실:천상계), 당나라 서울과 중국 일대의 변방(꿈:지상계)

| 사상적 배경 |

- 유교적 사상: 입신양명, 부귀공명(당시 양반 사회의 이상적 인생관)
- 도교적 사상: 작품의 비현실적 내용을 이루는 신선 사상(선녀와 용왕 등)
- 불교적 사상: 핵심적 주제를 이루는 사상 → 공(空) 사상

| 특징 |

- '현실 → 꿈 → 현실'의 이원적 환몽 구조를 지닌 일대기 형식임.
-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나타나며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임.
- 설화 '조선의 꿈'의 영향을 받음.

| 전체 줄거리 |

발단	성진이 세속의 부귀영화를 탐내다가 육관 대사에 의해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수록 부분>
전개	성진은 인간 세계에서 양소유로 환생하고, 성진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 환생한 팔선녀와 차례로 인연을 맺는다.
위기	두 부인과 여섯 첩을 거느린 양소유는 입신양명하여 벼슬이 승상에 이르는 등 부귀영화를 누린다.
절정	양소유는 두 부인과 여섯 첩을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랐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이때 한 도승이 그를 꿈에서 깨운다.
결말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잘못을 뉘우치고 불교에 다시 귀의하고, 팔선녀도 불교에 귀의하기를 청한다. 이후 아홉 사람은 불도를 열심히 닦아 모두 극락세계로 들어간다.

03

성진은 팔선녀를 만나고 온 후 그들을 그리워하여 사사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04

☞ 5번이 답인 이유

성진이 풍도로 쫓겨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어기고 인간의 욕망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는 인물의 영웅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인물이 영웅의 일대기를 따른다고 볼 수 없다. 영웅의 일대기가 드러나는 부분은 성진이 인간 세계에서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속에서의 이야기이다.

오답 피하기

- ① 대사가 황건 역사를 부르자 공중에서 신장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대사가 초월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가로되” 등의 서술에서 일상 대

화에서 쓰이지 않는 말투인 문어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작품의 배경인 연화도량은 천상계로서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다.
- ④ ‘뒷부분 줄거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홍길동전_허균

영웅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 소설을 읽으며 고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으로, 적서 차별의 한을 지닌 길동이 자신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과업을 성취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호부호형을 하지 못한 길동은 집을 떠나게 되고 이후 도적들의 수령이 되어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백성을 돕는다. 이는 이 작품이 양반 가정의 모순, 적서 차별의 불합리, 탐관오리의 백성 수탈 등을 폭로하는 소설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홍길동은 다양한 초월적 능력을 보여 주면서 영웅적 자질을 드러내게 된다. 또한 율도국 경영을 통해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 정치 체제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 서술자는? 작품 밖의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조선의 '임금', 서자로 태어나 활빈당 활동을 벌이다가 병조 판서가 된 '홍길동', 길동의 이복 형 '홍인형', 길동의 모친 '춘섬', 길동에게 항복하는 '율도국의 왕'
- 상황은? 병조 판서로 임명된 길동이 조선을 떠나기 전 왕에게 자신의 사연을 말하고 인사를 올림, 길동의 아버지 홍 판서가 죽자 길동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율도국을 공격해 율도국의 왕이 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되어 삼 년만에 태평세계를 만들었다고 서술함, 길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보임.
- 주제는? ① 적서 차별 제도에 대한 길동의 저항
② 불합리한 사회 제도의 개혁과 이상국의 건설

핵심 정리

- 갈래: 한글 소설, 영웅 소설
- 형식상 특징: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됨.
- 의의: 최초의 한글 소설, 조선 시대 적서 차별 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두드러짐.
- 연대: 조선 광해군(1618년)

| 배경 | • 시간: 조선 시대

- 공간: 한양, 율도국

| 특징 |

- 사회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함.
-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 드러나며 전기적 요소가 강함.

| 전체 줄거리 |

발단	길동은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을 서러워하던 중, 홍 판서의 첩 초란이 자신을 해치려 하자 집을 떠난다.
전개	길동은 도적의 무리를 만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무리의 이름을 '활빈당'이라고 짓는다.
위기	길동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탐관오리를 벌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자, 임금은 길동을 잡아들일 것을 명령한다.
절정	길동을 잡는 데 실패한 임금은 길동을 병조 판서로 임명하고, 길동은 활빈당 무리를 이끌고 조선을 떠난다. <수록 부분>
결말	율도국의 왕이 된 길동은 태평성대를 누린다. <수록 부분>



05

㉔ ②번이 답인 이유

길동이 보낸 격서에 항복하는 사람은 울도국 태수가 아니라 울도 왕이다. 울도국 태수 김현충은 길동에게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서자라는 이유로 벼슬이 막혔던 길동은 울도국을 차지하고 왕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였다.
- ③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임금의 그를 선동으로 오해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이므로 전기성이 드러난 부분이다.
- ④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어 울도국을 공격했으며 울도국 태수 김현충을 한칼에 죽이고 울도국을 차지하였다. 이 부분에서 길동의 영웅성이 부각된다.
- ⑤ 흥 판서가 죽은 이후 상주를 맡은 인형은 길동에게 '아우'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길동은 춘삼과의 대화에서 흥 판서를 '부친'이라 칭하고 있다.

06

㉔ ②번이 답인 이유

'임금'은 길동의 재주가 비범하여 칭찬하는 것이지, 당대 사회 제도가 부당하다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에 길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피하기

- ① 길동이 벼슬하지 못하는 것은 '시비' 신분인 어머니 '춘삼'에게서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 ③ 길동은 병조 판서 벼슬을 받자 서자라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행적을 '죄'라고 칭하며, '소원'을 풀었다고 말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길동이 병조 판서라는 개인적 욕망을 성취한 뒤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④ 길동은 '매양 생각해 오던 바'를 시행하기 위해 울도국을 쳐 태평세계의 왕이 된다. 그러나 울도국은 이미 '살기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길동은 자신을 '의병장'이라고 부르며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키매"라고 말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길동이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⑤ 길동은 서자라는 이유로 벼슬길이 막히자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졌다. 그러나 임금은 불만의 근본 원인인 적서 차별의 신분 제도를 없애려 하지 않고, 길동에게만 병조 판서의 벼슬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02 고전 소설의 유형

사뿐히 즈려밟는 학인 문제

p.210~213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애정 (2) 군담 (3) 환몽

2 (1) ○ (2) × 3 ㉠ 꿈 ㉡ 각몽

01 ③ 02 북곽 선생은 세상의 평판과 달리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위선적인 인물이므로 범은 그를 더럽다고 평가한 것이다. 03 ⑤ 04 ③ 05 어찌, 무심하리오 06 ③ 07 ①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호질 박지원

부정적 인물을 풍자하는 표현 기법에 주목하며 풍자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북곽 선생'과 '동리자'라는 부정적인 인물을 우화적 수법을 활용하여 비판한 작품이다. 의인화된 동물인 '범'이 직접 '북곽 선생'을 꾸짖는 방식으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당시 양반 계층의 부패한 도덕관념과 허위의식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범'은 성리학적 이념만을 중시하는 사대부와 그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해 온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범 앞에서 보이는 '북곽 선생'의 비굴한 행동과, 범이 사라지고 난 뒤 '북곽 선생'이 농부 앞에서 보이는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 끝까지 위선과 허세를 버리지 못하는 이중성도 풍자하고 있다.

- 서술자는? 작품 밖의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위선자인 '북곽 선생', 과부이면서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낳은 '동리자', 북곽 선생을 여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동리자의 다섯 아들', 북곽 선생을 꾸짖는 '범'
- 상황은? '북곽 선생'은 과부인 '동리자'와 밤을 보내다 '북곽 선생'을 여우로 착각한 '다섯 아들'에게 쫓겨 귀신인 척하며 도망치다 뚝으로 가득 찬 구덩이에 빠짐. 그 꼴을 본 '범'이 '북곽 선생'에게 '더럽다'고 말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의인화된 동물인 '범'을 내세워 평판과 다르게 행동하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
- 주제는?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 비판

핵심 정리

- 갈래: 한문 소설, 풍자 소설, 우화 소설
- 형식상 특징: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움.
- 의의: 작가가 지닌 실학 정신이 반영됨. 한문 소설의 성과를 집대성했다고 평가받음.
- 연대: 조선 영·정조 때(18세기 후반)

| 배경 | • 시간: 정(鄭)나라

• 공간: 어느 고을

| 특징 |

- 호랑이를 의인화한 우의적 수법을 사용함.
-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하여 제시함.
-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삶을 비판함.

| 전체 줄거리 |

발단	어느 고을에 학자로 존경받는 북곽 선생이라는 선비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하나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둔 과부 동리자가 있었다. <수록 부분>
전개	북곽 선생이 동리자의 방에 들어가 밀회를 즐기고 있는데, 과부의 아들들이 북곽 선생을 천 년 여우로 의심하여 방으로 쳐들어 온다. <수록 부분>
위기	북곽 선생은 도망치다가 동구덩이에 빠진다. <수록 부분>
절정	때마침 먹잇감을 찾아 마을에 내려온 범은 북곽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과 인간들의 파렴치한 행동 등을 날카롭게 꾸짖고 사라진다.
결말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한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다가 새벽에 일하러 나온 농부와 마주친다. 범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북곽 선생은 또다시 위선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자기변명을 한다.

01

㉮ ③번이 답인 이유

동리자는 열녀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미 부도덕한 행동을 통해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둔 결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동리자가 자신을 열녀로 받드는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낳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천자는 북곽 선생의 행동을 가상히 여겼고 제후는 그의 명망을 존경했다. 그러나 북곽 선생은 늦은 밤 과부의 방에 들어가는 등, 당시에는 금기시되던 행동을 하는 인물이므로 북곽 선생에 대한 천자와 제후의 평가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동리자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간 북곽 선생을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으로 착각했으므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우를 잡는다고 방에 쳐들어가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
- ④ 북곽 선생은 밤 늦게 과부의 방에 든 자신의 행동이 몇몇하지 못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귀신 흉내를 내며 도망치는 것이다.
- ⑤ 북곽 선생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형으로, 당시 지배층의 위선적 면모를 보여 주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02

이 작품은 위선적이며 부패한 사대부(선비) 계층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다.

03~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유충렬전_작자 미상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 주목하며 군담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조선 후기 군담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 충실히 구현되었으며, 천상계의 신선이었던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이원적 구성과 적강 구성도 나타난다. 주인공이자 충신인 '유충렬'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간신 '정한담'의 모함과 반역으로 위기에 처하지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가문과 국가를 구출하게 된다.

또 유충렬이 호국을 정벌하고 통쾌한 설욕을 하는 장면은 병자호란 이후 생긴 민중들의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술자는? 작품 밖의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수인 '유충렬', 스스로 천자가 될 능력을 지녔다고 천자를 협박하는 '정한담', 유충렬을 믿고 있다가 정한담의 습격을 받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천자'
- 상황은? 유충렬이 정한담의 계략에 속아 금산성으로 간 사이 정한담은 천자가 있는 도성을 습격해 항서를 쓸 것을 요구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천자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음.
- 주제는?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인 행적

핵심 정리

- 갈래: 국문 소설,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적강 소설
- 형식상 특징: 유충렬의 행적이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을 따름.
- 의의: 영웅 소설의 전형적 요소를 갖춘 대표적인 작품, 청나라에 대한 당대 민중들의 강한 반감이 드러남.
- 연대: 미상(조선 후기-18세기 후반으로 추정)

| 배경 | • 시간: 중국 명나라 시대 • 공간: 명나라 조정과 중국 대륙

| 특징 |

- 천상계와 지상계로 이원적 공간이 설정됨.
- 전형적인 영웅 소설, 군담 소설임.

| 전체 줄거리 |

발단	명나라 고관인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자 산천에 기도하여 신이한 태몽을 꾸고 충렬을 낳는다.
전개	유심의 정치적 적인 간신 정한담은 누명을 씌워 유심을 귀양 보내고 충렬 모자마저 죽이려 하나, 충렬은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강희주의 사위가 된다.
위기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고 충렬은 아내와 헤어져 광덕산의 도승을 만나 도술을 배우게 된다.
절정	정한담이 남적, 북적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충렬이 등장해 천자를 구해 낸다. <수록 부분>
결말	충렬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하며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아버지와 장인을 구한 뒤 아내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03

㉮ ⑤번이 답인 이유

정한담은 충렬이 천자가 있는 도성이 아닌 금산성으로 가도록 계략을 꾸몄다. 이후 충렬이 없는 틈을 타 천자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오답 피하기

- ① '천자'는 옥새를 품고 도망치다가 '정한담'에게 붙잡혔으므로 옥새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 ② '정한담'은 '유충렬'을 금산성으로 유인한 후 자신은 정예병만을 거느리고 '천자'를 잡기 위해 도성으로 갔다.
- ③ '정한담'은 자기 자신을 하늘이 낸 영웅이며 천자가 될 운명이라고 말했다.
- ④ '천자'는 '원수(유충렬)'만을 믿고 안심하여 깊이 잠들어 있었으며, 성 안을 지키는 군사는 거의 없었다.

04

㉮ ③번이 답인 이유

㉮에서는 과장법이 쓰였다.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인물의 행위를 과장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충렬의 부모는 자식을 얻기 위해 형산에서 기도한 후 신기하고 이상한 꿈을 꾸고 충렬을 낳았다. 이는 영웅의 일대기에서 '기이한 출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② 부모와 떨어진 충렬은 강희주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진다. 따라서 강희주는 충렬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호국의 군사들을 낮잡아 '되놈'이라고 칭하는 것은 당시 오랑캐에 대한 민중들의 적개심을 반영한 서술이다.



정답과 해설

- ⑤ 정한담 또한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인물로, 비범한 능력을 보이며 유충렬과 대립하고 있다. 정한담이 고향을 지르자 “궁궐이 무너지고 혼백이 상천”한다는 내용은 정한담의 비범함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05

서술자는 명나라의 황제(천자)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황천(하늘)이 돕지 않을 리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06~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사씨남정기_김만중

처첩 간의 갈등에 주목하며 가정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축첩 제도의 불합리함과 권선징악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어 당대 축첩제라는 사회·문화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소설이 영웅의 일대기나 남녀의 애정을 주로 다룬 것에 비해,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가정 소설의 영역을 개척했다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이 소설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창작 당시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희빈 장씨를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지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 서술자는? 작품 밖의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으나 모함을 받아 떠돌고 있는 ‘사 씨’, 유배지에서 조강지처를 내친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유연수(유 한림)’
- 상황은? 사 씨는 천성이 간악한 교 씨의 모함으로 집에서 쫓겨나 남쪽에서 떠돌고 있음, 유 한림 역시 교 씨의 모함으로 유배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제는? 처첩 간의 갈등과 사 씨의 고난, 권선징악

핵심 정리

- 갈래: 국문 소설, 가정 소설
- 형식상 특징: 각 인물이 당시의 특정 인물을 암시함(숙종-유연수, 인현 왕후-사 씨, 희빈 장씨-교 씨), 인현 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 장씨를 중전으로 책봉한 숙종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일종의 목적을 지님.
- 의의: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된 처첩 간의 갈등을 소설화한 최초의 작품, 가정 소설의 전형을 보여 주며 후대 소설에 영향을 미침.
- 연대: 조선 숙종(15~18년)

| 배경 | • 시간: 중국 명나라 초기 • 공간: 중국 북경, 장사

| 특징 |

- 가정 소설의 전형임.
- 축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함.

| 전체 줄거리 |

발단	중국 명나라 세종 때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연은 늦게야 아들 연수를 얻는다. 연수는 열다섯 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받는다.
전개	유 한림(유연수)은 사 씨와 결혼하지만, 늦도록 아이가 없어 교 씨를 첩으로 들인다. 교 씨는 천성이 간악한 인물로 아들을 낳자 정실이 되기 위해 사 씨를 모함한다. 결국 유 한림은 사 씨를 내보내고 교 씨를 정실부인으로 삼는다. <수록 부분>
위기	교 씨는 문객인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 한림을 모함하여 유배시킨다. <수록 부분>

절정	조정은 유 한림에 대한 혐의를 풀어 다시 불러들이고, 충신을 모함한 동청을 처형한다.
결말	유 한림은 사방으로 사 씨의 행방을 찾다가 소식을 듣고 온 사 씨와 만난다. 유 한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교 씨를 처형하고, 사 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들인다.

06

㉠ ③번이 답인 이유

사 씨가 꿈에서 본 두 왕비의 모습과 현실의 사당에서 본 초상화의 얼굴이 일치하며, 사 씨는 초상화에 절을 하며 예를 표한다. 따라서 ‘초상화’는 꿈속 초월적 존재에 대해 사 씨가 믿음을 갖게 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사 씨는 ㉠을 듣고 꿈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 ② ㉠은 사 씨가 꿈에서 본 곳으로, 현실에도 존재하는 공간이기에 비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 ④ ㉠은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들이 관음보살의 지시를 받고 사 씨를 구하기 위해 타고 온 것이지, 사 씨가 미리 준비한 수단은 아니다. 두 왕비와 사 씨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라고 볼 근거도 없다.
- ⑤ 유 한림이 꿈속에서 노파를 만나 “그대는 누구인데~구하시오?”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 노파는 유 한림과 인연이 있는 현실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노파가 꿈속에서 ㉠(병)을 놓았던 자리의 물을 유한림이 마시고 병이 나은 것은 비현실적인 방법에 해당하므로 고전 소설의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07

㉠ ①번이 답인 이유

사 씨는 꿈에서 왕비를 만나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유 한림은 꿈에서 노파를 만나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라는 말을 듣는다. 왕비와 노파의 말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꿈’은 꿈을 꾸 등장인물들이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꿈을 꾸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③ 꿈에서 역사적 인물을 만난 것은 사 씨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장강’과 ‘반첩여’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다.
- ④ 천상계의 존재가 꿈에 등장한다고 하여, 꿈을 꾸 등장인물의 신분이 고귀함을 나타낸다고는 볼 수 없다.
- ⑤ 사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은 없고, 유 한림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하나 꿈을 꾸기 전 현실에서 뉘우친 것이다.

03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218~221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아니리 (2) 발림

2 (1) × (2) × (3) ○ (4) ○ 3 ㉠ 웃음 ㉡ 조롱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무능한 지배층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이다.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춘향가_작자 미상

언어의 이중성, 해학, 언어유희 등이 잘 드러난 작품을 읽으며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로,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발전되어 후에 판소리계 소설로 개작되었다. 전승 과정에서 이본이 발견되었고, 오랜 세월을 걸쳐 여러 사람이 창작에 참여한 **적층 문학**(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 문학을 일컬음.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내용이 계속 조금씩 추가되고 수정되는 특성을 띠)이다. **운문과 산문이 조화를 이루는가** 하면(운문 형태의 가락에서는 3·4조 및 4·4조의 운문체가 돋보인다), 중국의 유명한 **고사나 한자를 사용하여 양반 투의 표현을** 보여 주기도 하고, **해학성이** 돋보이는 비속어나 언어유희도 쓰였다.

- 서술자는? 판소리를 진행하는 연행자(창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기생의 딸로 태어난 '춘향', 전라도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
- 상황은? 몽룡과 이별한 춘향은 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여 옥에 갇히게 되고, 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옴.
-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과 절개(표면적 주제), 지배층에 대한 평민의 비판과 신분 상승의 의지(이면적 주제)

핵심 정리

- 갈래: 판소리 사설
- 형식상 특징: 창(노래), 아니리(사설)로 구성됨.
- 의의: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을 보여 줌으로써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모습을 제시함.
- 연대: 미상(조선 후기)

| 배경 | • 시간: 조선 후기

• 공간: 전라도 남원

특징

- 한 사람의 창자가 다양한 인물의 목소리와 몸짓을 연기함.
- 사설의 내용과 장단이 어울리게 구성되어 있음.
- 노래(창)와 사설(아니리)이 반복됨.
- 고수와 청중이 공연 도중에 추임새를 넣음.

전체 줄거리

발단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에 나왔다가 그녀를 타는 성 춘향을 만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백년가약을 맺는다.
전개	이몽룡의 부친이 승진하여 한양으로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된다.
위기	변 사또가 춘향을 불러 수청을 강요하고, 춘향은 정절을 지키고 자 수청을 거부하다가 매를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된다.

절정	과거에서 장원 급제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남원에 내려와 옥 중의 춘향과 재회하고, 암행어사로 출두하여 탐관오리를 벌한다. <수록 부분>
결말	춘향과 이몽룡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행복하게 산다.

01

㉡ 2번이 답인 이유

춘향이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는 부분은 있으나, 고사가 활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창자가 부르는 노래(창)인 '진양조', '중모리'와 창자의 말(사설)인 '아니리'가 번갈아 나오고 있다.
- 춘향 모친, 향단이, 이몽룡이 춘향을 찾아가 부르는 앞부분은 느린 장단인 '진양조'로, 춘향 모친, 이몽룡이 춘향과 대화하는 뒷부분은 그보다 빠른 '중모리'로 장단의 빠르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 사랑하는 이몽룡이 있기 때문에 수청을 듣지 않으려는 춘향의 모습을 통해 표면적 주제인 '여인의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 죄 없는 춘향을 괴롭히는 변 사또는 탐관오리의 전형적 인물로서 평민들이 비판하는 부정적인 지배층을 대변한다.

02

㉡ 3번이 답인 이유

a에서는 '방'이라는 말소리를 반복하여 언어유희를 하고 있다.

03

㉡ 5번이 답인 이유

이 대목은 춘향이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 슬픈 장면이다. 그러나 춘향의 모친은 이몽룡을 '험게 생긴 것'으로, 이몽룡을 반기는 춘향의 모습을 "단박에 그냥 환장하네그려."라고 표현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사또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 춘향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기절했는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 악몽을 꾸 춘향이 모친의 소리를 귀신 소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는 장면이다.
- 춘향이 형장을 맞고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다.

04~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홍부전_작자 미상

근원 설화가 바탕이 된, 해학이 잘 드러난 작품을 읽으며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춘향전>, <심청전>과 더불어 3대 판소리계 소설로 꼽히며, 놀부와 홍부의 삶을 **해학**으로 승화한 **평민 문학**의 대표작이다. '방이 설화, 박터는 처녀 설화' 등을 근원 설화로 하여 <홍부가> → <홍부전> → <연의 각> 등으로 끊임없이



정답과 해설

이 재생산되는 적층 문화이기도 하다. 형제 간의 우애를 주제로 강조하면서도 조선 후기에 몰락하기 시작한 양반의 모습과 비참한 서민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해학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서민의 절박함이나 비극적 상황을 특유의 웃음으로써 극복하려는 의식을 보여 준다.**

- 서술자는? 작품 밖의 서술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토지가 없고 가난한 몰락 양반이지만 선량하고 정직하며 우애와 신의가 있는 흥부, 부를 축적하고 탐욕과 심술로 가득 찬 놀부
- 상황은? 형 놀부는 가난한 동생 흥부를 외면하며 살다가,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구해 주고 부자가 되자 억지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후 치료해 줌.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흥부의 어질과 욕심 없음을 칭찬하며, 놀부는 부정적으로 서술함.
-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 권선징악(표면적 주제), 빈부 간의 갈등(이면적 주제)

핵심 정리

- 갈래: 국문 소설, 판소리게 소설
- 형식상 특징: 판소리의 운문적 특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음.
- 의의: 조선 후기 사회 현실과 서민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음.
- 연대: 미상(조선 후기)

| 배경 | • 시간: 조선 후기 • 공간: 경상도 · 전라도 경계 지역

특징

- 풍자와 과장된 표현, 익살, 해학 등 웃음의 미학이 잘 나타남.
-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남.

전체 줄거리

발단	경상도 · 전라도 경계 지역에 살던 연 생원은 놀부와 흥부 형제를 두고 죽었는데, 형인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인 흥부를 내쫓는다.
전개	흥부는 놀부의 집에 쌀을 구하러 갔으나 매만 맛고 돌아오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품팔이와 매품팔이를 한다.
위기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주고, 제비가 박씨를 물어 온다.
절정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흥부는 부자가 되고, 이를 따라한 놀부는 패가망신한다. (수록 부분)
결말	흥부가 놀부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형제는 화목하게 산다.

04

㉮ ①번이 답인 이유

㉮은 장면의 극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가난한 흥부가 남루하고 어설픈 옷차림을 하고 놀부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을 뿐, 중국에서 유행하던 옷차림을 나열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에 ~고’의 문장 구조와 4·4조, 3·4조의 음수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이 느껴진다.
- ②, ⑤ 흥부의 초라한 옷차림을 열거와 비유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의 웃음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흥부의 옷차림은 작품의 전체 줄거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장면의 극대화로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이렇게 사건 전개에 중요하지 않은 장면의 극대화는 작품의 유기성을 떨어뜨린다.

05

㉮ ②번이 답인 이유

놀부는 흥부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어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다. 즉,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제비를 거짓으로 불쌍해하는 위선적 인물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제비에게 가련하다고 위로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므로 근본 심성이 착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으므로 선한 인물형으로 볼 수 없다.
- ④ 놀부가 풍자의 대상인 것은 조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의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기 때문이다.
- ⑤ 놀부가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이므로, 놀부라는 인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6~08 개념으로 작품 읽기

적벽가_적자 미상

인물을 희화화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읽으며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중국의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하되, 내용을 크게 변화시킨 **판소리 사설**이다. 원작 중 적벽 대전의 이야기를 따왔으나, **원작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거나 인물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등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잘 살렸다.** <삼국지연의>는 영웅 중심의 이야기였지만 <적벽가>는 원작에 없는 ‘군사 설움’과 ‘군사 점고’(점고란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대목을 첨가하여 전쟁에 강제 동원된 이름 없는 군사들의 설움과 고통을 표현하였다. <적벽가>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환된 대표적인 인물은 ‘조조’인데, 원작과는 달리 영웅성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희화화하여 무능한 지배층을 비판, 풍자하고 있다.**

- 서술자는? 작품 밖의 연행자(창자)
-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은? 겁이 많고 비굴한 조조, 인품이 후덕한 관공
- 상황은? 무능한 장수 조조 때문에 조조의 군사들은 관공에게 쫓기게 됨. 관공(관우)은 이전에 조조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조조를 살려 주려 함.
- 상황에 대한 서술자(인물)의 태도는? 조조는 비굴한 장수로, 관공은 무에가 뛰어나고 어진 인품의 소유자로 서술함.
- 주제는? 적벽 대전 영웅들의 무용담과 하층 군사들의 비애, 조조의 패전과 관공의 어진 인품(표면적 주제), 민중을 전쟁으로 내몬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면적 주제)

핵심 정리

- 갈래: 판소리 사설
- 형식상 특징: 창(노래), 아니리(사설)로 구성됨.
- 의의: <삼국지연의>의 ‘적벽 대전’을 바탕으로 하여 외래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영웅보다는 군사들을 내세워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평민적 시각을 반영하였음.
- 연대: 미상(조선 후기)

| 배경 | • 시간: 중국 후한(後漢) 말 • 공간: 양자강 적벽 일대

| 특징 |

- 〈삼국지연의〉의 '적벽 대전' 대목을 바탕으로 함.
- 당대 양반층에 대한 민중의 저항 정신을 표출함.
- 군사들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서민의 고통을 드러냄.

| 전체 줄거리 |

발단	유비가 관우, 장비와 더불어 삼고초려 끝에 제갈공명을 데려온다.
전개	조조는 백만 대군을 이끌고 남벌 길에 오르게 되고, 군사들은 제각각 자신의 설움을 늘어놓는다.
위기	조조는 제갈공명에게 패하고, 이어서 장판교에서도 장비에게 패한다.
절정	제갈공명은 손권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인 다음 조조와 적벽 대전을 벌여 크게 승리한다.
결말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우에게 다시 패한 후, 목숨을 구걸하여 겨우 돌아간다. <수록 부분>

06

㉔ ①번이 답인 이유

판소리에서 청중의 공감을 위해 보편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 부분에서 관습적 표현을 사용하여 배경 묘사를 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② “비나이다 비나이다”, “살려 주오 살려 주오” 등 어구를 반복하여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관공 앞에서 “야들야 청룡도가 잘 든다더니~내 목 있나 좀 바라.”, “흔은 벌써 피난 간 지 오래로소이다.” 등과 같은 말을 내뱉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조조의 모습은 판소리 청중들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 ④ ‘중모리’에서 조조의 장졸들이 조조를 살려 달라 비는 장면을 “사람의 인륜에 못 볼래라”라고 진술한 부분은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이다.
- ⑤ “강동의~없었고”, “계명산~자문사라.”의 중국 고사는 당시 평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07

㉔ ④번이 답인 이유

장졸들은 ‘관공’ 앞에서 “우리 승상(조조)을 살려 주오”라고 빌고 있으므로, 자신의 장군을 잡았다 적장에게 바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③, ⑤ ‘관공’은 과거 자신의 목숨을 살려 준 ‘조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조조’를 놓아주었다. ‘공명’은 이러한 ‘관공’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지혜로운 인물로 볼 수 있다.
- ② ‘주창’은 조조에게 “내 손에 달린 목숨 네 어디로 피할소냐.”라고 하는 등 조조를 제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08

원작과는 달리 ‘조조’가 영웅성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희화화된 것은 무능한 지배층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이다.

꿈엔들 잊힐리야 수능 다가가기

p.222~227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② 06 ③ 07 ①

줄거리 요약

[223쪽]

- ① 사공 ② 서울 ③ 한림학사 ④ 불의무도 ⑤ 밀록
⑥ 마패

[226쪽]

- ① 송사 ② 뇌물 ③ 무안 ④ 청탁 ⑤ 물욕

작품 분석하기

[223쪽]

- ① 살려 줌. ㉠ 친구 ㉡ 이한림 ㉢ 김 감사 ㉣ 김진희 ㉤ 암행어사

[226쪽]

- ① 부자 ㉠ 이야기 ㉢ 뇌물 ㉣ 삐죽새 ㉤ 따오기 ㉥ 황새

01~03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A

작자 미상, 〈옥단춘전〉

주제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신의를 저버린 자에 대한 응징

해제 양반 이혈룡과 기생 옥단춘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애정 소설이다. 어릴 적 죽마고우였던 친구의 배신과 그에 대한 이혈룡의 복수와 더불어 지조와 절개를 지닌 옥단춘과의 사랑이 함께 전개되며, 유교적 덕목인 신의가 강조된다. 조선 숙종 때를 배경으로 하고, 〈춘향전〉과 그 내용이 유사한 점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소설에서 이혈룡과 김진희의 갈등은 서사의 기본 축을 형성하는데, 이때 이혈룡과 김진희가 갈등하는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춘향전〉과 비교하여 옥단춘의 역할이 적극적이고, 김진희와 이혈룡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줄거리

발단	김진희와 이혈룡은 함께 공부하면서 출세하면 서로 돕기로 굳게 맹세한다. 이후 이혈룡의 집안은 몰락하고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된다.
전개	이혈룡은 김진희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관리들의 저지로 김진희를 만나지 못한다.
위기	이혈룡은 김진희를 직접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김진희는 이혈룡을 죽이려 한다. 이때 기생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출하여 인연을 맺는다. <수록 부분>
절정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은 결인의 모습으로 연관정에서 잔치를 벌이던 김진희를 찾아가고, 김진희는 옥단춘과 이혈룡을 죽이려고 한다.
결말	이혈룡은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고, 김진희를 귀양 보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김진희가 죽는다. 이혈룡은 옥단춘을 부인으로 맞아 부귀영화를 누린다.

특징

- 다른 고전 소설에 비해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 비교적 적음.
- 판소리 사설과 유사한 문체를 사용함.
- 몰락한 양반의 입신출세, 기생과 양반의 사랑 등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함.
- 옥단춘을 통해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 줌.



0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⑤ 정답률 72%

㉮ ⑥번이 답인 이유

- ⑤ ⑥: 이혈룡은 겸양의 어조를 통해 /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 ➡ ‘소신과 같이 무재무능한 자를’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어조가 쓰인 것은 맞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한림을 제수하시니 더욱 황송하옵니다.”라고 하며 벼슬을 내려 주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낸다고 하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①: 반복을 통해 /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 ➡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형제도 쓸데없구나.”에서 ‘쓸데없다’를 반복하여 김진희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내가 네 처지라면’을 통해 역지사지를 가정하여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
- ② ①: 옥단춘의 회유로 ‘사또 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 설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옥단춘이 몸값을 후하게 준다면 이혈룡을 죽이지 말라고 사공들에게 부탁하자, 사공들은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③: 이혈룡과 재회한 기쁨을 / 모친과 부인 각자의 입장에 어울리는 비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 모친의 입장에서는 ‘죽었던 자식 다시 본 듯’, 부인의 입장에서는 ‘잃었던 낭군 다시 본 듯’처럼 입장에 어울리는 직유법을 통해 재회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 ④ ④: 이혈룡의 글 짓는 과정을 /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 주고, 타인의 평가를 통해 / 이혈룡의 재능이 확인되고 있다.
- ➡ “글을 지을 생각을~단숨에 일필휘지하여 바쳤는데”까지가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 준 것이고, 글자마다 비점을 찍고 글귀마다 관주를 치는 행위는 임금이 이혈룡의 글을 읽고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개념의 좌표 찾기

- 반복(→46쪽)
- 설의적 표현(→147쪽)
- 겸양의 어조: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랑하는 말투(어조)
-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봄.
- 비유(→145쪽)

02 소재·배경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③ 정답률 90%

㉮ ③번이 답인 이유

- ③ ③: 이혈룡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며 ④가 구현되는 것을 방해한다.
- ➡ ‘학정’은 가혹한 정치를 뜻하는 말이다. 혈룡이 평양에서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학정을 다스리고자 혈룡은 밀록을 작성하게 되고, 이후 암행어사에 임명된다.

오답 풀이

- ① 이혈룡은 ②라는 과제에 탁월한 답안을 제출하여 임금으로부터 ⑥에 합당한 인재로 인정받았다.
- ➡ 이혈룡은 과거의 글제인 ‘천하태평춘’에 대한 탁월한 답안을 제출해 장원 급제를 한 것이다.
- ② ⑥: 이혈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고, 임금에게 ④를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 ➡ 이혈룡이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 지위를 제수받게 되었으므로, ‘장원 급제’는 이혈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밀록’을 임금에게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④: ③을 계기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④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 ‘밀록’은 김진희의 학정 때문에 작성된 것이고, 김진희가 학정을 한다는 것은 천하(나라)가 아직 태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⑤ ⑤: 임금이 이혈룡에게 ③을 바로잡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첫째 봉서 안에 이혈룡을 평안도 암행어사로 봉하는 사령장과 마패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봉서’는 임금이 이혈룡에게 김진희의 ‘학정’을 바로잡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반어(→146쪽)

03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② 정답률 82%

보기

〈옥단춘전〉에서 옥단춘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지인 지감(知人之鑑)의 소유자이자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 빠진 인물을 잘 알아보는 능력을 구해 내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그려진다. 그녀는 자신의 조력을 통해 대상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애정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인물이다.

㉔ 2번이 답인 이유

- ②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해 줄 수 있는 인물로 김 감사를 선택한 것에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 ➡ 〈보기〉는 옥단춘이 대상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애정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인물이라고 진술한다. 이는 옥단춘이 혈룡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선택하여, 과거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옥단춘은 김 감사의 손에서 혈룡을 구하는 것이지, 혈룡을 구원해 줄 인물로 김 감사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옥단춘이 오한을 핑계로 김 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것에서 그녀의 기지를 엿볼 수 있군.
- ➡ 〈보기〉는 옥단춘이 기지를 발휘해 위기에 빠진 인물을 구해 낸다고 했다. 이는 옥단춘이 이혈룡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오한을 핑계로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옥단춘이 김 감사에게 끝사반던 남루한 행색의 이혈룡이 비범한 인물임을 발견한 데서 그녀의 지인지감을 엿볼 수 있군.
- ➡ 〈보기〉는 옥단춘을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지인지감(知人之鑑)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이는 옥단춘이 이혈룡의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알아보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혈룡을 구해 준 옥단춘의 은혜에 감사한 것에서 조력자인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군.
- ➡ “동시에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제한 전후 사실을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마지않았다.”를 통해 이혈룡의 가족들이 조력자로서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옥단춘이 사공들에게 이혈룡의 몸값을 후하게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알려 준 것에서 그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엿볼 수 있군.
- ➡ 〈보기〉는 옥단춘이 적극적인 조력자로 그려진다고 하는데, 이는 사공들에게 후한 몸값을 주면서 이혈룡을 모래에 숨기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알려 준 옥단춘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애정 소설(→206쪽)
- 끝사반다: 업신여겨지고 하찮게 대해지다.
- 남루하다: 옷 따위가 낡아 해지고 차림새가 너저분하다.

04~07

2016학년도 9월 고2 학력평가

작자 미상, 〈황새결승〉

주제 뇌물로 좌우되는 송사의 불공정성과 부패한 지배층 풍자

해제 이 작품은 뇌물에 의해 좌우되는 송사의 처리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지배층의 부패상을 여지없이 풍자, 비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뇌물에 의해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는 동물들의 송사 이야기를 통해 지배층의 타락을 우화적으로 풍자하고 있으며, 친척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상황 등을 통해 조선 후기의 물질 만능 주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상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움트기 시작하면서, 명예를 지키는 가난한 사대부보다 자본을 가진 상인 등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가졌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다.

전체 줄거리

발단	친척이 재산의 반을 나눠 주지 않으면 살려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자, 부자는 송사를 낸다.
전개	친척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자는 재산을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받는다.
위기	부자는 들음직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수록 부분>
절정	[부자의 이야기] 꾀꼬리, 꿩구와 노래 솜씨를 다투는 따오기가 황새에게 뇌물을 주고, 황새는 뇌물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수록 부분>
결말	짐승 세계의 추잡함에 비교하여 관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을 들은 관리들은 부끄러워한다. <수록 부분>

특징

- 날짐승들을 의인화하여 인간 사회를 풍자함.
- 액자식 구성을 통해 관원들의 부정부패를 우회적으로 비판·고발함.
- 조선 후기의 부패한 사회를 사실적으로 그려 냄.

이 작품의 갈래는? - 송사 소설

억울한 일을 관청에 호소하여 해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전 소설을 일컫는 말이다.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과제 부여’와 ‘과제 해결’의 구조를 지닌다는 특징과 함께, 송사의 결말이 작품의 주제 의식으로 뚜렷하게 부각된다.

04 인물의 정서와 태도

정답 ④ 정답률 80%

㉔ 4번이 답인 이유

- ④ ‘따오기’는 자기 소리를 자랑하기보다는 ‘황새’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군.
- ➡ 따오기는 황새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자랑하지 않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부자’는 송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해하였군.
- ➡ 부자는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관전 발악’이라 해서 처벌 받을까 두려워 송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해하고 있다.
- ② ‘관원’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군.
- ➡ “평소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고로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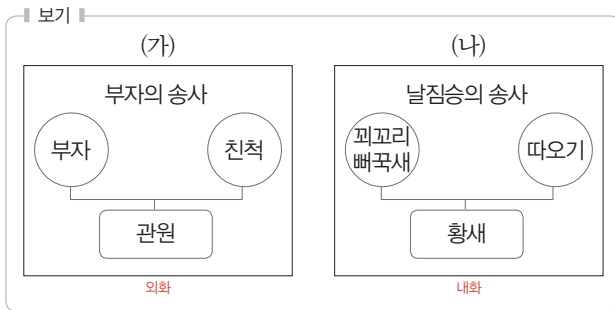


가 하여 듣고자 하나”처럼 관원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들이 보는 눈이 걱정”되어 거짓으로 꾸짖고 있다.

- ③ ‘황새’는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송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군.
 ➔ 황새가 따오기의 소리가 ‘상성’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에게 받은 뇌물 때문이다.
 ⑤ ‘피꼬리’는 자신의 소리를 누구든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군.
 ➔ 피꼬리는 자신의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를 “늬 아니 아름답게 여기리이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05 작품의 구조 이해

정답 ② 정답률 79%



㉠ 2번이 답인 이유

- ②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
 ➔ (나)의 이야기는 (가)의 송사에서 진 부자가 (가)의 판결이 잘못 되었음을 비판하고, 관원들에게 무안을 주려고 한 이야기이다. (나)의 판결 이유는 뇌물 때문인데, 이는 (가)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친척의 부당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 (가)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친척의 부당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③ (가)의 결과는 부자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 (가)의 송사 결과에 억울함을 느낀 부자가 관원에게 무안이나 보이려고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④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재산’이고 (나)에서는 ‘최고의 소리’이다.
 ➔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부자의 재산이지만, (나)에서는 날짐승 중 ‘최고의 소리’이다.
 ⑤ (가)와 (나) 모두 청탁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가)에서는 친척이 관원에게 준 뇌물이, (나)에서는 따오기가 황새에게 준 뇌물이 송사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념의 좌표 찾기

• 액자식 구성(—164쪽)

06 소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③ 정답률 85%

㉠ 3번이 답인 이유

- ③ 비리와 관련된 관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 본문의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 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만 하면 무안이나 뵈리라.”라는 부분을 통해 이야기의 의도가 드러난다. 부자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재판에서 진 것이 청탁 때문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그러한 판결을 한 관원들에게 무안을 주려고 한다.

오답 풀이

- ① 관원들에게 다른 송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무안을 보이려고 할 뿐 다른 송사를 청탁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② 무식한 관원에게 자신의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 억울함에 무안을 보이려고 할 뿐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는 아니다.
 ④ 예상과 다른 판결에 대해 관원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 부자는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반드시 관전발악이라” 할 것을 알기에 관원들과 논쟁을 벌이려 하지 않는다.
 ⑤ 자신의 패배로 끝난 송사로 인해 잃게 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라는 말에서 부자가 자신이 재산을 되찾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우회적 비판: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는 비판

07 상황에 맞는 관용적 표현

정답 ① 정답률 49%

㉠ 1번이 답인 이유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 [A]에서 황새는 피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억지 논리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런 황새의 태도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을 뜻하는 ‘견강부회’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을 뜻한다.
 ③ 각주구검(刻舟求劍)
 ➔ ‘용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④ 배은망덕(背恩忘德)
 ➔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을 뜻한다.
 ⑤ 타산지석(他山之石)
 ➔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V. 극·수필

01 희곡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235~237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장 (2) 갈등 (3) 서사극 2 (1) X (2) ○ (3) X
3 ㉠ 지시문 ㉡ 독백 ㉢ 해설

01 ③ 02 ① 03 ④ 04 ④ 05 ㉢ ㉠ ㉡ ㉢ 06 ② 07 ㉠

01~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등승_함세덕

‘희곡’의 특징과 등장인물의 심리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인간의 여러 세속 욕망을 짜임새 있는 **극적 장치**를 통해 감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어릴 적 생모에게 버림받은 ‘도념’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절을 찾아온 미망인에게 혈연의 정을 느끼게 된다. 미망인은 남편과 어린 아들을 잃고 도념을 양자로 삼고 싶어 하지만 중생의 세속적 욕망이 부질없음을 깨달은 ‘주지 스님’은 도념이 미망인과 인연을 맺는 것을 반대한다. 이 과정에서 **세 인물의 갈등**을 주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제** 중 토끼 목소리, 산목련, 아이들의 노랫소리 등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도념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또, **도념을 걱정하는 ‘초부’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인간미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핵심 정리

- **갈래**: 단막극, 비극
- **성격**: 낭만적, 비극적
- **제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 **주제**: 인간적 사랑과 불교의 가르침 사이의 갈등

| **배경** | • **시간**: 겨울 • **공간**: 깊은 산속의 어느 절

특징

- 등장인물의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등장인물과 작품의 배경이 주제와 긴밀히 연관됨.
- 등장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 양상이 잘 표현되어 있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연민을 느낄 수 있음.

전체 줄거리

발단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의 동승인 도념은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러 오리라는 확신을 갖고 늘 어머니를 기다린다.
전개	죽은 자식을 위해 불공드리러 오는 미망인이 도념에게 연민과 애정을 느껴 양자로 삼으려고 한다.

절정	도념이 절에서 죄를 씻으며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주지는 도념이 양자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미망인과 주지의 갈등이 일어난다.
하강	도념이 어머니의 목도리를 만들려고 숨겨 둔 토끼 가죽이 발견되면서 미망인의 양아들로 가려던 일이 좌절된다.
대단원	도념은 초부의 우려를 뒤로 하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주지 몰래 절을 떠난다. <수록 부분>

01

㉠ ③번이 답인 이유

‘초부’는 ‘도념’에게 어머니를 찾지 못하면 “거지밖에 될 게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라고 충고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도념’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산을 내려간다.
- ② ‘스님’은 ‘도념’이 절을 떠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도념’이 떠나는 순간에도 염불을 원다.
- ④ ‘도념’은 ‘초부’에게 마을로 내려가면 어머니를 “꼭 찾을 거예요.”라고 말한다.
- ⑤ ‘도념’은 ‘스님’을 위해 어머니를 드리려고 모아 둔 잣을 두고 떠난다. 따라서 ‘스님’에 대한 원망을 풀지 못하고 절을 떠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 ①번이 답인 이유

희곡은 무대에서의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있어 ‘독경 소리’, ‘염불 소리’와 같은 효과음을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인 ‘절’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 ② 희곡은 서술자가 없으며, 배우가 대사와 연기로 맡은 배역의 감정을 전달한다.
- ③ 이 글에서 과거 회상의 방식은 드러나지 않으며, ‘도념’의 꿈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도념’의 그리움이 부각된다.
- ④ 이 글에서는 절 근처의 비탈길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었으나 공간의 잣은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초부’의 성격이 변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 ⑤ ‘도념’이 비탈길을 내려가는 장면은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하지만, 관객들이 극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는 서사극의 특징이다.

03

㉢ ④번이 답인 이유

이 글은 초부와 도념의 ‘대화’, 도념의 ‘독백’만이 나타나 있고 ‘방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도념은 떠나기 전, 어머니를 드리려고 모아 둔 잣을 스님을 위해 남겨 두며 ‘독백’을 한다. 이 ‘독백’은 ‘도념’의 따뜻한 마음씨를 드러내어, 작품의 분위기를 서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 ② 도념은 초부와 ‘대화’하면서, 오늘 절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절을 떠나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동지선달 긴긴 밤 잠이 안 오시어 심심하실 때 깨무십시오.”라는 도념의 ‘독백’을 통해 도념이 절에 남겨진 스님을 배려해 잤을 남기고 갔음이 드러난다. 이 독백에서 관객은 스님을 생각하는 도념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 ⑤ 초부는 도념이 치는 종소리를 밤낮 들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슬프게 들린다고 하며 도념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알고 있던 사이임이 드러난다.

04

㉠ ④번이 답인 이유

㉠에서 ‘도념’이 한숨을 쉬는 것은 자신이 살던 절을 떠나 새로운 세계인 ‘동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망에 찬 표정으로 속마음이 후련해짐을 표현해 달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초부’는 평소에 들던 종소리와 달리 종소리가 슬프게 들려서 의아해하고 있다.
- ② ㉠에서 ‘초부’는 ‘도념’이 절을 나간다고 하자, ‘도념’이 갈 곳도 없는데 눈까지 오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 ③ ‘도념’은 ‘주지’의 독경 소리가 들리자 ㉠에서 걸음을 멈추고 무엇인가를 생각한 후 잤을 두고 가는 것이다.
- ⑤ ‘도념’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머니를 찾아 절을 떠나는 것이기에 ㉠에서 힘을 빼고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도념은 어머니를 드리기를 위해 모아 둔 잣을 스님께 드리며 절을 올리고 있다. 이 장면에서 ‘잣’은 스님에 대한 도념의 존경심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도념이 절을 떠나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날 ‘눈’은 점점 많이 내리기 시작한다. 이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며, 도념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상징한다.

06-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원고지_이근삼

서사극의 특징인, 극적으로 과장된 인물의 행동이나 대사에 집중하며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의 전개나 갈등 없이 **부조리한 삶의 모습을 반영한 극중 상황**을 과장되게 전개한 극으로, 외형적으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나 이미 가족적 유대감이 해체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가족으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서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현대인의 비극적 상황을 **풍자적으로 비판**하였다. **무대 장치와 분장·소도구**는 물론이고 **인물의 대사와 동작에도 반어와 풍자 등 극적 과장**을 사용한 실험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핵심 정리

- **갈래**: 단막극, 서사극, 풍자극
- **성격**: 반사실적, 서사적, 풍자적, 실험적
- **제재**: 어느 중년 교수의 일상
-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 배경 | • 시간: 현대 • 공간: 어느 중년 교수의 집

| 특징 |

- 특별한 사건 전개 및 뚜렷한 갈등 양상이 드러나지 않음.
- 인물의 전형적인 성격보다는 주제 의식의 표현에 중점을 둠.
- 무대 장치, 소도구, 인물의 대사와 행동 등이 극적으로 과장되어, 풍자와 반어적 의미를 드러냄.

| 전체 줄거리 |

발단	등장 인물인 장녀, 장남, 교수, 교수의 처가 차례로 등장한다. (수록 부분)
전개	사회와 가정 모두에서 구속을 받는 교수는 피곤에 지쳐 있으며, 처의 추궁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절정	장녀와 장남은 용돈을 요구하고, 감독관이 나타나 교수에게 번역을 독촉한다.
하강	교수는 잃어버린 자신의 꿈을 천사에게서 다시 찾으려 하나 실패하고, 감독관이 다시 번역을 독촉한다.
대단원	교수는 기계적으로 번역을 하려 하고, 감독관은 또 다시 번역을 독촉한다.

06

㉠ ②번이 답인 이유

교수가 입은 ‘원고지 칸투성’인 ‘양복’은 교수를 피곤하게 하는 노동이 원고지와 관련 있는 일임을 보여 준다.

오답 피하기

- ① ‘지루한 음악’은 지겹고 따분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장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③ 장녀는 교수의 피곤한 일상과 ‘아아’하고 토하는 비명 같은 하품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의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는 오히려 따뜻하지 못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꺼지고 나서도 처와 교수의 대사는 이어지며, 휘장이 내려가지도 않았다. 따라서 막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처는 교수의 ‘철쇄’를 풀어 해치고 ‘또 하나의 굵은 줄’을 교수의 허리에 감아 주고 있다. 이는 교수가 집 안에서도 억압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품으로,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7

장녀는 등장인물과 해설자의 역할을 겸해, 관객들에게 등장인물인 아버지와 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정보는 극중 상황과 맞지 않아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객들은 이러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극중 상황에 몰입하지 못하게 된다.

02 시나리오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240~242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시나리오 (2) 지시문 (3) 장면

2 (1) X (2) ○ (3) X

3 ㉠ NAR ㉡ 전체 ㉢ E

01 ⑤ 02 ③ 03 ④ 04 ② 05 잘못 발사된 총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주인공 ‘철호’의 비극적인 처지를 상징한다. 06 ① 07 ㉡ / S# 67은 차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인화와 정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장면이므로, 화면의 바깥에서 해설하는 ㉠보다는 인물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여 줄 수 있는 ㉡이 더 적합하다.

01~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오발탄 이범선 원작, 나소운·이종기 각색

‘시나리오’의 특징과 등장인물의 심리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각색한 시나리오로 6·25 전쟁 직후 월남한 가족의 불행한 삶을 통해 전후 사회의 궁핍함과 구조적 모순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은 삶의 방향을 상실한 주인공 철호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철호의 가족들은 현실에 부딪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주인공 철호와 물질적 가치관에 물든 동생 영호의 논쟁 장면은 전후 사회를 살아가는 두 인간형의 갈등과 가치관 대립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은행 강도를 하다 붙잡히는 영호나, 동생의 검거와 아내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는 철호의 이야기는 매우 비극적이다.

이 작품의 비극성은 등장인물들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전망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철호와, 철호가 행복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대한 사회 사이의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핵심 정리

- 갈래: 영화 시나리오
- 성격: 비판적, 고발적
- 제재: 철호 일가의 비참한 삶
- 주제: 전후 사회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

| 배경 | • 시간: 6·25 전쟁 직후 • 공간: 서울 해방촌 일대

특징

- 전후 사회의 빈곤과 부조리를 고발함.
- 몰락해 가는 인물들의 모습과 심리 묘사에 중점을 둠.

전체 줄거리

발단	계리사 사무실 서기인 철호는 월남 가족의 가장으로 어머니, 만삭의 아내, 남동생 영호, 여동생 명숙과 해방촌의 판잣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개	어머니는 전쟁의 충격으로 “가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명숙은 양공주가 되며, 영호는 제대 후 2년이 넘도록 방황하면서 속물적인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철호는 묵묵히 현실에 순응하며, 양심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절정	영호가 권총 강도 짓을 벌이다 경찰서에 갇히게 되고, 만삭인 철호의 아내는 출산 중에 목숨을 잃게 된다.
하강	거둬된 충격으로 철호는 거리를 배회하다 치과에 들러 충치를 모두 빼 버리고는 과도한 출혈로 의식을 잃어 간다.
대단원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탄 철호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몽롱한 의식 상태에서 “가재!”만을 외친다. <수록 부분>

01

㉠ ⑤번이 답인 이유

제시된 글에서는 극중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물에게 행동을 지시하기도 하는 해설자는 나오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S# 117’에서 ‘철호’는 택시에서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를 통해 철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추측할 수 있다.
- ② 그 집 앞, 자동차 안, 동대문 부인과 산실 등 주로 장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분하고 있다.
- ③ ‘S# 116’과 ‘S# 117’의 장면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 ④ ‘S# 120’에서 ‘와이프아웃(wipe-out, 장면을 바꿀 때에 한 장면이 화면에서 지워지듯이 사라지는 일. 여기에서는 조금 전까지의 소리들이 사라지고 ‘철호’의 소리만 들린다는 의미임.)’이라는 특수한 시나리오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02

㉡ ③번이 답인 이유

‘앞부분 줄거리’에서 영호가 수감된 곳은 ‘종로서’임을 알 수 있고, ‘철호’가 종로서로 가려고 하는 행동은 동생인 ‘영호’를 걱정하기 때문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해방촌’은 철호의 집이 있는 공간이나, 택시를 탄 철호가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 없다.
- ② ‘동대문 부인 병원’은 철호의 동생 명숙이 있는 공간이지만, 명숙에 대한 철호의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철호는 현재 이를 뺏고 피가 멈추지 않는 상태에다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갈 곳을 정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가!”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지 염치없는 성격 때문에 조수에게 명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⑤ 철호는 피를 많이 흘려 의식이 몽롱해진 상태임에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하여 “가자-”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처절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상황을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3

㉢ ④번이 답인 이유

S# 120에서 ‘운전수’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하는 ‘철호’를 술에 취한 손님이라 생각하며 골칫거리로 여기므로 운전수가 철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연기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S# 116에서 철호는 피를 많이 흘리고 택시에 쓰러진 상태이다. 따라서 철호의 의식이 흐려짐을 표현하는 연출은 적절하다.



- ② S# 117에서 철호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가 방향을 자주 바꾸는 연출은 적절하다.
- ③ S# 118에서 명숙은 철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⑤ S# 121에서 철호는 홀로 쓸쓸히 의식을 잃어 가고 있다. 따라서 유성이 떨어지는 장면을 쓸쓸한 분위기로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04

㉮ ②번이 답인 이유

㉮에서는 철호의 목소리가 효과음으로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효과음을 뜻하는 'E.'가 적절한 시나리오 용어이다.

오답 피하기

- ① M.은 '효과 음악'으로, ㉮에는 음악이 아니라 철호의 소리가 들 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③ F.I.는 '페이드인'으로 화면이 처음에 어둡다가 점차 밝아짐을 의미한다.
- ④ O.L.은 '오버랩'으로 화면을 자연스럽게 겹치게 하면서 장면을 전환할 때 사용한다.
- ⑤ PAN.은 카메라를 좌우로 이동하는 것이다. 시각적 장면을 표현 할 때 사용한다.

05

제목인 <오발탄>은 잘못 발사된 총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주인공 '철호'의 비극적인 처지를 상징한다.

06~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_ 노희경

'드라마 시나리오'의 특징을 확인하면서 읽어 보자.

해제 4부작 **드라마의 극본**이다. 작품에서는 죽음을 앞둔 50대 엄마 '인희', 그녀에게 평생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녀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 온 시어머니 '상주댁', 아내이자 엄마인 '인희'를 무관심하게 대하다 불치병으로 떠나보내며 후회하게 되는 가족들이 서로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을 보여 준다.

핵심 정리

- 갈래: 드라마 시나리오
- 성격: 애상적
- 제재: 죽음을 앞둔 인희의 삶
- 주제: 엄마의 불치병을 계기로 생각하게 된 가족의 의미

| 배경 | • 시간: 1990년대 • 공간: 인희의 집과 병원

특징

- 엄마의 죽음을 대하는 등장인물의 심리가 잘 드러남.
- 어머니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이 묻어나 있는 자전적 작품임.

| 전체 줄거리 |

발단	엄마는 오줌소태가 영 낫지 않아 약이라도 타 먹기 위해 병원에 가는데, 자궁암 말기라는 검사 결과를 받는다.
전개	엄마가 검사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아버지(정철)만이 엄마가 자궁암 말기라는 검사 결과를 알고 괴로워한다. 아버지는 아프다는 아내의 말을 흘려들은 자신을 자책하며 수술을 고집하지만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확인하고 울면서 수술실을 나온다.
절정	가족들이 엄마의 병을 알게 되고, 집은 예전의 온기를 잃는다.
하강	각자 상처가 있는 가족들은 엄마의 죽음을 앞두고 서로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가족의 의미를 되찾는다. <수록 부분>
대단원	엄마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는다.

06

㉮ ①번이 답인 이유

'S# 51'에서는 '인희'와 '할머니'의 고부 관계를, 'S# 67'에서는 '인희'와 '정수'의 모자 관계를, 'S# 73'에서는 '인희'와 '정철'의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엄마와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의 모습이 드러날 뿐 극적 반전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인물 간의 갈등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S# 51'에서 딸 연수가 엄마 인희를 부르는 효과음이 삽입되어 있으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 ④ 'S# 67'에서 인희가 끼고 있던 반지를 아들 정수에게 줌으로써 아들 정수에 대한 인희의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S# 73'에서 조금은 어둡고 따뜻해 보이는 조명으로 인물 간의 애절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정철'과 '인희'의 성격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07

S# 67은 차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인희와 정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장면이므로, 화면의 바깥에서 해설하는 ㉮(NAR.)보다는 인물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여 줄 수 있는 ㉮(C.U.)이 더 적합하다.

03 민속극

사뿐히 드러내는 확인 문제

p.245~247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민속극 (2) 평민 (3) 풍자 2 (1) ○ (2) X
3 ㉠ 가면극(탈춤) ㉡ 무대 ㉢ 인형

01 ④ 02 ① 03 ④ 04 ① 05 ⑤ 06 ③

01~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꼭두각시놀음_작자 미상

풍자하는 대상을 파악하고 ‘민속극(인형극)’의 특징을 확인하면서 읽어 보자.

해제 우리나라 민속극 중 유일한 인형극이다. 서구의 연극과 달리, 막과 막 사이에 줄거리상 연관 없이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무대 밖의 악사나 관중이 무대 안의 인물들과 수시로 대화하는 방식을 취하여 거리를 없애고 있다.

서민들 사이에서 연희되어 왔던 관계로 비속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 있으며, 지나친 대사로 등장인물을 희화화하는 해학적인 표현이 많다. 주제 면에서도 축첩제(일처다부제)라는 사회적 모순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갈래: 민속극(인형극)
- 성격: 풍자적, 해학적, 희극적
- 제재: 처첩 간의 갈등, 지배층의 횡포
- 주제: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모순에 대한 신랄한 풍자, 평민을 괴롭히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 의의: 현전하는 유일한 민속 인형극임.
- 연대: 조선 후기

| 특징 |

- 2마당 8막으로, 막과 막 사이에 줄거리상 연관성이 없음.
- 무대 밖의 악사나 관중이 등장인물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음.
- 사투리, 비속어, 언어유희 등 해학적인 표현을 사용함.

| 전체 줄거리 |

박첨지 마당	제1막	곡예장 거리	박첨지가 유랑 이야기와 자기소개를 한다.
	제2막	뒷 절 거리	박첨지의 두 조카딸이 뒷 절 상좌(중)와 놀아나다 쫓겨난다.
	제3막	최영로의 집 거리	홍동지가 이무기를 잡아 박첨지를 구해 준다.
	제4막	동방 노인 거리	눈을 감고 등장한 동방 노인이 세상을 풍자한다.
	제5막	표 생원 거리	표 생원의 처(꼭두각시)와 첩(돌모리집)이 다툰다. <수록 부분>
평안 감사 마당	제6막	매사냥 거리	새로 부임한 평안 감사가 매사냥을 한다. <수록 부분>
	제7막	평안 감사 상여 거리	평안 감사가 사고로 죽고, 박첨지가 평안 감사의 상여를 멘다.
	제8막	건사(建寺) 거리	박첨지가 좋은 터에 절을 지으려 하는데, 상좌 둘이 절을 짓고 바로 허물어 버린다.

01

㉠ ④번이 답인 이유

‘홍동지’는 지배층이 아닌 평민들의 비판 의식을 대신 드러내는 인물이다.

오답 피하기

- ① <꼭두각시놀음>은 인형극으로, ‘표 생원’ 역의 배우는 무대 뒤에서 대사를 해야 한다.
- ② 민속극은 구비 전승된 갈래로 정해진 대본이 없기 때문에 배우나 상황에 따라 대사가 다르게 공연될 수 있다.
- ③ (나)에서 산받이는 박첨지와 대화하며 ‘홍동지가 평안 감사에게 불러 가는 사건’을 전제한다.
- ⑤ (나)에서 홍동지는 방에서 뒤통수부터 나오거나, 평안 감사 앞에서 방귀를 끼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통해 민속극의 특징인 해학성이 드러난다.

02

㉠ ①번이 답인 이유

꼭두각시는 “인사도 싫으니 세간을 나눠 주오.”라고 말하는 인물이다. 이로써 꼭두각시가 표 생원에게 순응하려 하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② ‘생원’이라는 호칭에서 표 생원이 양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은집을 하나 얻었소.”, “소실을 얻었던 말이여.”와 같은 말을 통해, ‘처’인 꼭두각시와 ‘첩’인 돌모리집을 둘 다 아내로 삼으려고 함을 알 수 있다.
- ③ 돌모리집은 표 생원이 큰부인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자, 큰부인의 머리를 들이받는다. 이는 남편의 말을 순종적으로 따라야 하는 가부장적 질서와 축첩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홍동지는 평안 감사에게 잘못했다고 빌며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퇴장하면서 방귀를 쏜다.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홍동지의 행동은 지배층인 평안 감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평안 감사는 길 치도를 잘못해 말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홍동지의 볼기를 때리라고 명령하였다. 따라서 평민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지배층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03

㉠ ④번이 답인 이유

(가)에서는 ‘처’인 꼭두각시의 의견 없이 ‘첩’인 돌모리집을 들이고 둘의 갈등을 모른 척 하는 가부장제 남성인 표 생원의 횡포가 드러나 있으며, (나)에서는 홍동지를 괴롭히는 탐관오리인 평안 감사의 횡포가 드러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②, ⑤ (가)에서 꼭두각시가 표 생원에게 세간을 나눠 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첩을 들인 남편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 때문이다. 꼭두각시의 행동을 물질 만능 주의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 (나)에 성적으로 문란한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③ ‘허영심’은 실속이 없이 겉치레를 중시하는 마음을 말한다. (나)



의 평안 감사는 평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인물이지만, 허영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다.

04

㉠ ①번이 답인 이유

㉠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이고, ㉡은 ‘간’이라는 말소리를 반복한 언어유희이다.

오답 피하기

- ② ㉠과 ㉡은 등장인물끼리 하는 대화이다. 관객에게 말을 거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③ ㉠과 ㉡에 자신의 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과 ㉡은 문장의 순서를 뒤바꾸지 않았다.
- ⑤ ㉠과 ㉡에 양반의 언어를 모방한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양반의 언어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중국 고사를 사용하는 표현을 말한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봉산 탈춤_ 작자 미상

‘민속극(가면극·탈춤)’의 특징을 확인하면서 대표적인 〈봉산 탈춤〉을 읽어 보자.

해제 여기에 실린 부분은 〈봉산 탈춤〉의 제6과장 양반춤 마당이다. 양반을 모시고 다니는 말뚝이는 관객, 악공과 한 패가 되어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무시함으로써 그들을 희롱한다. 때로는 양반들이 수준이 낮은 글을 지어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말뚝이나 관객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한다. 한편 양반은 취발이를 잡아들이라 명령하고, 말뚝이는 이에 부패한 양반상이 드러나게끔 유도하여 지배층을 풍자한다.

핵심 정리

- 갈래: 민속극(가면극)
- 성격: 해학적, 풍자적, 평민적, 비판적
- 제재: 말뚝이의 양반 희롱
-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
- 의의: 민속극의 대표작으로 오락성, 예술성, 풍자성이 뛰어남.
조선 후기 평민 의식이 잘 표현된 작품임.
- 연대: 조선 후기(18세기 경)

| 배경 | • 시간: 조선 후기 • 공간: 황해도 봉산

특징

- 각 과장은 다른 과장과 독립적인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음.
- 극을 진행하는 데 대사와 춤, 노래가 함께 사용됨.
-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으며, 관객이 극에 참여할 수 있음.
- 평민의 언어인 비속어와 양반의 언어인 한자어가 동시에 사용됨.
- 반어, 익살, 해학, 풍자가 두드러짐.

| 전체 줄거리 |

1과장, 사상좌춤	상좌 넷이 사방신에게 절하며 예를 표하는 의식무를 춘다.
2과장, 팔목중춤	팔목중이 파계하고 벌고놀이를 한다.
3과장, 사당춤	사당과 거사들이 흥겹게 논다.
4과장, 노장춤	노장이 유혹에 넘어가 파계했다가 취발이에게 욕을 본다.
5과장, 사자춤	사자가 파계승을 혼내고 화해의 춤을 춘다.
6과장, 양반춤	양반의 하인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한다. <수록 부분>
7과장, 미알춤	영감과 미알, 첩의 삼각관계가 펼쳐지고 미알이 죽는다.

05

㉠ ⑤번이 답인 이유

탈춤은 민속극으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따라서 ‘양반의 집’처럼 꾸며진 무대 장치는 나오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말뚝이의 대사 “그놈이 힘이 무량대각이요, 날랜이 비호 같은 데”에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취발이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말뚝이가 생원을 조롱하거나, 생원이 취발이를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으며, 글의 마지막에서 등장 인물들이 일제히 어울려 춤을 추는 장면에서 갈등이 해소된다.
- ③ ‘생원’은 “이놈, 너도 양반을 ~ 다니느냐?”와 “나랏돈 ~ 잡아들여라.” 등에서 양반의 위엄을 내세우며 ‘말뚝이’에게 명령과 지시를 한다. 이때 ‘상통’, ‘모가지’와 같은 비속어를 섞어 쓰기도 한다.
- ④ 말뚝이는 양반의 ‘전령’ 덕분에 취발이를 양반 앞에 잡아 데려올 수 있었다.

06

㉠ ③번이 답인 이유

취발이의 힘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세고, 날아다니는 호랑이처럼 빠르다고 하는 것은 취발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며, 이러한 평가가 서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의 ‘노새 원님’의 발음은 등장인물인 ‘노 생원님’과 유사하다.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인 생원을 노새처럼 표현하여 희화화하고 있다.
- ② ㉡에서 생원에게 “생님 비뚤한(비슷한) 놈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생원을 생님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쓴다.
- ④ ㉢에서 취발이는 양반의 코 앞에 자신의 엉덩이를 내미는 연기를 하며 양반을 조롱한다. 이는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장면이다.
- ⑤ 생원은 취발이가 나랏돈을 잘라먹었다며 잡아 오라고 하였으나, 말뚝이는 취발이를 처벌하는 대신 취발이에게 돈을 받아 나누자고 제안한다. 이는 취발이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음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이므로 부정부패를 묵인하던 당대의 사회상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04 수필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251~253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형식 (2) 개성 (3) 소재 2 (1) X (2) ○ (3) ○
3 ㉠ 구성 ㉡ 개성

01 과실 02 ㉣ 03 ㉠ 04 ㉤ 05 ㉤ 06 ㉣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특급품_김소운

유추의 방법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글을 읽으며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보자.

해제 이 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둑판을 소재**로 해서 쓴 수필이다. '흙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흙터가 있는 비자반이 특급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 흙터가 바로 비자반 특유의 유연성을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도 과실이나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잘 이겨 낼 때 더욱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수필
- 성격: 교훈적
- 제재: 비자반
- 주제: 삶의 과실과 상처를 극복하는 유연한 태도의 필요성

특징

- 사실과 의견을 적절히 섞어서 서술함.
- 사물의 성질에서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 내는 유추를 통해 주제를 전달함.

01

글쓴이는 비자반에 난 균열이 시간이 흐르며 제힘으로 도로 유착하는 것에서 유추하여 인생의 속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즉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실을 잘 극복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특급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02

㉠ 1번이 답인 이유

갈등 위주의 서사 전개가 나타나는 갈래는 극이나 소설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수필은 작가 대신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필요하지 않다.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갈래이기 때문이다.
- ② 수필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개성적인 시각이 중요한 글이다.
- ③ 이 글은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진솔하게 적어 내린 수필이며, '과실'과 관련한 교훈을 주고 있다.
- ⑤ 이 글은 균열을 제힘으로 극복하는 비자반 특급품의 속성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와 가치를 이끌어 낸 '유추'가 두드러지는 수필이다.

03

㉠ 1번이 답인 이유

작가는 통념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 ② 바둑판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1년에서 3년간 내버려 두는 것은 상처가 원래대로 유착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③ 과실을 아예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④ 과실은 칭찬의 대상은 아니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다. 비자반의 균열처럼 인생의 과실이나 상처 덕분에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⑤ 의문형으로 종결하여 전달 내용을 더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 쓰였다. 바둑판도 스스로 그 상처를 다스리므로, 사람의 인생이 바둑판보다 못하여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차마설_이곡

'고전 수필(설)'의 특징을 확인하면서 읽어 보자.

해제 말을 빌려 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소유에 대한 보편적인 깨달음을** 제시하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촉구하는 **교훈적** 수필이다. 글쓴이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도 본래부터 소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빌린 것임을 예를 들어 제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맹자의 말을 들어 지적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본래 자기 소유의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는 모두 빌려 온 것이므로 소유에 집착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핵심 정리

- 갈래: 고전 수필(설)
- 성격: 경험적, 교훈적
- 제재: 말을 빌려 탄 일, 소유 의식
- 주제: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 의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설(設)의 특징이 잘 나타남.

특징

- '경험→깨달음'의 구성 방식을 취함.
- 권위 있는 사람(맹자)의 말을 근거로 설득력을 높임.
- 집필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

04

㉠ 5번이 답인 이유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등의 구절에서 설의적 표현을 쓰고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사람들의 '소유 의식'을 소재로 삼은 글이다.
- ② 인간이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 ③ '말을 빌려 탄 경험'에서 '소유 의식'에 대한 깨달음의 순서로 글



을 전개한다.

- ④ ‘말을 빌려 탄 개인적 경험’에서 얻은 ‘소유 의식에 대한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의 소유 의식’으로 일반화한다.

05

㉔ ⑤번이 답인 이유

맹자의 말은 사람들이 ‘빌린 것’을 ‘소유’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나’는 맹자의 말을 통해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㉑에서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 의기양양한 감정이 든다고 하였지만, 이 감정이 준마를 갖게 되었을 때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았다.
- ② ㉒에서 ‘나’는 설의적 표현으로 물건을 진짜로 소유하게 된다면 마음의 변화가 더 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③ ㉓에서 ‘나’는 빌렸던 것을 돌려준 이후의 임금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으나, ‘소유하고 있던 권력이 사실은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 ④ ㉔에서 ‘나’는 미천한 자의 경우 빌린 것을 돌려준 다음 허망함이 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이 특히 미혹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06

㉔ ④번이 답인 이유

이 글과 <보기>의 글쓴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의 글쓴이는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부분으로 글을 쓴 동기를 밝히고 있으나, <보기>의 글쓴이는 그렇지 않다.
- ② <보기>에서 ‘빌린 것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이 글에서 빌린 것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어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이 글의 글쓴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으나, <보기>의 글쓴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아닌 간디의 말을 인용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다.

05 소설 VS 수필 VS 극 문학

사뿐히 즈려밟는 확인 문제

p.256~259

- ☑ 바로바로 간단 체크 1 (1) 서술자, 작가 자신 (2) 무대 (3) 허구적
2 (1) X (2) X 3 ㉑ 제약 ㉒ 서술 ㉓ 대사

- 01 ④ 02 ② 03 아름은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던 결정을 후회할 것이다.
04 ㉑에서는 주인공 ‘아름’이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으며, ㉒에서는 대사를 통해 ‘대수’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05 ③ 06 ⑤ 07 ③

01~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원작/최민석 외 각색

‘소설’과 ‘시나리오’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읽어 보자.

해제 김애란의 첫 장편 소설과, 이를 시나리오로 각색한 작품이다.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청춘과 사랑에 대한 눈부신 이야기를 다룬다.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적으로 보여 주는 아이러니한 구조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으며, 젊음의 감각과 죽음에 도달하는 생명의 변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한다. 열일곱 나이에 ‘조로증’을 감내하는 아픈 청춘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 주인공은 자신의 고통을 내면화한 채 오히려 세상을 조롱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 이 특이한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의 새로운 매력이 된다.

핵심 정리

- 갈래: (가) 소설, (나) 영화 시나리오
- 성격: 사실적, 사색적, 감성적, 비극적
- 제재: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
- 주제: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온전한 삶에 대한 소망과 부모에 대한 애정

| 배경 | • 시간: 현대 • 공간: 아름의 집, 병원, 한강 둔치 등

특징

- 무거운 소재를 작가 특유의 생기발랄한 문장과 예리한 통찰로 그려 낸.
- 흡입력 강한 문장과 경쾌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내용이 조화를 이룸.
- 생명의 문제를 소년과 노년, 활력과 병, 믿음과 배신이 겹쳐지는 서사로 그려 낸.
- 부모보다 늙어 버린 주인공이 바라보는 세상과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 줌.

전체 줄거리

발단	엄마와 아빠가 열일곱에 낳은 아들인 아름은 열일곱 살이지만 조로증에 걸려 주름이 생기고 시력이 점점 떨어지며 간과 위에 도 이상이 생기는 등 여든 살의 노인의 몸이 되어 간다.
전개	부모님이 하던 일이 점점 기울게 되어 아름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름은 ‘이웃에게 희망을’이라는 방송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성금을 받고자 한다. <수록 부분>
위기	방송이 나간 후 서하라는 소녀가 메일을 보내오고, 아름은 서하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감정을 키워 간다.
절정	아름은 서하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 취재를 위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이었음을 알게 되고, 아름의 건강은 점점 나빠진다.
결말	아름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남기고 죽음을 맞이한다.

01

㉔ ④번이 답인 이유

(가) 글의 갈래는 소설이며 소설에는 ‘해설’이 없다. ‘해설’이 나오는 갈래는 희곡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소설의 작가와 서술자인 ‘나’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 ② “설렘과 어색함, 신기함과 민망함이 섞여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 동영상을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다.” 등에서 ‘나’가 자신의 심정을 서술해 준다.
- ③ ‘나’의 서술과, ‘나’와 ‘엄마’의 대화가 교차되어 나타난다.

- ⑤ ‘나’는 과거에 방송 출연을 결정했으며, “괜히 하자고 한 걸까?” 등에서 알 수 있듯 방송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다.

02

㉠ 2번이 답인 이유

(나) 글의 갈래는 시나리오이며 시나리오에는 ‘서술’이 없다.

오답 피하기

- ① 시나리오는 소설에 비해 이야기의 길이에 제약을 받는다.
 ③ ‘아름’이 놀림을 받는 사건’이 불량한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대사와 행동으로 전개된다.
 ④ ‘불량한 남학생 1’은 아름의 음성듣성한 머리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쳤다.
 ⑤ 시나리오는 각 장면에 쓰이는 촬영 기법을 정해진 시나리오 용어로 나타낸다. 따라서 촬영 기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 장면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03

(가)에서 아름의 사연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불량 학생들이 아름이 출연한 방송을 보았기 때문에 아름을 알아보고 괴롭히고 있다. 따라서 아름은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던 결정을 후회할 것이다.

04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에서는 주인공 ‘아름’이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으며, (나)는 영화 시나리오로, ㉡에서는 대사로 ‘대수’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05~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무진기행, 안개_ 김승옥

‘소설’과 ‘시나리오’ 갈래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읽어 보자.

해제 김승옥의 단편 소설과 이를 시나리오로 각색한 작품으로, 주인공 윤기준이 ‘무진’에서 하는 체험을 중심으로 한다. 이 작품에서 ‘안개’는 허무를 상징하는데, 작가는 ‘서울-무진-서울’이라는 주인공의 여정 속에서 1960년대의 허무와 회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윤기준이 무진에서 만나는 이들을 통해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물질 만능 주의, 출세 지향, 도시 지향 등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 작품은 4·19 혁명 이후 우리 문학이 1950년대 전후 문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 주며, 개성 있고 새로운 현대적 감수성을 엿볼 수 있다.

핵심 정리

- 갈래: (가) 소설, (나) 영화 시나리오
- 성격: 고백적, 독백적
- 제재: 인간의 속물성, 무진에서의 시간
- 주제: 속물성에 대한 부끄러움과 현실에 대한 갈등

| 배경 | • 시간: 현대 • 공간: 주인공의 집, 무진

| 특징 |

-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 심리 묘사가 두드러짐.
-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강함.

| 전체 줄거리 |

발단	제약 회사의 전무가 될 윤기준은 아내의 권유로 젊은 날의 추억이 있는 고향 무진으로 떠난다. <수록 부분>
전개	무진에 온 윤기준은 후배 박과 동창 조, 그리고 박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하인숙이라는 음악 교사를 만난다.
위기	무진을 떠나고 싶어 하는 하인숙은 윤기준에게 서울로 데려다 달라고 청한다. 윤기준은 하인숙에게서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를 다시 만날 약속을 한다.
절정	윤기준은 하인숙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그 사실을 끝내 말하지 않는다.
결말	아내로부터 빨리 돌아오라는 전보를 받은 윤기준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하고, 무진을 떠나며 부끄러움을 느낀다.

05

㉠ 3번이 답인 이유

(가)는 소설로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이라는 서술로 주인공의 반응을 제시하였고, (나)는 시나리오로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이라는 윤기준의 대사로 주인공의 반응을 제시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가)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심리가 제시되었다. (나)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주인공은 버스를 타고 무진에 가는 중이나, 구체적인 공간의 변화는 서술되지 않는다. (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무대 소품을 바꿔가며 공간의 변화를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갈래는 희곡이다.
 ④ (가)에서는 서술자가 버스 안에서 하는 공상이 서술되었지만 아내의 심리를 상상하여 서술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서 아내의 말은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에서는 버스의 덜컹거림이 주는 느낌을 1인칭 주인공 서술자가 직접 서술하고 있다. (나)에서는 버스가 자갈길을 달리는 장면을 S# 11에서 보여 주고 있다.

06

㉠ 5번이 답인 이유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이라는 구절을 보면 나는 아내의 말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에서 ‘나’는 유월의 ‘바람’ 때문에 긴장이 풀려 반수면 상태가 되었다.
 ② 수면제를 만들어 낸다는 공상을 한 자신에 대해 주인공은 ㉡에서 ‘쓴웃음’을 지으며 자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아내의 권유로 무진에 가고 있다. 아내가 아버지와 함께 주주 총회의 일을 다 꾸며 놓는 동안 무진에 가 있기로 한 것이다.



- ④ 주인공이 무진에 가 있는 사이에 주인공을 제약 회사의 전무로 만들려는 아내의 욕망이 드러난다.

07

㉠ ④번이 답인 이유

‘S# 4’에서는 여유로운 집안 모습을 보여 주고, ‘S# 5’는 집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 주므로 ‘S# 5’는 ‘S# 4’의 분위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기준의 결혼 사진을 통해 두 인물이 부부 관계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윤기준의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로우브(목욕 가운)는 당시로는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을 것이므로, 윤기준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④ ‘S# 11’에서는 시골 자갈길을 달리는 버스의 모습을 보여 주어 야 한다. 따라서 카메라가 버스의 바깥에 위치하여, 달리는 버스의 모습을 촬영해야 한다.
- ⑤ ‘S# 12’에서는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을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카메라는 버스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카메라의 시선은 버스 안에서 밖으로 향해야 한다.

꿈엔들 잊힐리야 수능 다가가기

p.260~263

01 ⑤ 02 ② 03 ④ 04 ①

줄거리 요약 [261쪽] ① 위조지폐 ② 유령 회사 ③ 누명 ④ 양복 ⑤ 사복형사 ⑥ 손해

[263쪽] ① 작년 봄 ② 올 봄 ③ 지금 ④ 오늘 ⑤ 오늘 오후

작품 분석하기

[261쪽]

주요 상황		청년이 월급으로 받은 위조지폐로 양복을 구입하다 사복형사에게 잡혀 사무실로 끌려옴.	청년이 위폐범으로 몰려 사복형사에 의해 끌려 나감.
태도와 반응	사장	청년을 모른 채함.	청년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청년을 탓함.
	청년	억울해 하면서, 사장을 원망함.	
	사복	청년의 말을 믿지 않고, 사장의 말만 믿음.	
	사원들		위조지폐의 실패를 다른 직원의 탓으로 여김.

[263쪽]

① 나 ① 앞집 사람

01~02

2016학년도 9월 고2 학력평가

오영진 <정직한 사기한>

주제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모순된 사회 현실 풍자

해제 가족으로 구성된 위조지폐 사기단이 선량한 청년을 속여 위조지폐 사기 행각에 끌어들이는 내용이다. 정직한 청년이 ‘사기한(詐欺漢)’, 즉 사기꾼으로 몰린다는 것은 그 사회의 부정직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혼란하고 가난한 서민 생활을 바탕으로 물질 만능 주의, 타락한 양심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정직한 인물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모순된 현실 상황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전체 줄거리

발단	가난을 면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게 된 가족이 유령 회사를 차리고 사원을 모집한다.
전개	누명을 써 전과자가 된 정직하지만 어수룩한 청년이 사원으로 채용된다.
절정	위폐를 받은 청년이 양복을 구입하려다 발각된다.
하강	청년과 함께 사복형사가 찾아오자, 사장은 청년의 채용을 부정한다. <수록 부분>
대단원	청년이 연행되고, 가족은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 도망간다.

특징

- 역설적 제목을 통해 사회의 부정직성을 보여 줌.
-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과 타락한 가치관을 비판함.
- 거짓과 부정이 난무하는 현실을 반영함.

01 인물의 정서와 태도

정답 ⑤ 정답률 84%

㉠ ④번이 답인 이유

- ⑤ ‘사원 갑’과 ‘사원 병’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사복’에게 붙잡힌 ‘청년’을 동정한다.
- ➔ 사원 병의 “참 그 자식 때문이야.”, 사원 갑의 “첫눈에도 자식이 좀 모자라는 것 같더니만.”의 대사를 보면 사원 갑과 병은 손해를 보게 된 원인을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동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사복’은 ‘청년’보다는 ‘사장’의 말을 신뢰한다.
- ➔ ‘사복’은 양복을 사 입으라고 달려를 주었다는 ‘청년’의 말을 믿지 않고, 생면부지라는 ‘사장’의 말을 믿으며 ‘청년’을 끌고 간다. 이를 통해 ‘사복’은 ‘청년’보다 ‘사장’의 말을 신뢰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청년’은 자신의 결백함을 ‘아씨’가 밝혀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 “아네요. 나으리는 몰라요, 나으린. 아씨, 아씨! 아씨가 아십니까.”, “아씨를 만나게 해 주세요, 아씨를. 아씨는 거짓말을 안 하실 겁니다.”를 보면 청년은 끌려가면서도 아씨를 부르며 아씨가 자신의 결백을 밝혀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③ ‘사장’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복’ 앞에서 ‘청년’을 모른 채한다.
- ➔ ‘사장’은 자신이 위조지폐를 ‘청년’에게 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청년을 생면부지라고 말한다.
- ④ ‘사장’은 잡혀 온 ‘청년’을 통해 지폐를 위조하는 데 실패했음을 확인한다.
- ➔ ‘사장’은 ‘청년’이 끌려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또 실패지.”라고 말하며 지폐를 위조하는 데 실패했음을 확인한다.

02 외적 증거 활용

정답 ② 정답률 69%

보기

단막극인 이 작품은 무대 공간이 회사 안으로 제한된다. 무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행동과 대화로 이야기가 형상화되기도 하지만, 무대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직 인물의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정답 ②번이 답인 이유

- ② [B]: 청년이 백 불짜리 위조지폐로 양복을 구매하려는 일
 → 이 작품에서 무대 안은 사실이다. 따라서 무대 밖 사건은 사실 이외의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무대 밖 사건은 청년이 위조지폐를 가지고 양복을 구매하다 사복형사에게 잡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B]에서 사복의 대사인 “백 불짜리 지폐를 위조해 가지고 백주에 서울 네거리를 뿔뿔히 휘둘러.”를 통해 드러난다.

오답 풀이

[A], [C], [D], [E]는 모두 무대 공간 즉, 무대 안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 일이다.

개념의 좌표 찾기

• 무대 밖 사건(→233쪽)

03~04

2014학년도 4월 고3 학력평가 A

이태준, 〈파초〉

주제 글쓴이의 파초에 대한 애정

해제 이 글은 글쓴이가 파초를 기르면서 겪은 일을 통해 파초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파초의 운치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파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 파초를 실용적 가치로 대하는 앞집 사람을 등장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지향하는 심미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적절한 대화체의 사용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전체 줄거리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온 나는 그 파초를 성북동에서 제일 큰 파초로 키워 낸다. 나는 종종 그 밑에 의자를 놓고 명상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앞집 사람이 찾아와 파초를 팔라고 권유한다. 내가 거절하자,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찾아와 좋은 작자가 있다고 입맛을 다신다.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다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그의 권유를 거절한다.

구성

처음	파초를 사 와서 정성을 들여 가꾸고 멋을 즐긴다.
중간	파초를 팔라는 제안을 받음.
끝	파초를 팔라는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함.

특징

- 두 개의 이야기가 공통된 소재(파초)로 연결됨.
- 파초를 통해 글쓴이의 정서와 가치관을 표현함.
- ‘나’가 파초를 아끼는 이유와 ‘앞집 사람’의 말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고백체로 서술함.
- ‘나’의 삶의 태도를 ‘앞집 사람’의 현실적 사고와 대조하여 보여 주고 있음.
- 대화체를 통해 일화를 전달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음.

03 서술 방식 파악

정답 ④ 정답률 73%

정답 ④번이 답인 이유

- ④ 대상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대비하여/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이 작품은 파초를 감상의 대상으로 아끼는 글쓴이와 내년에 죽을 파초를 미리 팔라고 하는 ‘앞집 사람’의 대조적인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파초를 실용적인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심미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부각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오답 풀이

- ① 과거 회상을 통해/현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파초와 관련된 글쓴이의 일화를 제시하여 파초를 심미적인 감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대화를 삽입하여/대상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삽입된 대화는 일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는 효과가 있으나, 소재인 파초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③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글쓴이의 객관적인 감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파초에 대한 구체적 경험과 파초에 대한 애정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을 주관적 관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객관적 감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개념의 좌표 찾기

- 회상(→24쪽)
- 성찰(→24쪽)
- 대화(→131쪽)
- 단정적(→21쪽)
- 극복 의지(→21쪽)



04 외적 증거 활용

정답 ① 정답률 68%

보기

수필의 소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평범한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일상적인 소재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①번이 답인 이유

- ① 파초의 크기에 경탄하며 '지나는 사람'에게서 파초를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평범한 눈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은 '자신만의 개성적인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나는 사람'은 단순히 파초의 겉모습만 보고 경탄하는 것으로, 평범한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본 것이지 자신만의 개성적인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② 틈틈이 좋은 거름을 주는 등 파초를 기르는 경험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파초는 '나'의 일상과 관련된 소재임을 알 수 있군.
- '소 선지', '생선 씻은 물', '깻묵물' 등 틈틈이 좋은 거름을 주며 파초를 기르는 경험이 제시된 것에서, 파초가 '나'의 일상과 관련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 ③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비를 뿌린다고 표현한 것은, '나'가 파초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군.
-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마음에 뿌리는 비와 연결해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아, '나'가 파초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파초를 팔라는 '앞집 사람'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나'가 파초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군.
- 파초를 팔라는 앞집 사람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나'가 파초를 심미적 가치로 바라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 ⑤ 자신의 눈이 뜨거워졌다는 말을 통해 '나'가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겠군.
- 자신의 눈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파초를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판단하는 '그'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파초에 대한 '나'의 애정을 부각함으로써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개념의 좌표 찾기

• 수필의 특징(→248쪽)